333
가29
~~331.62 333~~
보건51人

社會氣風醇化對策

—理論定立을 爲한 試論—

보건사회부
제 09593 호
87년10월2일
자료실

保 健 社 會 部
社會保障審議委員會

우리는 世界的인 経済危機의 渦中에서 国民生活의 安定과 発展을 追求하고 祖国의 平和的統一과 国家安全保障을 위한 維新課業을 完遂하여 社会正義를 具顕하고 福祉国家를 建設하는데 지금 総力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重且大한 課業을 遂行하기 위하여는 지난 4半世紀동안의 混乱속에서 자라온 온갖 不正腐敗와 侈奢浪費, 내일이 없는 刹那主義와 官能的快楽을 일삼는 頽廃風潮등 모든 社会不條理를 果敢하게 除去하여 良心과 信義, 勤勉과 節約, 自主와 協同으로 밝고 보람찬 来日의 共同目標를 向하여 邁進할 수 있도록 새로운 価値風土를 造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최근 10余年동안 工業化와 近代化에 没頭해 왔으며 또 그 成果가 매우 큰것도 事実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急速한 発展過程에서 副産되고 있는 여러가지 害悪과 오랜 伝統 속에 스며있는 固陋한 不條理가 우리의 共同目標를 達成하는데 阻害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国民들이 그 公·私生活에서 精神的 改革과 行動様式의 転換을 促求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国家施策의 最優位의 事業으로 推進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은 모든 国民이 貧困에서 벗어나 속살이 찌고 精神的 平穏을 갖자는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農漁村의 革新을 가져오고 〃10月維新〃은 政治的変革을 가져옴으로서 새로운 価値體系의 確立을 크게 促進하는 契機가 되었다고 하겠읍니다.

지난 1974. 1. 29. 大統領閣下에게 社会気風 醇化対策樹立의 必要性을 報告드리고 난후 우리 나라에 著名한 各界의 精神指導者들의 協助를 받아 対策要綱을 作成하고 1975. 2. 17. 이를 大統領閣下에게 報告드린바 있읍니다.

그리고 社会気風醇化対策 要綱의 具體的인 実践方案을 講究하기 위해 同年3.4. 政府内 15個 関聯 部処 実務局長会議를 開催하여 討議한 結果 이는 汎国民的인 社会運動으로 展開하여 生活化하고 態度化하여야 할 것이므로 모든 国家機関의 有機的協助를 模索하기 위해서는 細部実践事項을 具體的으로 提示하여 国務総理 企劃調整委員会議에 上程시켜 그 実践에 萬全을 期할 수 있도록 하자고 決議한 바 있읍니다.

그리하여 各部門의 細部実践事項을 例示 하였으나 不充分 하므로 当該業務를 所管하는 当該 部処에서 보다 具体的인 作業이 이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社会気風醇化対策要綱의 内容이 広範囲하고 흔히 社会不條理라고 指称되는 事実이 한해. 두해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 原因도 複合的이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보는이의 생각이나 立場에 따라 여러가지 論議의 余地가 많습니다.

이 要綱을 作成하면서 모아온 資料와 見解들을 整理하여 이일에 関心을 가지신 여러분이 參考하시도록 하는바 이를 기초로 계속 補完修正할 試論이오니 忌憚없는 叱正과 鞭撻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975. 9. 1.

保健社会部 社会保障審議委員会

(社会気風醇化対策, 特別 作業班)

研究委員 孫 昌 達

保 健 社 会 部 長 官 貴下

〔 차 례 〕

第1章 序說 - 現代文明과 새로운文明에의 志向 5

1. 現代文明의 性格 7

가. 現代文明의 발자취 7

나. 우리社会와 現代文明 14

2. 새로운 文明에의 前提 16

3. 現代文明과 人間倫理 18

가. 現代文明과 人間의 心性 18

나. 現代文明의 趨勢 20

다. 現代文明의 特徵 23

라. 現代文明과 人間倫理 27

4. 現代社会와 実践倫理의 基礎 29

가. 伝統社会에 있어서의 孝思想 29

나. 現代社会에 있어서의 忠·孝思想 31

第2章 우리의 価値観의 現実과 価値體系確立의 問題 35

1. 問題의 提起 37

2. 現代韓国人의 価値観과 우리의 現実的 特徵 39

가. 伝統社会의 特徵 39

나. 価値観의 分類 40

다. 東洋的, 伝統的 価値観과 現実 40

1) 家族主義的인 傾向 40

2) 感情優勢의 傾向 42
3) 外觀과 形式의 尊重 43
라. 西欧的, 現代的 価値観과 現実 46
1) 経済的 価値優位의 傾向 46
2) 享楽主義的인 傾向 49
3) 利己主義的인 傾向 58
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問題点 61
1) 過熱한 競争 61
2) 社会的 隔差와 不均衡 63
3) 非人間化 65
4) 価値観의 混乱 71

第3章 새로운 価値體系 確立의 方向 73
1. 새로운 価値體系의 基調 75
가. 人間回復 75
나. 人間回復과 経済生活 79
다. 合理的 精神과 人情美 83
2. 家族과 倫理 86
가. 家族의 概念 86
나. 家族의 構造 86
다. 家族의 倫理 87
1) 夫婦의 倫理 87
2) 親子의 倫理 90

ㄱ. 孝 91
ㄴ. 教 育 93
ㄷ. 舅姑와 子婦間의 関係 94
3) 兄弟姉妹의 倫理 95
4) 崇祖睦族 96
라. 家族과 国家 98
마. 家族制度에 대한 小考 102
1) 家族의 形態 102
ㄱ. 家族生活과 家長 102
ㄴ. 大家族制의 特質 104
ㄷ. 大家族制의 崩壊 105
2) 家長的 家族制와 個別的 家族制 107
바. 要 約 111
3. 女性과 倫理 112
가. 女性과 道德 112
나. 아내로서의 道理 116
다. 어머니로서의 道理 119
라. 딸로서의 道理 121
마. 職業女性의 道理 123
4. 道義와 教育 123
가. 道義와 社会発展 124
나. 道義類型別 特性 130

다. 道義発達의 段階와 道義教育 ····· 142
라. 道義教育의 方法 ····· 146
마. 教育的 人間像 ····· 152
바. 人間解放을 위한 教育 ····· 159
5. 社会道義의 確立 ····· 165
가. 社会의 類型 ····· 165
나. 融合과 自主独立 ····· 167
다. 秩 序 ····· 171
라. 固定과 変化 ····· 173
마. 앞날의 市民道徳 ····· 175
바. <콤뮤니케이션>의 役割 ····· 177
사. 우리社会의 道義発展 ····· 189
아. 経済와 道義 ····· 199
第4章 社会気風 醇化를 위한 하나의 提案 ····· 211
1. 醇化運動의 主役 ····· 213
2. 醇化運動의 方法 ····· 215
3. 醇化運動의 推進計劃 ····· 220
結 語 ····· 222

第 1 章　序　　說

— 現代文明과　새로운文明에의　志向 —

第1章　現代文明과 새로운 文明에의 志向

(序　　說)

1. 現代文明의 性格

物質 第一主義의 現代文化를 肯定的으로 보아 楽観 하는 者와 冷酷한 排判으로 人類의 来日을 悲観 하는 者도 있다.

祖国의 近代化를 서둘르고 있는 우리로서 未来의 文化에 至大한 関心을 가진 現代社会의 一員으로서 또 새로운 文化의 形成 参与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重大한 問題에 真摯한 討議를 거쳐 새로운 文化가 志向할 指標를 設定할 必要가 있다.

가. 現代文明의 발자취

人類文化가 自然의 威力 앞에서 自然을 主宰하고 있다고 믿은 神의 権力에 自身의 生死禍福을 맡기던 時代에서 人間은 知性을 통하여 神을 依支하지 않고도 自己生活을 営為할 수 있다고 믿는 人間 依存時代에 이르고 있다.

人類는 이제 従属的 存在가 아니라 主人이 되었고 그 権威와 地位 또한 놀랄 만큼 上昇 되었다. 따라서 人間의 価値는 増進되고 그의 尊厳性이 認識되어 〈칸트〉가 말한 대로 「"사람은 手段으로서가 아니라 目的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倫理에 눈뜬 것이다. 이리하여 真正한 意味의 民主主義가 탄생을 본 것이다.

伝統社会에서도 民主思想은 없었던 것은 아니다. 数千年前에 聖

賢들에 의해 人間의 尊貴함을 闡明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先人들의 教訓은 한낱 理想論으로 돌리고 실제로 人間関係를 律하는 法則으로서는 普及되지 못하였다.

새時代에 접어든 近代人은 첫째 真理探求의 方法으로서 従来의 演繹法을 버리고, 帰納法을 主로 하는 科学을 発展시켰고 둘째는 사람의 価値를 伸長시키려는 民主主義 思想을 拡大시키는데 目標를 두고 努力을 기울여 왔다고 하겠다. 前者는 人間의 知性에 대한 信仰을 토대로 하여 成就된 것이요. 后者는 人間의 尊貴性에 대한 믿음에서 推進된 成果로서 그 어느 것이나 人間의 能力과 可能性에 대한 信頼 위에 이룩된 功績이다.

1) 現代文明이 成就한 科学과 技術의 急速한 発展은 人類生活에 놀라운 前進을 가졌왔다. 그 功績을 일일이 列挙할 수는 없고 重要한 몇 가지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現代文明은 自然을 征服하는데 成功하여 自然의 威力에 屈服하였던 人間은 반대로 그를 支配하기에 이르렀다.

(2) 人間의 満足할 줄 모르는 끈질긴 知的 好奇心은 地球를 征服한 余力으로 이제 宇宙征服을 향하여 巨歩를 내딛고 있다.

(3) 科学과 技術의 힘을 빌어 人間의 必需物資를 量産하여 그의 物質的 欲求를 充足시킴으로써 그를 貧困으로부터 解放시키고 있다.

(4) 同時에 文明의 利器를 創造, 普及시킴으로써 어느 程度 安楽과 簡便을 부여하고 있다. (例 電気, 매스콤 등)

(5) 医学의 発達은 現代人의 大部分을 病魔로부터 救済하고 그의 寿命을 놀랄만큼 延長시키고 있다.

(6) 印刷術의 발달은 모든 사람을 知識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터여지고, 따라서 文化生活의 向上이 可能하게 되었다.

(7) 民主主義의 普及은 現代人의 地位를 높여 사람으로서의 待遇를 받게 되고, 그의 権利가 어느 정도 保障되어 가고 있으며, 公共政策의 決定에 다소나마 参与하게 되어 가고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現代文明에도 不拘하고 近玆에 이르러 物質的, 非人間化에 대한 非難이 높아져 가고 있다.

萬一, 人類文明의 念願이 사람의 幸福에 있다면 과연 現代文明이 그 念願을 充足시키고 있으며 아직 그러한 경지에 到達치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方向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現代文明이 追求하고 있는 物質的 豊饒가 果然 人間의 理想을 実現시키고 있으며 人間의 権威와 尊厳性을 確保할 수 있는 것일까? 또 現代文明의 副産物의 病弊를 克服할 수 있는 것일까? 萬一 그 病弊가 不可避한 것이라면 現代文明의 問題를 根本的으로 再検討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論難이 続出되고 있다.

3) 現代文明이 招来한 病弊에서 두드러진 몇가지 만을 列挙하면 다음과 같다.

(1) 価値에 관한 것으로서 現代文明의 초점이 物質主義에 있어 物質的 価値를 지나치게 崇尚하는 나머지 精神的 価値를 疎忽

허 하고 있다는 批判은 免할 길이 없을 것 같다.

사람은 다른 動物과는 달라 高台広室과 好衣好食을 願치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滿足하고 그것에서 生의 참된 意義를 찾는다고 할 수 없다. 그에게는 그 以上의 価値를 追求하려는 欲望이 있다. 萬一 사람에게 物質以上의 高次的 価値에 대한 愛慕의 情이 없었다면 우리는……

西欧에서 시초된 現代文明은 分明히 物質的 価値追求에 기울어진 嫌疑가 없지 않고 利潤追求에 血眼이된 資本主義는 이 定罪를 면할 길이 없을 것이며 物質的 価値를 最高의 価値로 여기고 있는 共産主義가 人間을 動物的 水準이나 機械로 끌어 내리려는 罪過를 犯하고 있다는 非難을 避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1) 現代文明은 人間을 尊重한다는 <휴머니즘>에 그 思想的 根拠를 두고 있는 것이 事実이지만 結果的으로 『人間喪失』을 招来하고 있다.

伝統社会는 小形의 鄕土社会로서 個人의 <아이덴티티>가 明確했다. 누구나 사람을 만나면 人事하고 親密感과 人情이 흐르고 동네일이 내 일이요, 내일이 곧 동네 일이었고 分業을 모르던 生産過程에서 創造와 完成의 喜悦을 느낄수 있었다. 누구나 한 「축」에 끼는 成員으로서 孤独을 모르고 살 수 있었다.

그러나 現代文明은 都市의 極大化에 職場의 巨大化를 가져와 個人은 大集団의 微微한 存在로 떨어졌고 群衆속의 孤独人으로 転換되어 버린 状況下에 그의 人間으로서 存在는 희미해지고 말았다.

이제 그의 이름은 番号로 代置되고, 創造人으로서의 喜悅은 영영 살아지고 거창한 機械의 조그마한 部品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人情서린 鄕土의 家庭的 零囲気로부터 追放되어 이웃은 있어도 対話 없는 남 사람들은 우글거려도 情談을 나눌 수 없는 冷冷한 무리 같은 職場에서 소위 한 솥의 밥을 먹고 있으면서 退勤時間이 되면 뿔뿔이 흩어지고 烏合之衆과 같은 大集団속에서 創意性과 独自性을 発揮할 수 없는 無力한 組織人, 실로 現代人은 孤独하고 大海의 波濤에 휩쓸리는 한방울의 물방울에 불과한 存在가 곧 現代人의 모습이다.

人間을 奴隷状態로부터 解放시키기 위하여 出発한 現代文明은 이제 人間喪失의 悲劇을 招来하게 된 것이다.

(3) 現代人은 分明히 浪漫을 잃고 있다. 極度로 機械化된 現代文明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꿈이 없고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独特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이제 人間은 平準化되고 劃一化된 普通人으로서, 이미 마련되고 판에 박힌 길을 걸어야 하는 規格人間인 것이다.

아침 저녁에는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에 시달리면서 出退勤을 해야 하고 職場에서는 上司의 命令에 따라 機械처럼 움직여야 하며 月給날에는 얄팍한 봉투에 매달려 外上을 갚고 眷属을 먹여 살려야 하는 虚無感에 젖어 무슨 浪漫이 있겠는가! 이러한 生活 속에서 現代人은 어떻게 지난날 맛보던 風流를 찾고 「멋」을 즐길 수 있겠는가? 거기에 比較的 安定이 있을지 모르나 분명히 浪漫은 없다.

이것이 現代文明이 人間에게 가져온 不幸이요 悲劇이다.

最近 凶悪犯罪나 殺人과 같은 極限的인 行動이 恣行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無分別한 사람의 狂乱으로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自我를 喪失하고 愛情을 喪失한 現代文明의 産物인 挫折感의 爆発이요 사랑에 굶주린 젊음의 欲求不満의 그릇된 表現이며 막다른 골목으로 쫓긴 自暴自棄의 行為일 것이다.

(4) 現代文明은 社会를 個人単位로 分裂시켜 소위 核化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現代文明은 資本主義 위에 구축되어 있고 그 特色은 利潤追求에 그 根拠를 두고 있다. 누구를 위한 利潤追求일까? 이것은 企業人을 위한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伝統的 共同社会에서도 個人主義가 作用 안 했던 것은 아니다. 現代文明을 人間의 勝利라고 보고 이것이 科学과 技術의 발전에 의한 物質文明과 個人의 尊厳性을 그 思想的 核心으로 하는 民主主義로서 代表되는 精神文明의 두바퀴의 作用으로 成就된 것이라면 現代文明이 個人의 価値를 伸長시키는데 크게 貢献했다. 따라서 個人의 幸福을 強調한 것도 理解할 수 있다. 資本主義는 黄金萬能思想을 胚胎하고, 民主主義가 個人의 尊貴性을 強調한 結果로 現代文明은 다분히 個人主義의 方向으로 흐르게 되었다.

都市化를 촉진시킨 近代 産業構造는 伝統文明의 故郷이었던 農村社会의 連帯意識을 파괴하고 核家族化내지 核個人化하게 되었다. 実은 사람의 生活이 相互依存의 度를 더해 가고 있는데도 不拘하

고 個人사이에는 無形의 壁이 쌓이게 되고 社会는 共同運命体라는 観念으로부터 個人 為主의 集団으로 変貌해 가고 있다.

따라서 人情, 協同, 相扶相助, 社会正義와 같은 社会的 美徳은 점점 사라져 가고, 自主, 自立, 独走, 独尊, 自己満足과 같은 個人的 特性이 보다 높은 価値로 尊重되게 되었다. 심지어 「나만 잘 살면 된다」고들 한다. 이러한 傾向이 반드시 現代文明의 内的 属性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것들이 現代文明에 의하여 刺戟되고 激化되고 있는 것만은 否定할 수 없을 것이고 物質的 価値優位의 피할 수 없는 代価일지도 모른다.

(5) 現代人은 확실히 그가 依拠하여 살아온 確実性을 喪失하고 있다. 不変性 속에 살고 있었던 前近代人에게는 固定된 秩序가 있었고 安定이 있었다. 그들의 生活은 恒久性에 길이 뿌리를 내려 그의 思想 특히 価値観은 安定性이 支配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思想的 基盤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行為를 指揮하는 뚜렷한 原理原則이 있었고, 그의 価値判断을 決定하는 明確한 尺度도 있었다.

이에 反하여 現代人은 하나의 彷徨者로 迷児가 되어 버렸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変化가 安定性을 剝奪하였고, 無常한 価値 変動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真理인가? 삶의 目標를 어디에 두고, 무엇이 참된 생활이고, 무엇에 依支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疑問과 懐疑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現代人은 羅針盤을 잃은 一葉片舟와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은 現代人이 겪어야 하는 受難과 苦惱은 항상 変하고 있는 現代社会에 살고 있는 現代人이 「進步」와 「発展」을 위하여 支払해야할 代価이다.

이밖에도 現代人들이 当面하고 있는 問題, 장차 直面할 것으로 予測할 수 있는 問題가 山積해 있다.

여기에 無限定한 現代人의 自由를 위한 欲求는 将次 現代社会를 어디로 몰고 갈 것인가? 사람은 無制限의 自由를 欲求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許容될 때 果然 社会秩序가 維持되며 平等과 正義가 保全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最近에 크게 問題가 되고 있는 環境汚染 事態는 現代 生産方法과 共存할 수 있을 것인가? 人類를 一時에 全滅시킬 수 있는 核武器의 危険은 어떻게 克服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모든 現代文明이 惹起하는 問題들을 생각할 때 毛骨이 悚然하지 않을 수 없다. 実로 現代文明이 우리 人類에게 가져다준 恵沢이 많지만 이것이 招来한 損失도 많다.

나. 우리 社会와 現代文明

1) 今世紀에 들어와서 두 차례의 戦争을 겪었고 우리는 他意에 의한 国土와 民族의 分断으로 6.25라는 엄청난 同族相残의 悲劇을 겪어야 했다.

闘争과 反目과 嫉妬와 嫌悪와 不和와 殺生과 不正不義와 利己主義와 圧迫과 不平 等이 아직도 우리 社会의 한 구석에 横行하고 있다. 特히 共産主義는 사람의 自由를 剝奪하고 있어 暴力과 人権의 無視와 人類가 오랫동안 축적해 놓은 精神的 価値의 虐殺을 주저없이 恣行하고 있다.

이러한 現実을 우리는 어떻게 説明하여야 할 것인가? 科学과 技術

에 의한 物質文明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反하여 道義文明은 비록 그 形態는 어느 程度 변했다 하더라도 本質的으로 原始生活 상태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사랑을 最高의 理想으로 한다는 基督教 안에서의 相爭 人類平和를 礼讃하면서도 軍備拡張에 광분하고 있는 列強을 어떻게 解釈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현실을 볼 때 人類는 憤怒 섞인 失望과 懐疑의 念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2) 人道主義的 理想이 孔子, 孟子, 釈迦, 예수 등 先人들에 의하여 멀리 2천년전에 闡明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사람의 知性에 대한 信仰을 근거로 발전하여온 科学과 技術의 歷史가 数百年의 세월을 지나온 오늘에 있어 人間과 社会의 完成은 말할 것도 없고 不條理 투성이의 오늘의 人間生活과 社会現実을 目睹하고 있는 現代人으로서는 그의 先人과 그 자신의 楽観에 대하여 懐疑와 幻滅을 통감하기에 充分한 材料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人間能力의 制限性에서 民主主義制度 自体에 대하여 懐疑를 가지지 않을 수 없고, 科学에 있어서도 可能한 일이 있는 동시에 不可能한 일도 있다. "칸트"도 "아인슈타인"도 科学의 힘으로는 도저히 説明할 수 없는 世界가 存在함을 인정 하였다.

科学萬能時代에서 人類는 행복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이에서 얻은 恵沢이 莫大함에도 불구하고 人間은 참된 幸福과 満足을 発見하는데 失敗하였다.

그러면 그 理想을 具顕하기 위하여 人間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

가? 우리는 결코 神 依存時代로 돌아갈 수도 없고, 科学文明을 咀呪할 수 도 없다. 그렇다고 方向感覚을 잃은 人間 依存時代에 머물을 수도 없다.

人間은 새로운 文明을 発見하여야 겠다. 이제 人類는 人類의 過去를 되살펴 보고 現在를 再検討하여 自身을 再吟味, 再解釈 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2. 새로운 文明의 前提

〔새로운 文明에의 設計를 論者와 같은 사람이 云謂한다는 것은 주제 넘고 不可能한 일이나 몇가지 参考 삼아 提言한다.〕

1) 새로운 文明은 무엇보다도 人間을 尊重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은 人間의 福利増進에 이바지 하는 것 即 사람의 尊厳性이 蹂躙되거나 다른 것을 얻기 위한 手段으로 利用 되어서는 안된다. 人間의 価値가 最上의 価値로 優待되고 모든 다른 価値는 人間価値에 従属되어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文明은 率直하고 謙虚하게 人間과 科学의 限界性을 是認한 바탕 위에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人間의 完成 可能性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人間은 神이 아니며 長点도 있고 弱点도 있다는 事実을 담담하게 認定하고 이를 意識하며, 이를 始発点으로 하여 새 出発해야 할 것이다.

科学과 技術이 人類에게 크게 貢献한 것은 事実이지만 科学만으로는 人間의 複雑한 問題를 解決할 수는 없다. 科学의 方向을 提示 하는 것은 科学以外의 힘에 속하듯이 이 힘의 指揮를 받지 않는 科学은

人間을 잡아 먹을 수도 있으므로 새로운 文明은 道德에 의하여 指導되는 科学文明이어야 할 것이다.

3) 새로운 文明은 사람의 知性을 過大評価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知性은 人間이 지닌 特性이지만 그것 만이 人間의 特典은 아닌 것이다. 道德性 역시 人間만이 얻은 恩慧라는 것을 잊지 말고, 새로운 文明에는 사람의 知性과 더불어 그의 道德性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科学의 冷厳한 規律에 사로잡혀온 사람의 浪漫, 꿈, 審美性, 감정, 興趣, 멋 같은 것이 尊重되고 情緖가 蘇生되어 生活을 潤沢하게 할 수 있는 것 即 빵만으로 살지 않는 새 文化的 風土가 造成되어야 할 것이다.

4) 物質的 価値는 오직 사람의 精神的 価値를 뒷받침 하고 그 生産과 向上을 可能케 하는 限度 안에서만 重要視 되는 새로운 文明이 創造되어야 한다. 精神的 価値를 代価로 하거나 人間的 価値의 廃墟 위에 세워지는 物質文明에 人間은 이제 지쳐가고 있으며 배를 불림으로써 満足하는 文明에 사람은 虚無를 느끼고 있다. 真正한 人間文明은 物質的 価値의 比重을 充分히 認定하면서 보다 次元 높은 価値 위에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5) 새로운 文明은 萬人을 위하고 모든 사람에게 所属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過去와 現在의 文明은 少数의 特権階級을 위한 것이고 그들만의 所有物이었다. 一般大衆을 無視하고, 그들로부터 疎外된 것이었다.

이에 反하여 새로운 文明은 平等과 平衡의 原理가 充分히 具顯되어야 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이 世上의 온갖 物質的 惠沢이 모든 사람에게 고루고루 分配되고, 文化的 財産이 萬人에게 享有될 수 있어야 한다. 少数의 特権層에 独占되지 않고, 少数의 <엘리트>에 의하여 中断되지 않고 地位, 門閥, 性別, 年令 및 其他 人為的인 区分 등을 超越하여 모든 사람에게 均露되어야 할 것이다.

요는 새로운 文明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데 이바지 하는 人間本位의 文明이어야 할 것이다.

3. 現代文明과 人間倫理

가. 現代文明과 人間의 心性

1) 現代文明과 人間倫理는 現代社会의 文明的 悪이 人間들에게 心理的 悪으로 나타나는데서부터 다루어져야 한다.

거미줄의 거미처럼 現代文明의 한 복판에서 人間을 잡아먹기 위해 도사리고 있는 社会的 心理的 悪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倦怠와 怨恨이다. 그래서 倦怠의 感情과 怨恨의 感情은 現代의 모든 것을 덮고 있는 憂鬱한 잿빛의 灰色的인 文明感覚이다.

倦怠란 것은 가득 채워진 意識이 도리어 不満足스럽게 느껴지는 空虚感이며, 怨恨이란 채워지지 않은 意識이 느끼는 不満의 엉킨 덩어리다.

2) 倦怠 — 倦怠感이란 이룩하여야 할 所望조차도 이미 가지지 않는 霊魂의 不満足이다. 倦怠를 느끼는 意識은 平安하지 못한 休息의 모습과 같다.

어떻게 보면 倦怠란 너무 幸福하다는 그런 不幸과 같은 病이다. 倦怠感은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自己自身이 새로이 自己에게 무거운 짐으로 되어버린 그런 意識이다. 그러므로 倦怠는 해야할 일거리가 없이 存在하는 意識의 存在方式이다. 바꾸어 말하면 「倦怠의 存在方式은 生成의 活力을 잃고 그냥 그대로 있는 非 生成的인 存在方式」이다.

世界는 価値로서 充滿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価値가 사라지니 世界도 또한 蒸発하고, 그래서 우리는 倦怠를 느낀다. 이리하여 倦怠를 잊기 위하여 現代人들은 冒険을 즐긴다. 그런데 그러한 冒険은 이미 하나의 娯楽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3) 怨恨 — 倦怠感이 「너무 幸福하다」는 그런 不幸의 逆説的인 病이라면 怨恨의 感情은 「너무 不幸하다」는 그런 不幸에서 直説的인 病인 것이다.

<니이체>와 <막스·세러>가 分析하였듯이 怨恨의 밑바닥에는 『이것은 단지……에 不過하고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일종의 冷笑的인 排斥感情이 깃들어 있다. 그리하여 怨恨은 不幸한 不満足의 激情인데 그러한 激情은 現実의 具体的인 価値를 穩全한 全体性에서 認識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한가지 事実만을 架空的으로까지 高揚시키고 拡大시키는데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怨恨의 心理는 感謝와 讃歎을 느끼는 心理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怨恨의 意識은 이미 純真性을 잃고, 생각하는 主体와 생각되는 他人들과의 사이에 얽힌 殺人的 緊張関係와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미 앞에서 指摘한 倦怠와 怨恨은 現代文明의 거미줄이 엮어놓은 올가미인데 어째서 그런 社会的, 心理的 悪들이 歷史的으로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事実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 現代文明의 趨勢

1) 現代文明은 工業的 産業社会에로 줄달음치는데서 그 性格上의 特徵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技術的, 工業的 産業社会는 人類가 自身의 苦痛스러웠던 過去의 貧困을 벗어나서 豊饒한 삶을 営為하려는 人間闘争의 産物이다. 그런 点에서 産業社会를 거부하고 牧歌的인 田園社会를 동경함은 人類歷史의 矛盾을 現実的으로 追求하지 않는 空想에 不過하다. 그러므로 技術과 産業의 進歩는 분명히 자랑스런 人間文化이다.

그러나 技術社会가 産業化, 工業化로 나타나면서 人間에게 어떤 毒素를 뿌렸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技術文化가 주는 病理現象은 그 文化에 沈潜하는 人間들에게 人間이 스스로 自己自身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尊敬心을 破壞시키고 드디어 人間이 자기 스스로를 찌꺼기와 같은 存在로서 느끼게 하고, 人間存在의 絶望을 부채질 하는 結果를 낳았다. 技術自体의 便利함 때문에 人間의 모든 生活을 便利하고 수월하게 꾸며가도록 誘惑하며 더욱이 돈에 매달릴수록 수월하게 되는듯 하고 못사는 人間은 천덕꾸러기 처럼 悲慘하여 진다.

技術에 의하여 살기가 便해진 現代社会에서 人間의 快適한 物質生活을 확신시켜 주는 技術의 〈매커니즘〉에 依存하면 할 수록 그만큼

그는 精神的 삶의 깊고 그윽한 意識을 잃게 된다.

精神的 삶의 領域은 人生을 수월하게 산다는 것과 一致되지는 않는다. 한 人生의 中心과 무게가 技術과 돈에 의하여 쉽게 살자고 할 때 그의 人生은 살기 위하여 依存해야 하는 돈과 物質속에 점점 더 빨려 들어간다.

3) 技術文明은 人間을 利롭게도 하였지만 또한 人間을 새로이 物質의 힘에 圧倒되는 奴隷로 転落시키고 있다. 現代人의 모든 生活에 侵透된 技術은 마음의 기쁨 대신에 満足을 그리고 靈魂의 形而上学的 不安 대신에 不満을 키워 놓았다. 그리하여 한편에선 満足한 生活者의 倦怠와 다른 한편에선 不満足한 生活者의 怨恨이 다같이 空虛한 靈魂의 친부한 人生을 살도록 衝動질 한다.

現代文明은 安楽과 安逸이 곧 幸福으로 생각되는 곳에서 自己 人生이 쉽지 않는 사람들은 靈魂의 한숨과 호느낌 보다는 욕지거리와 冷笑를 人生의 안팎에 무질서 하게 뿌린다. 이리하여 内面世界의 悲劇的 体験은 低俗하고 상스러운 雜談으로 변한다. 冷蔵庫와 自家用의 所有는 便利함의 次元을 넘어서 이미 他人들에 대하여 挑発的이며, 同時에 으쓱대는 뽐냄에서 精神的으로 가장 空虛한 뜻을 지니게 된다.

4) 現代文明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生의 概念이다. 왜냐하면 技術의 進歩는 決코 技術的일 수 없는 人間의 内面의 精神的 価値들을 技術의 成功속에 埋没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技術의 進歩는 눈에 보이는 人間生活의 向上을 가져와 살기 편하게 하듯이 人生의 外面的인 昇進, 他人의 삶의 安逸과 安楽 등은 人間사이에 消化不良症을 蔓延시킨다.

그래서 某氏가 나보다 빠른 昇進을 했거나 称讚을 받았다는 事実을 나는 결코 消化시킬 수 없다。 他人인 限에서 他人은 내가 수월하게 사는 것을 妨害하는 存在가 된다。 이런 消化不良症을 단순히 嫉妬의 心理学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個人의 安楽을 조용히 맛 보지 못하게 하는 내 이웃의 빈곤마저도 나는 消化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現代와 같이 技術이 漸次로 瞑想의 모든 可能性을 追放하는 그런 文明의 風土에서 哲学은 科学과 技術의 侍女로 変質되거나 또는 東洋文化의 叡智로 復帰하거나 하는 岐路에 놓이게 된다。

5) 또 이러한 技術主義 못지 않게 現代의 商業宣伝은 모든 人間의 主体的 精神을 完全히 빼앗아 人間의 意識들을 쉽게 다루는 機能을 갖게 된다。 그 代表的인 例로 여기에 便乘한 인기 있는 TV 탈렌트, 歌手, 映画俳優들은 現代社会가 참으로 살기 좋다고 気高萬丈한다。 그들에게 芸術의 哲学 보다는 華麗한 外形生活이 生活의 指標이고, 将来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걸음의 役割을 하는 教師나 郵遞夫 같은 職業人들은 그들의 눈에는 하잘것 없이 보인다。 人間尊厳性의 破滅이 여기 있다。 그뿐만 아니라 技術과 産業의 進歩는 편안한 生活을 더욱 助長하면서 貪慾과 부러움을 더욱 부채질하여 富와 돈이면 무엇이나 다 된다는 黄金萬能의 思想은 자꾸만 膨脹해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비싼 物件은 現代人의 偶像이다。 그와 함께 으리으리한 物件을 所有하기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한때 人間들이 참으로 貴重하게 여겼던 精神的 現存과 希望의 神秘는 살아져 가고 있다。

이와 同時에 豪奢함에 執着하는 人生觀이 現実的으로 失敗할 때에는 靈魂의 絶望과 敗北主義가 人間을 죽음에로 몰아 넣게 된다.

다。現代文明의 特徵

1) 現代의 文明의 特徵은 生産, 物質的 手段이 漸次로 삶의 精神的 手段을 代身하여 감에 따라 두드러진다. 物質的 手段이라함은 經済的인 富의 生産을 위한 것으로서 만질 수 있고 所有할 수가 있어서 人間에게 滿足과 快樂을 준다. 그와 반대로 精神的인 手段은 〈그리스도〉가 가르친 「마음의 가난」이며 老子의 〈虛而不屈〉의 정신이요, 〈仁, 義, 礼, 智〉의 정신이다.

한나라가 物質的인 成長을 위하여 발버둥치면 그만큼 그 나라는 〈마음의 가난〉과 〈仁, 義, 礼, 智〉의 정신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

그러면 經済的인 富를 위한 人間의 生産業績과 効用性이 큰 価値로 登場될 때에 늙은이와 가난한 이들은 生産性과 効用性이 거의 없기 때문에 賤待받게 된다.

2) 現代文明의 物質的 手段이 精神的 手段 보다 훨씬 強調되고 있다는 事実에서 우리의 倫理問題가 挙論되어야 한다.

"〈세르방 슈라이베르〉"(仏)는 「經済는 20世紀의 정글이어서 어떻게 그 정글을 헤쳐 나가느냐 하는 것이 倫理問題의 核心이라」고 하였다.

産業革命이 人間을 自然과의 宿命的 桎梏으로부터 人間을 解放시켰다고 할 때 우리의 課題는 産業革命의 結果로 惹起된 「經済의 정글」

에서 人間을 解放시키는 革命이다.

왜냐하면 産業社会가 人間들에게 自発的으로 均衡과 清雅함과 幸福을 約束하기 보다는 새로운 形態의 挫折과 緊張과 攻撃性向과 暴力을 뿜어내는 文化의 도가니를 形成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오늘날 全世界的으로 資本과 돈의 힘은 個人의 精神力까지도 包含하는 모든 것을 侵犯하고 있다. 特히 TV의 普遍化는 家庭生活의 단조로운 劃一性을 経済의 힘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다.

「돈」의 経済力은 人間으로 하여금 自己의 霊魂을 팔도록하여 「돈」의 〈이미지〉대로 人間性을 生産하고 있다. 生産者는 消費者가 必要한데 그 消費者는 自己의 物件이 되도록 料理한다. 「돈」의 戒銘은 오직 利益의 法則이 있을 뿐 이런 利益의 法則은 現代社会에서 社会的, 人間的 不平 等의 源泉이 된다.

4) 現代社会에 있어서 어린이들은 成人社会가 엮어 놓은 商業的인 感覚에 일찍부터 함빡 젖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生의 価値를 가르쳐 주는 것은 家庭도 아니요, 学校도 아니다. 工業的, 商業的 社会는 어린이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끈질기게 執拗하게 影響力이 미친다.

生活水準의 向上은 人間의 物質的인 欲求를 그런대로 満足시키기 보다 그것은 人間에게 神経質과 挫折感을 増大시키는 要因이 된다. 왜냐하면 産業社会에 있어서 消費性向의 上昇은 収入의 増大 보다도 더 빨리 進歩하기 때문에 옛날 보다 훨씬 쉽고 수월해 지지만 人間은 心理的 貧困의 悪循環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人間의 生活이 經濟的으로 富裕해 짐에 따라 生活을 더욱 편안하게 하기 위한 必需品은 더욱 더 生産되고 거기에 맞추어 人間의 欲求는 점점 銳敏하여 간다. 經濟의 힘은 客觀的인 富裕와 主觀的인 貧困을 동시에 안겨 준다.

5) 技術의 進步와 經濟成長의 業績을 이룩하는 過程에서 낳은 害惡을 어쩔 수 없는 運命으로 가볍게 보아 넘기려는 見解도 없지 않으나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技術과 經濟의 成長이 害惡과의 鬪爭에서 얻은 자랑이라면 우리 世代는 또다시 새로이 생겨난 害惡들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經濟的인 것이 非經濟的인 것을 支配하는 現代에서 人間의 形成과 그 文化 그리고 生活方式 및 運命까지도 生産的 要因으로 取扱 된다는 데에 現代人의 文明의 危險이 있다.

그런 危險은 아주 自然스럽게 人間을 生産財로서 탈바꿈 시켜서 한 人間이 收益性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優劣과 価値를 매겨 버린다. 이것이 經濟成長 第一主義에로의 文明이 낳은 現代史의 裏面이다.

6) 새 時代의 〈휴매니즘〉은 根本的으로 이러한 思潮의 흐름을 改革하는데 目的을 두어야 한다.

〈갈브레이스〉가 分析한 『經營者들은 거침없이 自己들의 会社가 전날밤에 備蓄된 自己의 모든 精力을 吸收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래서 經營以外의 모든 것 家庭이나 政治나 社会正義나 심지어 술과 〈섹스〉까지 이 모든 것은 生의 二次的 意味 밖에 없다』는 이 말속에서 技術과 經濟의 進步法則이 犧牲시킨 많은 사람들의 倦怠의 心理가 人

間의 마음을 좀 먹는다.

現代의 經濟的 暴力 앞에서는 人間으로 하여금 利益의 法則에 依하지 않고 人間의 尊厳性에 의해서 人間이 評価되는 그런 文化를 創造하는 것이 經濟成長으로 因한 豊饒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重要한(또는 그 以上으로 重要한) 課題이다.

새 時代의 〈휴머니즘〉은 經済的 豊饒의 社会가 弱肉強食의 社会와 같은 概念이라는 伝統的인 宿命을 拒否한다. 『富는 곧 権力이고 権力은 곧 富』라는 汎世界的인 文明의 現実은 「언제나 政治는 人間価値의 顚覆과 否定以外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主張하는 〈세르방, 슈라이베르〉의 말을 反駁 할 수 없게 한다.

7) 이래서 資本主義的인 自由企業의 競争力을 積極的으로 勧奨하면서 한편으로는 資本家의 相続 遺産制度를 排撃해야 한다.

遺産制度의 撤廃는 先天的인 強者와 弱者의 不平 等을 없앨 뿐 아니라 社会的 生産道具의 促進과 企業의 自由競争에 있어서 権力의 合法性이 財産의 概念과 混同되지 않도록 保障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要컨대 信頼할 수 있고 밝은 社会를 위한 技術的, 経済的 成長은 人間 사이의 道徳的, 倫理的 進歩없이는 決코 期待할 수 없다는 事実을 立証하고 있다.

〈베르크송〉이 予言한 「모든 技術的인 進歩는 일종의 内面的 精神의 征服에 의하여 늘 더 増大해 가는 自己制禦의 精神力에 의하여 均衡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과 一致된다.

라. 現代文明과 人間倫理

1) 現代文明은 世俗的 文明이 宗教的 文明을 漸漸 밀어내고 있다는 事実이다.

世俗化에의 文化는 옛날에 貴重하게 여겼던 価値들을 뒤엎어 놓으면서 새로운 問題를 惹起시키고 있다. 그것을 한마디로 要約하면 「섬김」의 概念의 堕落이며 또 人間関係의 非人格化 現象이다.

오늘날 우리는 商業主義의 文化에 물들면서 〈서어비스〉란 概念을 널리 使用하기에 이르렀다. 3次産業인 〈서어비스〉業은 産業文明権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서어비스〉 概念의 堕落이라 함은 商業主義的 用役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서어비스〉를 単語의 순수한 뜻에서 「섬김」으로 여길 때에 섬기는 意識과 그 現象은 어떤 高尚한 名誉意識 같은 것을 前提로 한다. 왜냐하면 그런 「섬김」은 어떤 価値에 대한 愛着이 없이는 成立할 수 없기 때문이다.

自己의 祖国을 섬기고 家庭을 섬김을 단순히 抽象的인 観念이나 制度的인 機構를 섬김이 아니라 祖国 속에서 同胞들과 家庭속에서 家族들과 같은 人間에 대한 깊은 愛着을 뜻한다.

그러므로 섬기는 意識은 人間의 人間的인 組職에 対抗하여 목숨을 걸고 闘争함은 무슨 機能이나 무슨 쓰임새 때문에서가 아니라 人間의 人間的임이 짓밟히는 現実에서 人間의 名誉回復을 위한 価値의 発顕에서이다.

그러므로 「섬김」의 뜻은 모든 機能主義의 모든 利用度의 基準을

넘어 있다.

<마르셀>이 말한 『老人과 어린이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바로 그 理由 때문에 老人과 어린이는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잘 吟味해 볼 必要가 있다.

적어도 「섬김」의 精神이 살기 위해서는 人間에게 쓸모를 따지기 이전에 人間의 存在至上의 畏敬心을 가져야만 可能하다. 그러한 畏敬心은 무릇 人類의 모든 宗教들이 가르쳐 온 真理이다. 그런 点에서 「섬김」의 現象은 存在와의 関係에서 밝혀진다. 그러한 関係가 바로 兄弟愛이다.

兄弟愛는 抽象的으로 論議되는 그런 空虛한 人類愛의 博愛精神과는 <뉴앙스>의 差異가 있다.

技術中心, 経済中心, 世俗的으로 回転하는 現代文明이 人生에 真理의 참뜻을 変質시킬 많은 危脅을 안고 있다. 真理는 真理로서 「섬김」을 받아야 한다.

2) 그렇다면 機能的이며 科学的 真理가 어떻게 単語의 깊은 뜻에서 「섬김」을 받겠으며, 経済的 成長과 豊饒의 真理가 어떻게 存在論的으로 「섬김」을 받게 되겠는가? 老人과 어린이 그리고 힘 없고 버림받은 者들을 우리가 섬김은 그들이 우리의 섬김이 必要하고, 또 우리는 그들을 섬김으로써 거짓말과 強者가 結合되어 수월하게 人間萬事를 無批判的으로 自己化시키는 그런 世界에 潔白의 文化, 潔白의 정치를 開化시킨다.

仏의 思想家 <쟝께레빗츠>는 모든 倫理의 窮極的인 生命을 潔白의

意図에 두고 있다.

그러한 潔白의 価値는 人生에서 어떤 悪의 誘惑도 받지 않았던 그런 楽園的인 뜻이 아니다. 人間은 어린아이로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말은 어린이와 같이 意識의 清楚함과 마음의 구김살 없는 魅力的인 自発性을 다시금 回復하자는 뜻이다.

해야 하는 当為와 있음의 現象과는 本質的으로 一致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倫理的으로 삶은 自然的인 흐름에 쉽사리 同意하지 않는다. 이러한 非同意의 삶이 歷史에서 언제나 具体的이고 実際的인 道徳性의 첫째 條件이 되었던 것이다.

〈장·봐알〉이나 〈키엘케고르〉에서 사랑은 무엇보다도 根本的인 拒否를 仮定한다. 그러한 拒否가 없이는 모든 同意가 過誤를 낳기 때문이다.

「죽음」이 人生의 終末인지 아니면 感覚만의 消滅인지 아무도 責任있게 알 수 없는 그런 処地에서 人間의 人生論的 価値는 쉽게 絶望하거나, 쉽게 同意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만들고 또 創造해 보는 데서 빛날 것이다.

4. 現代社会와 実践倫理의 基礎

가. 伝統社会에 있어서의 孝思想

1) 儒教的 文化圈에 属하는 우리나라의 実践倫理의 大本은 「三綱五倫」으로 集約 되는데 그중에서도 「孝」를 百行之源이라고 하였다. 孝의 思想은 「身体髪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라는 말로 잘 表現되어 있으며 또 「孝悌也者, 其為仁之 本与」라 하여 孝는 「仁」의 根本이라고 하였다.

孝経에 의하면 孝를 三種으로 나누어 父母를 物質的으로 奉養하여 生活의 安定을 期하는 것을 初步的인 孝道로 삼아 이를 「能養」이라 하였고, 둘째는 言行을 바르게 하여 父母에게 辱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弗辱」이라 하였고 끝으로 「立身行道, 揚名於 後世, 以顯父母」라 하여 이를 大孝로 삼았다.

이와 같이 孝道를 여러 모양으로 表現되고 있으나 그 帰着点은 父母요, 家門이다. 学問을 잘해서 이름을 날리고 德行으로써 世人의 칭송을 받으며 政治를 잘 함으로써 国家에 奉仕하는 것도 結局 따지고 보면 父母의 名声을 날리고 家門의 名誉를 높이는데 그 最終目標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孝의 観念이 西洋 社会에도 없는 바 아니었지만 이것이 東洋에서와 같이 最高의 美德으로 重要視 되지 않았고 도리어 自由, 平等, 社会正義와 같은 社会的인 面에 注意를 기울였다고 보겠다.

그런데 儒教가 이 처럼 孝를 重要視한 까닭은 첫째 三綱五倫과 같은 美德을 強調하는 儒教가 発生한 当時의 時代相의 混乱을 바로 잡아야 겠다는데의 発想을 들 수 있고 둘째는 그 当時의 社会制度가 어디까지나 権威主義的이었고 民権이 발달하지 못했던 時代였던 만큼 君主가 絶対統治権을 行使하는 安全辨으로서의 社会秩序를 樹立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끝으로 血縁関係에 따른 愛情観念은 普遍的인 것인데도 唯独 孝思想이 가장 上位的 美德으로 重視된데는 当時 사람들의 宇宙観, 自然観에 基因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새 生命을 만드는 것을 父母라고 할 때 子女에게 있어서는 무엇 보다도 고마운

存在는 父母일 수 밖에 없다. 그처럼 고마운 存在라면 子女로서는 父母에 대해 感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報恩의 情을 表示하는 具体的인 表現이 곧 「孝」라고 하겠다.

2) 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孝」와 더불어 「忠」의 思想이 또한 重要視되지 않은 바 아니지만 一般庶民에게 있어서는 国家가 戰爭과 같은 非常時를 除外하고는 「忠」은 하나의 抽象的 觀念에 지나지 못하였고 日常生活에 반영될 계제가 없었으므로 伝統社会에 있어서 이 思想을 그들의 生活에 반영시킬 機会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先人들의 生活은 家族이라는 小社会를 中心으로 하여 営為 되었고 그들의 忠誠은 이 集団에 集中的으로 바쳐졌고, 이 忠誠은 孝라는 思想을 形式的으로 昇華 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孝行이 社会的으로 強要되거나 国家的으로도 奨励되어 出世와 통하는 길이 될 때 自然히 이것은 形式主義化 되어 虛礼虛飾으로 転落되는 傾向이 나타나는 동시에 孝行을 誇示하기 위하여 虛張声勢를 일삼는 등 副作用이 없을 수 없었다.

이 問題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려진 事実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本欄에서는 省略해도 無理는 없을 것이다.

나. 現代社会에 있어서의 忠孝思想

現代와 伝統的 価値 基準사이에 無理없는 調和를 찾을 수 있는가? (両者의 共存 両立 可能性)

① 우리의 伝統的 家族制度가 崩壞되고 核家族化하고 있다. 近来에 強力히 推進하고 있는 近代化 作業과 더불어 安定은 있으나

「将来」의 約束을 찾을 수 없는 젊은이 들은 先祖들이 닦아 놓은 생활의 터전인 土着社会로부터 移動, 分離되어 都市로 都市로 막연하나마 希望을 품고 삶의 고장을 찾아 物理的 解放 뿐만 아니라 精神的으로도 解放을 体験하면서 安全과 生計를 어버이에게 依存하지 않는 独立된 「船長」으로서의 구실을 하기에 이르렀다.

② 民主主義 思想으로 集約되는 現代思潮는 伝統的인 孝倫理에 큰 変化를 가져왔다. 民主主義의 核心思想인 自由와 平等의 論理는 伝来의 孝思想을 弱化시키고 나아가 子女의 養育과 孝道에 대한 意義를 잃어버리게 될 可能性도 크다.

③ 現代社会의 두드러진 特徴의 하나인 人口의 都市集中 現象은 아파트맨트에로의 移住를 核家族化의 刺戟으로 젊은 世代의 父母로부터의 精神的 離脱로 어버이에 대한 愛着心의 弱化를 招来하였다.

④ 이러한 모든 現代社会의 特徴 — 物質主義의 普遍化와 이에 따른 個人主義의 膨脹 民主主義에 동반하는 自由, 平等 思想의 普及, 近代化 作業과 더불어 激化된 젊은 世代의 都市集中과 核家族化에 따른 大家族制度의 崩壊, 그에 随伴되는 父母依存時期의 短縮과 이에 따르는 어버이에 대한 愛着心의 衰退 등을 감안할 때, 과연 伝統社会를 支配하다시피한 孝思想이 젊은 世代에게 呼訴力을 가지고 받아지기를 期待할 수 있을까?

⑤ 孝思想을 새로운 美徳으로 摸索하기 위한 몇가지 前提

ㄱ. 現代人類文明思潮에 符合하는 것 即 平等思想에 그 基礎를 둔 것이 되어야 한다. (어버이에 대하여 子息이 지켜야 할 道理와

父母의 慈愛도 어떠한 行為規範으로 規定되어야 한다)

ㄴ. 現代가 要請하는 倫理는 合理的인것 即 伝統的인 社会의 行動規範이 多分히 独善的이고 外部로부터 強要되는 것이 아니고 国民스스로가 그 妥当性을 인정하고 그에 共鳴合意함으로써 自発的으로 行動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孝에 대치될 수 있는 行為規範으로 忠(loyalty)을 設定할 때

a. 적게는 家族에게 크게는 国家나 民族에게 대한 忠誠이 될 수 있다.

b. 忠의 思想이 社会, 国家, 民族에도 拡大될 때 우리는 鄕土를 사랑하는 사람,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c. 精神的 価値로서 社会正義, 自由와 平等, 真理, 正直, 善과 美 友情, 友愛 등과 같은 人間的 価値에 대한 忠誠으로 나타난다.

※ 儒学의 孝思想은 孝를 人間性의 自然的 発露로 보고, 이 思想이 家族으로부터 나라로 拡大되고, 이것은 다시 世界와 宇宙로 発展하여 마침내 「四海皆兄弟」主義로 発展된다고 한다.

※ 지난날 한 家族은 그 뿌리를 같이 하는 나무와 같다고 보고 뿌리를 달리하는 다른 나무들과는 無関한 것으로 보았다. 비록 뿌리를 달리 하더라도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룬다는 事実을 모르고 家族이라는 小集団의 울타리 속에서 헤메였던 것이다.

d. 忠誠은 個人的인 価値로부터 시작하여 全人類的인 価値에까지 拡大될 수 있다.

忠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価値에 이를 바치느냐 하는 것이다.

忠誠의 価値는 그 対象如何에 달린것으로서 그 対象의 価値가 높고 클수록 優越한 것이다.

孝思想은 血緣과 密接한 関係를 맺고 있어 小義的인 忠誠이므로 보다 高次元的인 큰 忠誠, 높은 忠誠에로 誘導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孝思想이 血緣에 의한 生得的인 感情이 아니라 愛情生活의 土壤 위에 성장한 后天的인 것으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e. 父母에 대한 忠誠을 키우는 愛情은 盲目的이 아닌 教育的인 것이 되어 子女의 自主性, 独立性을 기르고 労動의 神聖性과 金銭의 価値에 대한 올바른 認識을 심어 주는 効果的인 真正한 의미의 사랑을 表現해야 한다.

이러한 愛情으로 어버이와 子女의 関係가 맺어질 때 참된 忠誠이 育成된다. 이것이 一方的으로 強要된 倫理가 아니라 双務的인 愛情関係에서 成長하는 忠誠의 倫理인 동시에 이것이 拡大되어 次元 높은 価値에 대하여 一体感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크고 높은 忠誠을 그에 바치게 되는 길을 열어 주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f. 우리는 孝思想의 衰退를 悲観할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도 없고 逆行시킬 수도 없는 現代社会의 潮流에 부합하는 새 倫理를 摸索하여 그들에게 呼訴力을 가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새로운 行為規範을 提示해야 하겠다.

第 2 章

우리의 価値観의 現実과 価値体系確立의 問題

第2章 우리의 価値観의 現実과 価値体系確立의 問題

1. 問題의提起

1) 国家社会의 興亡盛衰를 左右하는 여러가지 要因中 그 国民의 精神的 姿勢나 価値観보다 더욱 決定的인 힘을 가진것은 없다. 8.15以來 30余年 동안의 発展過程에 대해서는 보는 이에 따라 그 評価에 差異가 있을 수 있으나

①우리는 国家의 均衡잡힌 発展과 繁榮, 그리고 国民個個人의 自我 実現과 幸福을 위한 여러 機会와 条件을 充分히 살리지 못했고,

②経済社会등 여러分野에 걸쳐 부딪치고 있는 難問題를 克服하기에 適合한 精神的 姿勢가 確立되지 못하고 있다는 事実만은 否認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가지 事実에 대한 反省은 새로운 道義 내지 価値観의 確立을 主張하게 하였거니와 道義를 昂揚하고 바람직한 精神的 姿勢를 바로 세우는 일이 우리国民 전체의 根本的 共同課題로서 抬頭되고 있다.

흔히 낡고 混乱된 価値観에 잘못이 있다고 하며 우리의 現実이 社会 不条理에 가득차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묵은 価値観의 어떤점이 잘 못돼 있고, 무엇이 不条理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2) 오늘날 우리의 価値体系를 念慮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問題의

核心을 우리나라의 歷史的 時点에 関聯시켜, 「近代化」라는 課題를 앞에 놓고 숨가쁘게 躍動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伝統的 倫理는 이미 무너지고, 西欧社会로 부터 받아 들인 近代的 価値観은 우리의 実情에 適合하지 않는 까닭에 社会生活이 確固한 規範을 잃고 混乱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問題의 核心을 이와 같이 東西의 異質的인 두 価値体系의 부딪침에 두는 사람들은 問題解決의 方法도 東洋의 伝統倫理의 長点과 西洋의 近代的 価値観의 強点을 調和시키고, 綜合하는 方向으로 새로운 길을 摸索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問題의 核心이 東西洋의 두 異質的 価値観의 衝突의 結果만이 아니라는 데에 深刻한 問題가 도사리고 있다.
即 東洋의 伝統과 西洋의 文物이 부딪치는 一部 地域에만 局限된 特殊現象이 아니라 東西洋을 莫論하고 널리 発見되는 一般的 現象이라는 것이다.

◦우리国民이 当面한 価値観의 問題도 저 現代史的 価値観의 問題와 密接하게 連結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東洋的 伝統으로의 復古도 아니며, 西欧의 先進文明에의 模倣으로써도 解決될 수 없는 어려운 問題라고 하겠다.

우리의 問題는 過去와 現在를 分析하는 正確한 觀察과 未來를 志向하는 創意的 構想의 土台 위에서 그 解決策이 摸索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当面한 課題는 狭義의 文化的 考察뿐 아니라, 政治·経済, 社会, 教育, 宗教, 芸術등 여러分野의 問題까지 살피는

넓은 視野와 人間心理의 深層에 대한 깊은 洞察까지 포함하는 여러 分野의 專門家들이 共同으로 研究할 課題이다. 本稿는 다만 共同研究를 위한 資料로서의 試論에 不過하다.

2. 現代 韓国人의 価値觀과 우리의 現実의 特徵

가. 伝統社会의 特徵

우리의 伝統社会는 옛 聖賢의 말씀과 같이 「人之務本」이라 하여 사람은 누구나 自己의 根本을 깨달아 오늘의 「나」를 있게 하고 또 來日의 보람찬 삶을 누리게 하는데 대한 感謝하는 마음은 仁·義·礼·智를 바탕으로 中庸과 調和의 原理에 의해 敬愛와 信義로써 父母에 孝道하고 나라에 忠誠하며 兄弟友愛하고 崇祖睦族하며 日常生活의 行動 基準이 되는 礼節을 崇尙하였다.

그리고 修己治人하는 明德을 自己完成의 기틀로 하였으며 禁欲主義的인 思考方式으로 治産治家의 道理를 삼았으며 家門과 伝統을 尊重하는 家族主義的 生活様式은 相扶相助의 美風良俗으로 発展하였던 것이다.

◦韓国의 伝統的 道德觀念이 儒教思想의 支配的인 영향을 크게 받고 形成된 것도 事実이지만 仏教의 영향도 있고 우리나라 固有의 価値觀도 加味됨으로써 韓国的인 道德의 伝統이 세워졌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歷史가 빠른<템포>로 움직일 경우에 반드시 일어나는 現象의 하나인 伝統的인 道德觀念과 새로운 時代的 要求사이에 생기는 不調和에 대한 解決의 실마리를 찾아 어떻게 調和시

키느냐 하는 것이 이일의 関鍵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나. 価値意識의 分類

사람들의 思考方式과 行動 様式은 사람마다 다르고, 千差萬別이나 時代와 民族의 特色을 나타내는 優勢한 傾向을 찾아 概念하고자 한다.

◦現代 韓国人에게 흔한 思考方式과 行動様式의 代表的인 것을 살펴볼때, 우리는 그것들 사이에 異質的인 것들의 混合과 그로 말미암은 不調和를 흔히 発見한다.

우리들의 価値観의 어떤것은 東洋的 伝統의 강한 影響 아래 発達된 반면에 다른 어떤것은 西欧的 近代思潮의 강한 影響을 받고 形成된 것이며, 그들 影響의 두源泉이 本來 根本的 異質性을 内包했던 까닭에 不調和를 나타내게 마련이다.

이 点을 考慮하여 論者는 우리의 価値観의 一般的인 特色을 東洋的 伝統의 것과, 西欧的 近代 思潮에 의한 것으로 便宜上 이를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다. 東洋的, 伝統的 価値観과 現実

東洋的 伝統의 遺産을 強하게 반영한 우리의 価値観 中에서 중요한 것으로 ①「家族主義的」인 경향, ②「感情優勢」의 경향 ③「外観과形式」을 尊重하는 경향이 優勢함을 指摘할 수 있다.

ㄱ. 家族主義的 傾向 - 東洋에 있어서의 家族主義는 오랜 伝統을 가졌다. 그것은 家族을 生活의 基本単位로 삼은 오랜 社会制度를 背景으로 삼고 形成 되었으며, 血縁関係와 家族倫理를 人倫의 根本으로 崇尙한 儒教思想의 後援으로 成長하였다.

우리의 歷史가 証明하듯이 国家와 社会의 모습에 실망한 国民들의 関心의 中心을 家族生活에 集中시켜 固定시킨 것은 自然스러운 趨勢였다고 理解되며, 나라의 主權을 빼앗긴 日帝時代에도 一部人士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대로 持続되었다.

◦「家族主義」란 어떤 理論体系가 아니라 家族에 대한 愛着이나 関心이 다른 意慾과 動機를 圧倒하고 行動의 主導權을 잡는 生活態度를 가리키는 말이다. 家族主義的 生活態度는 家族의 繁榮 또는 家門의 榮譽를 무엇 보다도 所重히 여긴다. 따라서 그것은 한편으로는 個人主義와 対立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民族主義 내지 国家主義와 対照를 이룬다

◦오늘의 韓国은 한편으로는 西欧的 個人主義의 물결이 휩쓸어 들어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国家의 利益과 民族의 団結이 強調되는 狀況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家族主義도 점차 그 勢力이 衰退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그 殘影은 상당히 깊게 濃厚한 色彩를 維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家族主義的 生活態度는 家族이나 親族의 問題에 関聯해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母校, 같은故鄕, 같은 団体, 같은職場에 屬하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가운데 排他的 性格을 띠게 되는 傾向도 家族主義의 한 変形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家族主義的 思考方式 내지 行動様式의 다른 表現으로 温情主義的 態度 및 權威主義와 縦的 人間関係를 指摘할 수 있다.

家族이란 本來 便宜나 利益을 위해서 計劃的으로 形成된 集団이 아니라 性과 血緣의 紐帶를 통하여 自然的으로 発生한 共同体이기 때

문에 그 內部의 秩序 維持를 위해서 重要한 것은 法이나 規則 보다는 溫情과 사랑이다. 家族內部에 어떤 軋轢이 생겼을 경우에는 經偉를 밝혀 是非曲直을 따지는것 보다도 感化와 讓步로써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正道로서 환영을 받았다.

◦우리 나라의 家族主義는 封建的 家族制度를 바탕으로 삼고 形成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関係를 上下의 縱的 関係로서 理解하는 傾向을 수반했으며, 웃사람 들에게는 權威主義的 態度가 몸에 베게 되었다.

近來 民主主義의 물결을 타고 사람과 사람의 関係를 平等한 橫的 関係로서 理解하는 觀念이 普及되는 한편, 家父長的, 權威主義도 점차 弱化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여러 人間関係에 있어서 前近代的인 그 殘滓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特色들은 각각 肯定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面도 간직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卽 家族主義의 경향은 사람이 한個人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他人과 깊게 融和되는 紐帶団合과 協同의 原理를 그안에 품고 있다. 萬若 이 紐帶의 原理가 좁은 集団에 愛着하는 排他性을 克服하고 보다 넓은 範圍의 融和를 促進하는 協同과 団合의 原理로서 昇華될 수 있다면 그것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欲求를 調和롭게 滿足시킨다』는 우리들의 理想 卽 民主主義 理想을 具顯하고 民族文化 発展의 底力으로 涵養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ㄴ. 感情優勢의 傾向 — 우리들의 行動과 思考에 있어서 理智 보다도 感情이 優勢하게 作用하는 傾向이다. 感情이 뜨겁고 情緖가 豊富한 것은 우리 韓国人의 한가지 特色이며, 이 特色은 여러分野

에서 여러가지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韓国民族은 人情이 두터운 民族으로 알려져 왔고, 이 人情美는 現代에 있어서도 人間関係를 통하여 発揮되고 있다. 우리民族文化 中 特히 芸術에 있어서 卓越하다고 하는것은 우리民族性 안에 깃들어 있는 뜨거운 感情과 関聯이 깊은 것이다고 하겠다.

氣質속에 타고난 뜨거운 情熱은 슬기로운 道德의 源泉일뿐 아니라 洗練된 芸術的 情緒의 바탕이 된다.

그러나 優勢한 感情이 언제나 좋은 方向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勿論 아니다. 合理的이며 冷靜한 態度가 要求되는 境遇에 있어서 까지 感情을 앞세워 興奮하는 事例가 많으며 客觀的 基準을 따르는 公正無私한 処事가 要請되는 마당에서 情実에 끌려 公과私를 混同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리고 『感情의優勢』의 特色에 있어 本來 家族主義의 바탕을 이룬것이 「自然의情」이 었으며, 단순히 理智와 法만으로 살 수 없는것이 社会的 動物로서의 人間이라면 優勢한 感情의 昇華된 形態로서의 人情은 物質文明속에 自己를 喪失해 가는 人間이 그本然의 모습을 回復하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豊富한 感情은 人間이 自我를 実現하는 중요한 길의 하나인 芸術의 領域에 있어서도 貴重한 資源의 구실을 한다.

ㄷ. 外観과 形式의 尊重 ——外観 또는 形式을 内容과 実質에 앞서서 重要視하는 氣風이 있다. 옛날부터 儒教에서는 礼節을 崇尙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礼節을 道義의 根本으로 尊重하는

伝統이 形成되었다. 그리고 礼節이란 本來 行動의 形式과 節次를 規定하는 規範인 까닭에 이 礼節을 崇尙하는 伝統은 生活 전반에 걸쳐서 外觀과 形式을 尊重하는 氣風으로 発展하였다.

◦이氣風은 오늘날에도 顯著하게 남아 있을뿐 아니라 東洋의 伝統과는 거리가 먼 새로운 事態의 영향을 받아 不健全한 風潮에도 連結되는 一面을 보이기 시작했다. 卽 光復以後의 우리나라가 健実한 発展을 이루지 못하고 内実의 虛弱을 外形의 虛飾으로써 감추고자 하는 心理와, 宣伝을 일삼고 展示効果만을 노리는 商品文化的 風潮의 刺戟을 받음으로써 『内容의 充実을 圖謀하기 위한 方案으로서의 形式의 尊重』이라는 儒教本來의 精神을 忘却하고 外形 그 自体를 위해서 外形을 尊重하는 弊端을 惹起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外觀과 形式을 앞세우는 傾向은 衣·食·住어느生活의 側面에서도 発見할 수 있다. 衣生活에 있어서 속옷보다도 겉옷에 더 置重하는가 하면 食卓을 차릴 경우에는 内容과 実質보다도 겉모양과 가지수에 더욱 神経을 쓴다. 그리고 建物에 있어서도 室内의 施設이나 実用的 考慮보다도 大門, 담장, 겉벽 따위의 外部에 드러나는 部分에 力点을 두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리고 外形의 尊重은 우리에게 「体面에 관계된다」느니 「体面이 문제라」하는 따위의 말을 자주 듣게되고, 또 婚談에서 「門閥이 어떻고」「어느 大学을 나왔고」「그 祖上이 어떠하다」하는 말이며, 「学閥」때문에 大学을 보낼 수 없는 家庭形便이면서도 보내야 하고 技術系 高等学校나 専門学校卒業 만으로도 充分한 業務従事者도 大学을 나와야 한다는 風潮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外觀과 形式의 尊重」도 芸術의 領域을 위해서 過去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또 앞으로도 우리民族 文化의 發展을 위한 力量으로서 크게 作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貴重한 것은 外觀과 形式을 尊重히 여기는 傾向이 슬기로운 中庸과 調和의 原理가 結合할때 그것이 內容과 実質을 向上시키고 充実케 하는 그릇으로서의 구실을 한다는 事実이다.

ㄹ. 要約 —— 이상에서 考案한 세가지 傾向, 即 家族主義와 感情의 優勢 및 外形의 崇尙이라는 것은 相互間에 密接한 內面的 関係를 가지고 있다.

家族主義와 外形의 崇尙이 儒敎的 倫理思想을 共通의 背景으로 삼고 있으며, 思考와 行動에 있어서 感情이 優勢한 영향을 미치는 傾向도 다른 두가지 傾向과 內面的으로 連結되고 있음을 発見한다.

家族主義는 本來 自然의 情에 이끌리는 生活態度이며, 따라서 溫情을 隨伴하는 동시에 経緯를 밝혀 따지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는 곧 情에 呼訴하여 생각하고 行動하는 傾向에로 連結되는 것이니 家族主義와 感情의 優勢와의 密接한 內面的 関係를 示唆하는 것이다.

그리고 外形의 尊重은 內容과 実利에 置重하는 態度와 맞서는 傾向이다. 또 內容의 充実과 実利를 거두는 捷徑이 알뜰하게 経濟的이며 緻密하게 合理的인 生活態度임을 생각할때 外形을 尊重하는 態度와 理智보다도 感情을 앞세우는 態度 사이에도 密接한 內面的 連結이 있음이 明白하다.

◦西洋 사람들이 論理的 推理에 强한데 比하여, 東洋 사람들은

直觀的 判斷에 있어서 强点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直觀的 思考와 関聯해서도 이 세가지 特色사이에 內面的 関係가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直觀的 思考란 論理的 推理에 比하여 感性的 機能에 依存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感情的 思考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며 經緯를 따지고, 是非를 가리기 보다는 溫情과 感化를 崇尙하는 家族主義와도 일맥 상통한다. 그리고 直觀的 思考方式이 合理性과 実利를 追求하는 態度보다는 外觀과 形式을 崇尙하는 態度와 서로 통하기 쉽다는 것도 확실히 알수 있다.

라. 西欧的, 現代的 価値觀과 現実

오늘날 韓国人의 生活態度 特히 都市人의 生活態度에는 伝統的인 意味로 東洋的이라고 보기 어려운 몇가지 特色이 나타나 있다. 이 새로운 特色들은 現代의 物質文明을 背景으로 삼고 発達한것. 所謂「西欧的 価値風土에 根源을 둔 生活態度」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卽 ①経済的 価値優位의 경향 ②享楽主義的인 경향 ③個人主義 내지 利己主義的인 경향 등을 指摘할 수 있다.

ㄱ. 経済的 価値優位의 傾向과 金錢萬能의 風潮

◦우리 祖上들의 伝統的 価値觀에 의하면 金錢 또는 物質에 대한 貪欲은 勸奬할 만한 態度가 못된다. 衣食住에 필요한 範圍안에서 「분수」에 맞는 生計를 圖謀하는 것은 当然한 마음 가짐으로 肯定되었으나 金錢이나 財物 그自体를 本來的 価値로서 追求하는 것은 低俗한 生活態度로서 물리침을 받았으며 風流와 芸術, 学問과 道德등 精神的 卓越에 높은 価値를 認定해 온 것은 東洋的 伝統의 特色이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 事態는 크게 変化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아직도 観念과 言語의 世界에서는 金錢 내지 物質을 軽視하는 한편 精神的 価値의 優位를 強調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実際行動에 있어서 가장 支配的인 動機의 구실을 하는것은 金錢 또는 物質에 대한 欲望이다.

金錢과 財物에 대한 극도의 崇尙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떤 사람을 評価할때 그사람이 所有하는 財産 또는 経済的 活動의 能力이 큰 比重을 차지한다는 事実로서 富와 価値를 同一視하는 価値의 顚倒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金錢 내지 財物에 대한 崇尙을 반드시 西欧思潮의 영향 때문만은 아니다 西欧思潮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社会構造와 生活条件의 変化에 따라서 経済的 価値의 優位가 不可避했을 때는 影響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社会 構造와 生活条件이 오늘과 같은 様相으로 変化한 것 자체에도 西欧 文明의 影響이 컸다고 볼 수 있으며, 黃金萬能의 西欧的 風潮가<매스, 콤>을 통하여 流入되었다는 事実을 否認할 수 없다. 이렇게 볼때 金錢과 財物을 극도로 崇尙하게된 原因의 적지 않은 部門이 西欧的 価値意識의 導入에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金錢 또는 財物을 崇尙하는 傾向과 関聯하여 権力 또는 地位에 대한 欲望이 매우 強하다는 事実이 一般的 現象임에 오늘날 우리의 心理 가운데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権力의 자리를 貪내는 것은 決코 새로운 現象이 아니며 이것을 함부로 西欧文明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만은 없다. 벼슬자리에 오르는

것을 家門의 榮光이라고 찬양했으며, 官尊民卑의 思想이 오랜 伝統을 이루었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官權에 대한 関心이 높은 나라였다.
이러한 伝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黃金萬能의 風潮의 자극을 받고 더욱 强하게 된듯한 느낌조차 든다. 다시 말해서 現代 우리 社会에 있어서 金力과 権力의 函数関係가 매우 緊密하다는 事情 때문에 金錢萬能의 風潮가 權力에 대한 欲求를 더욱 刺戟한듯한 印象이 强하다.

◦西欧文明의 流入과 깊은 関聯을 가진 韓国人의 生活態度로서 가장 顯著한 이 金錢萬能의 氣風만을 따로 떼어서 볼 때, 반드시 나쁘게만 評価할 性質의 것만도 아니다.

人間이란 本來 物質에 依存해서 살도록 마련되어 있거니와 特히 密度높은 人口가 複雜한 社会生活을 營爲하는 現代에 있어서 経済에 대한 깊은 関心이 없이는 生存 그자체가 危殆을 받기 쉽다.

韓国의 살길도 経済的 後進性을 脫皮하는 方向으로 摸索되지 않을 수 없다는 事実을 考慮할때 金錢과 物質에 대한 깊은 関心은 마땅히 찬양되어야 할 一面도 가졌다고 보여진다.

◦金錢 및 物質은 本來 人間을 위한 手段으로서 所重한 것이었으나 그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欲求가 極度로 높아짐에 따라서 도리어 人間보다도 貴重한 것 같은 錯覺을 일으켜, 人間 위에서 人間을 支配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는 느낌이 있다.

富裕한 사람은 富裕한 자리를 維持하고 또 保全하려는 欲望으로 인하여 그들대로 돈과 財物의 奴隷가 된다. 그리고 돈의 奴隷가 된 사람

들의 大部分은 時間의 奴隷이기도 하다. 돈을 中心으로 삼는 競爭社会에 있어서 時間은 가장 重要한 条件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時間은 돈이다』라는 美国의 格言은 매우 象徵的이며 우리社会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 말은 生命의 한側面이라고 볼 수 있는 時間보다도 돈을 더욱 重要視하는 사람들의 意識構造와 現代文明의 深層에 자리잡은 어떤 不条理를 반영한 것으로 注目되는 것이다.

ㅇ그러나 経済的 価値優位의 傾向속에서 経済에 대한 計算性, 正確性, 그리고 合理性은 経済水準을 높이는데 크게 役割하고 있으며. 富를 形成하겠다는 欲求는 直接間接으로 有効需要를 자극하는 것이므로 限界性 있고 調和된 経済的 価値의 崇尙은 우리가 强力히 推進하고 있는 経済開発計劃推進에 効果的으로 그 底力을 活用할 수도 있을 것이다.

ㄴ. 享楽主義的인 傾向 —— 現在 우리나라 사람들의 生活態度에서 현저하게 눈에 뜨이는 것은 官能의 快楽을 追求하는 享楽主義的인 傾向이다.

먼 將來를 내다보고 遠大한 目的 達成을 위해서 참고 努力하는 길보다 당장의 순간을 즐길려는 刹那主義的 生活態度는 大小都市에 있어서 遊興業所가 늘어나며, 興味本位의 印刷物이 良書를 물리치고 出版界를 뒤흔들어 놓은 現象들은 이러한 傾向을 立証하는 代表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官能의 快楽을 좇는 享楽主義的인 傾向이 우리韓国 만의 現象은 아니며 또 現代에만 特有한 現象도 아니다. 그러나 〈섹스〉를 비롯한 肉体의 快楽을 공공연하게 찬미하고 이를 露骨的으로 追求하는 風潮가

오늘과 같은 지경에 이른것은 過去에 그리 흔하지 않았다는 点에서 우리의 注目을 끄는 것이다.

享楽的인 風潮와 金錢 내지 財物을 崇尙하는 氣風 사이에는 密接한 関係가 있을 것이다. 黃金萬能의 風潮가 物質主義 世界觀과 結合하기 쉬우며 物質主義의 世界觀이 快楽主義 人生觀에로 기울어지기 쉬운것은 心理学的 常識이다. 그러나 더욱 重要한 것은 金錢이 最高의 価値처럼 追求되는 資本主義 社会에 있어서 文化全体의 性格이 商品市場의 색채를 띠기 쉽다는 事実이다.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追求하는 社会에 있어서는 모든것이 商品化하는 傾向이 있다. 学問, 芸術, 教育, 運動, 技術 그리고 심지어는 宗教까지도 돈벌이의 手段으로 化한다. 그러나 이런한 것들보다 더욱 팔아 먹기에 適合한 것은 官能的 快楽이다.

学問이나 芸術과 같은 精神的 価値를 実現하는 데도 돈이 必要한 것은 事実이나 돈과 아울러 많은 時間과 努力을 바쳐야 한다. 이에 比하여 官能의 快楽은 돈만 주면 당장 손쉽게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자리에서 곧 感覺的 慰勞를 주는 까닭에 商品으로서의 魅力이 크다. 特히 都市化 文明에 시달려 疲勞한 사람들에게는 末梢神経的 快感에 대한 需要가 크다. 이리하여 金錢文化는 官能的 快楽의 값을 올리고 官能的 快楽에 대한 需要는 金錢에 대한 欲求를 더욱 刺戟하는 循環이 이루어진다.

金錢과 權力이나 官能의 快楽은 모두 競争性이 매우 강한 価値들이다. 一部가 그것을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의 몫은 그만치 줄어든다. 따라서

金錢과 權力 그리고 官能의 快樂을 열심히 追求하는 風土안에서는 그것들을 에워싸고 恒常熾烈한 競爭이 發生한다. 이 치열한 社会競爭은 우리들의 行動樣式에 利己主義의 傾向을 招來한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自己의 財産과 地位, 그리고 快樂을 위해서 最善을 다해야 하는 까닭에 남의 사정을 돌아볼 余裕가 없을뿐 아니라. 自己와 운명을 같이 할 共同体의 利益을 忘却하는 지경[redacted] 이르기도 한다.

◦官能의 快樂도 欲求가 充足될때 생기는 것이니 그 自体로 볼때는 좋은 것들의 範疇안에 들어 간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옛날에는 快樂을 罪惡視하고 禁慾을 올바른 삶의 길로서 勸奬하는 思想이 强했으나 人間도 일종의 動物임을 認定하는 現代科学의 見地에서 볼때, 禁慾 그 자체에 本來的 価値가 깃들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享樂이 지나칠 때 수반하는 弊端을 理由로 快樂을 警戒하는것이 옳을지 모르나 快樂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快樂을 肯定하는 態度는 地上의 生活을 肯定하는 健全한 態度로서 是認되어야 할 것이다.

◦現代의 快樂主義를 官能的인 것에로 기울어지게 한것은 첫째로 自然科学的 世界觀의 發達이며 둘째로는 戰爭이 그칠 사이없는 가운데 10年 뒤를 내다보기 어려울 程度로 어지러운 世態와 工業技術의 發達로 말미암아 官能的 快樂을 누리기에 알맞는 奢侈性 物品이 大量으로 生産되기에 이르렀다는 事実이다.

◦官能的 快樂에 대한 人間의 欲求는 거의 本能的인 까닭에 우리의 情熱을 자극하는 보다 魅惑的인 目標가 따로 보이지 않는限

우리는 快樂에로 끌리게 마련이 거니와 国家와 社会가 어지러워지고 10年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不安한 雰圍氣 같은 속에서 官能的 快樂을 물리치고 온갖 精誠과 情熱을 그 어떤곳에 集中시킬 수 있는 보다 建設的인 目標를 発見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여기에 快樂을 손쉽게 約束할 수 있는 娛樂施設과 奢侈性物品이 到処에 散在한다는 事情은 사람들의 마음의 行方을 一方的으로 決定하기에 充分하다.

◦『官能的 快樂을 追求하는 生活態度가 옳으냐, 그르냐?』하는 問題를 둘러싼 賛反의 論争은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具体的으로 말할 겨를은 없지만 官能的 快樂主義를 反対하는 理論中 몇 가지를 들어 再吟味할 必要를 示唆한다. (플라톤의 対活篇「고르기아스」(Gorgias))

①主知主義 내지 理性主義의 見地에서 善과 惡은 正反対의 概念으로서 같은 対象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나 快樂과 苦痛은 도리어 密接한 相互依存의 関係를 가지고 共存한다는 事実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健康과 疾病은 같은 때와 장소에 共存할 수 없으며, 하나가 사라진 다음에야 다른 하나가 나타날 수 있으나 물마심의 快樂과 목마름의 苦痛은 오히려 같이 붙어 다니는 것으로서 목마름의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瞬間에는 물마심의 快樂도 同時에 消滅된다. 이와 같이 善과 惡의 関係와 快樂과 苦痛의 関係사이에 根本的인 差異点이 있다는 事実은 善과 快樂, 또는 惡과 苦痛을 同一視할 수 없다는 証據로써 지적하고 있다.

官能의 快楽을 느낄 수 있는 能力에 있어서 智慧로운 사람이나, 無知한 사람 또는 勇敢한 사람이나 卑怯한 사람 사이에 별다른 差異가 없다는 事実도 지적하고 있다.

<플라톤>은 快楽이 모든 사람의 所望이며 그自体로 볼때 역시 바람직한 것임을 認定하고 있다. 그리고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强調하고 싶었던 것은 快楽을 얻는 것 만으로 참되게 값진 人生이 実現될 수 없다는 事実이다 그들은 값진 人生을 위해서는 「眞理의認識」 또는 「智慧」라고 하고 人間의 本質을 理性에서 発見하려 했으며 眞理의 瞑想을 떠나서 理性的인 人間生活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智慧와 認識, 모든 事物에 대한 知識과 記憶을 所有하고, 그러나 크든 작든 간에 아무런 快楽도 苦痛도 経驗하지 않는 人生』은 아무도 願하지 않을뿐 아니라 그러한 非人間的인 人生은 바람직 하지도 않으며 可能하지도 않다고 하겠다.

올바른 智慧의 뒷받침이 없는 快楽의 追求에는 苦痛이 따르게 마련이며, 眞理가 認識되고 瞑想되는 곳에는 반드시 깊은 精神的 快楽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快楽과 智慧는 모두 理想的인 人生을 위한 必須条件이 되고, 그중에서 더욱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人間의 本質인 理性의 発揮를 의미하는 後者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②「快楽主義의 逆理」라는 概念에서 ——「에피쿠로스」(EPikuros)는 快楽만이 善이며, 苦痛 이외에 따로 惡이 없다는 信念을 前提로 삼고 그의 倫理学을 시작하였는데 그는 우리가 萬若 肉体的 欲求의 充足을 통하여 官能的 快楽을 最大限으로 얻을것을 直接的인

目標로 삼고 行動한다면 도리어 큰 苦痛에 부딪치고 만다는 逆說的 結果에 이르게 되리라는 反省에 到達하였다.

官能的 快樂을 貪내는 우리의 欲望에는 限定이 없는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機関으로서의 人間의 肉体에는 힘의 限界가 있으며, 그것을 얻기에 必要한 手段으로서 使用할 수 있는 物質 또는 経濟力에도 限度가 있다.

따라서 有限한 体力과 経濟力을 가지고 無限한 欲望을 채우고자 한다면 畢竟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欲求不滿의 苦痛만이 추후의 決算으로서 남게 된다는 것이다.

官能的 快樂의 無節制한 追求가 도리어 欲求不滿의 苦痛을 招來한다는 反省에 도달한 Epikuros는 스스로 欲望을 制限함으로써 마음의 平穩을 얻으라고 가르쳤다. 不滿없이 平穩한 마음의 狀態는 비록 消極的이기는 하나 永続性있는 精神의 快樂이다. Epikuros 는 끝까지 快樂主義의 立場을 떠나지 않았으나 그가 人生의 目標로서 尊重한 快樂은 一時的인 官能의 快樂이 아니라 永続的인 精神의 그것이 었다.

見解의 差異는 있지만 功利主義者<밀>은 人間을 精神的 快樂에 보다 깊은 滿足을 느낄 수 있는 理性的 存在라고 보고 社会 또는 国家 전체의 快樂을 最大限으로 実現할 것을 理想으로 삼고있다.

③代償作用 (Compensation) 또는 昇華 (Sublimation) 라고 불리는 心理学的 現象에 근거를 둔 理論에서 —— 우리 社会에는 사람들의 動物的이요 原始的인 欲求가 直線的으로 充足되기를 拒否하는 여러가지 制約이 있다.

어느 社会나 性道德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性의 衝動 대로 行動할 것을 許諾하지 않는다. 미운 사람을 당장 때려눕히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여러가지 客觀的 事情이 그것을 許諾하지 않는다. 学校에서는 優等生이 되기를 願하고, 社会에 나서서는 大統領이나 百萬長者가 되기를 바라지만 나의 힘이 不足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自己가 가진 欲求를 그대로 充足시킬 수가 없을 경우에 마치 콧구멍을 막으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듯이 우리는 딴 길을 통해서 間接的으로 그欲求를 어느程度 充足시키는 行動을 무의식 중에 수행한다.

例를 들면 사랑의 情熱을 性行爲로 생각하는 대신 抒情의 詩로써 달래고, 미운사람을 때려 눕히는 대신 술병을 내던져 박살을 낸다. 이와 같이 欲求不滿을 다른 代理方法을 통하여 間接的으로 解消시키는 代償作用(心理的으로)이나 動物的인 欲求不滿을 高尙한 方法으로 昇華(学問, 芸術, 宗教, 스포츠등)시켜 解消시키기도 한다.

◦精神分析 学者들의 主張 대로 学問과 芸術등 文化領域에 많은 業績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生理的이며 原始的인 欲求를 어느 程度 抑制당해야 한다는 結論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動物的인 <에너지>를 文化創造의 길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官能的 快楽에 貪溺하여 모든 精力과 時間을 消耗한 사람이 芸術이나 学問같은 創造的 領域에 있어서 큰 業績을 남기기 어렵다는 것은 常識的인 觀察로써도 알 수 있는 日常的 事実이다.

◦特히 韓国이 処해 있는 現実을 念頭에 두고 이를 생각해 볼 때의 問題는 生物学的 欲望을 充足시키는 方法이 適合하지 못하거나,

生物学的 欲望 그 自体보다도 欲望充足에 따르는 快楽을 지나치게 追求할 경우에 여러가지 원치않는 副作用이 생기는데 있다.

①官能的 快楽追求의 競争性 및 利己性은 우리의 社会的 競争을 한없이 더 熾烈하게 만들어 사람들의 思考方式과 行動様式을 利己的 方向으로 몰고 가기쉽다. 社会的 競争이 심하면 심할 수 록 個人들은 自己自身을 保護하기에 더욱 神経을 써야 하며 때로는 남을 攻撃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利己心과 競争心이 때로는 社会発展을 위한 促進剤의 구실을 하기도 하나 現在 우리社会의 경우는 利己心과 競争心이 지나쳐서 도리어 社会生活을 하는데 弊端이 큰것으로 観察된다. 特히 우리는 하나의 共同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団結과 協助가 크게 要望되고 있으며 利己的 競争에는 求心作用보다도 遠心作用이 強한 까닭에 지나친 競争心의 発動이 가져올 弊端은 매우 深刻하다.

実際로 지금 우리 周辺에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 一般的인 관찰이다. 남의사정 또는 国家社会 전체를 돌 보지 않는 氣風이 一般化했을때의 弊端이 얼마나 크며 어떤 것인가는 説明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②官能的 快楽主義와 拝金思想이 密接한 関係를 가졌기 때문에 現代의 黄金萬能의 風潮와 더불어 돈을 価値의 으뜸처럼 崇尚하는 傾向을 促進하기 쉽다.

現代人의 生活을 위해서 돈이 重要하고 貴重히 여기는 생각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非現実的인 思考일 뿐 아니라 偽善的이기도 하다. 그러나

돈의 価値가 人格의 価値보다도 더욱 높이 評価되고 人間이 돈의 奴隷가 되는 지경에 이른다면 아무도 그것을 健全한 傾向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現代의 西欧文化가 危機에 処해 있다고 念慮하는 碩学들의 共通된 주장은 西欧文化가 物質文明에 있어서만 지나친 발달을 이룩하고 그 精神的 側面은 극도로 衰弱하다는 点이다.

黄金萬能의 風潮가 이 物質의 威勢 및 精神의 萎縮을 더욱 助長하리라는 것은 疑心의 余地가 없다.

③官能的 享楽이 国民文化 전반에 미치는 影響으로서 周知하는 바와 같이 享楽에 陶酔할때 그로 인해서 消耗되는 精力과 時間 그리고 財物은 莫大하다. 따라서 享楽과 建設내지 創造가 両立하기 어렵기 때문에 個人의 경우나 한나라의 経済建設 또는 文化創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国民 한사람 한사람의 素質이 練磨되고 発揮되지 않는限 한国家의 建設的 事業이 제대로 成就될 理 없다.

우리가 人生에 있어서 하고 싶은일 또는 해야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에게는 時間과 精力과 能力에 限度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고 싶은 일 또는 해야할 일의 優先 順位를 定해야하며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可及的 많은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至今 祖国의 統一과 近代化라는 共同目標를 위해서 努力해야 하는 時際에 있어서 個人의 官能的 享楽에 높은 優先순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官能的 快楽 追求의 風潮가 저 共同目標

의 実現을 妨害할 정도로 强해지는 것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두가지 目標의 達成이 両立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다 높은 価値의 実現을 위해서 보다 낮은 価値는 희생되는 것이 原則이다. 다만 어느편이 높은 価値냐 하는 것은 까다롭고 어려운 論議의 余地가 많은 문제이다.

ㄷ. 利己主義的인 傾向 —— ①金錢과 權力 그리고 官能의 快楽을 열심히 追求하는 風土 안에서의 치열한 競争은 우리들의 行動様式에 利己主義라는 또 하나의 傾向을 招來했다.

우리나라의 利己主義는 近代 西欧의 個人主義 내지 自由主義가 들어온 것과 密接한 関係를 가지고 発達하였다. 西欧의 個人主義가 本來 뜻했던 理念은 모든 個人들의 權益과 自由를 다 같이 尊重한다는 것이 었으므로 남의 權益은 眼中에 두지 않는다는 뜻의 利己主義와는 原則的으로 區別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西欧의 個人主義가 自由放任의 経濟制度와 結合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利己主義의 色彩를 더해 갔으며 그 두 概念의 理論的 區別이 現実的으로는 模糊해진 느낌이 있다.

②다만 西欧의 경우에 있어서는 合理的 思考方式의 伝統이 强하고 啓蒙된 大衆의 自己權益에 대한 主張이 活潑했으므로 强者들의 利己主義的 横暴를 어느程度 牽制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合理的 思考의 伝統이 欠如하고 大衆의 權利意識이 弱했을 뿐만 아니라 8.15 以後의 社会的 混乱 6.25

動乱까지 겪쳤던 까닭에 「自由主義」 또는 「個人主義」의 이름으로 流入된 西欧의 思潮가 節制없는 利己主義에로 轉落하는 傾向을 막지 못한 結果가 되었다.

오늘날 金錢과 官能의 快楽을 追求하고 남의 權益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態度를 공공연 하게 옳다고 말하지는 않으며 아마 마음속에서도 그것이 옳다고 確信하지는 않을 것이다.

③조용히 反省하는 瞬間에는 아직도 人格이나 義理나 学識같은 것이 돈이나 享楽보다 貴重하다고 생각하는 傾向이 있으며 말로서 討論에 參加하거나 남의 行動을 評価할 경우에는 利己的 行動을 非難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自己가 実際로 어떤行動을 취할 단계에 이르러서는 自己 스스로의 생각이나 말과는 달리 돈이나 享楽을 위해서 人格 또는 義理를 손상하기도 하고 내 利益을 위해서 남의 權益을 侵犯하기도 한다. 卽 「觀念으로서의 価値觀」은 연전히 伝統的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데 「行動의 原動力으로서의 価値觀」은 딴길로 달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觀念과 行動의 遊離는 어느 時代 어느 社会에도 多少는 있게 마련이나 그 程度가 너무 甚하다는 事実에 오늘날 우리 価値体系의 問題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또한가지 近來 導入된 西欧的 価値觀 가운데서 合理主義的 思考方式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높은 評価를 받고 있다는 事実이다. 西欧의 近代化가 이 合理主義的 思考와 行動에 힘 입은 바 크다는 事実에 注目하고 우리도 그점을 본 받아야 한다고 主張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合理主義에 대한 肯定 내지 讃揚은 「觀念으로서의 価値觀」 卽 当爲意識의 선에서 머물으며 実踐的으로 行動하는 習性에 까지 이른 사람은 매우 드물다.

金錢과 享楽 그리고 利己主義를 대하는 態度의 경우와는 반대로 觀念은 오히려 西欧的인 것에로 달리는데 行動은 東洋的 伝統에 머무르는 傾向도 볼 수 있다.

◦그러나 利己主義도 그것이 自我를 保全하고자 하는 本性의 発露이며 삶의 意慾의 活潑한 表現이라는 点에서 마땅히 肯定的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一面을 가졌다고 본다. 조그만 自我에 愛着하는 나머지 보다 큰 自我를 忘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에 틀림이 없으나 人間이 自己를 아끼고 사랑하는 意慾 그자체는 健康하고 自然스러운 現象으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問題点

◦위에서 우리의 価値観 또는 生活態度의 一般的特色을 概観했는데 特히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問題点 몇가지를 検討하면서 새로운 価値体系 確立의 方向摸索에 示唆하고저 한다.

ㄱ. 過熱한 競争—앞에서도 言及한바 있지만 우리社会의 顕著한 特色의 하나는 過熱된 競争을 겪고 있다는 事実이다. 이러한 競争에 휘말리게 되는 根本原因은 우리들 모두가 열심히 追求하는 目標들이 강한 競争性을 가졌다는 点이다. 우리는 이미 金銭과 権力 또는 享楽따위의것들이 行動의 世界에서 強力한 追求의 対象이 되고 있음은 指摘한바있다. 그것들은 競争性이 매우 強한 価値인 까닭에 그것들이 마치 人生의 全部인양 或은 貴重한 目標처럼 追求되는 社会에 있어서 熾烈한 競争은 不可避한 現象이라고 하겠다.

正正堂堂한善意의 競争은 경쟁하는 双方을 모두 한층 높은 경지에로 이끄는 좋은 結果를 가져 오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경쟁의 大部分은 特恵的利権이나 消費市場의 争奪戦같은것으로서 本来 公明正大한 경쟁이 어려운 性質의 것이며, 公明正大한 경쟁을 위한 倫理的 伝統도 우리의 社会는 미약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社会競争은 卑劣한 利己主義의 風土위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그 結果는 대체로 破壊的이다.

道義心의 바탕이 虚弱한 風土위에서 展開되는 競争은 勝利를 위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弊端을 同伴하기 쉬우며, 競争이 過熱하면 自己가 세운 삶의 窮極目的까지도 忘却하고 눈 앞의 勝利에만

汲汲하게 되는 傾向이 있다.

그리고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고 눈앞의 勝利에만 汲汲한 경쟁이 경쟁자 双方을 모두 破滅에로 이끄는 事例를 우리는 우리 周辺에서 얼마든지 본다.

지나치게 熾烈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双方이 모두 被害를 보고마는 現象이 一般化할때 그社会나 國家는 没落의 길을 밟게될 것이며, 社会나 國家가 没落할때는 그안에 사는 個人들도 따라서 不幸하게 되는 悪循環이 経験될 것이다.

◦共同体의 繁栄과 他人의 處地를 眼中에 두지 않는 利己主義의 지나친 競争의 結果로서 招来되는 現象가운데서 가장 深刻한 問題를 内包하는것은 社会的 不均衡이라는 現象이다.

金力 또는 権力등 競争的価値를 둘러싸고 앞을 다투는 사람들의 実力에는 甚한 個人差가 있다. 힘의 差異가 많은 사람들이 手段을 가리지 않고 苛酷한 경쟁을 할 경우 그 勝敗는 대체로 一方的이며, 그 結果는 심한 社会的 不均衡이라는 現象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現在 社会的 不均衡이 深刻한 問題를 提起시키고 있음은 周知의 事実이다.

即 都市와 農村의 隔差가 지나치게 크며, 富者와 貧者의 生活이 너무나 懸隔하다. 그 例로 現代와 前 近代가 나란히 이웃해 있으며, 雄壮한 邸宅과 板子집이 멀지 않은 거리를 두고 마주 보고서 있다.

ㅇ 人生에는 本来 競争과 勝敗가 따르고 地位에도 높고 낮음이 생기는것이 不可避한 現象인것 처럼 어느정도의 社会的 不均衡을 容認하지 않을 수 없다는 事実이 지나친 利己主義와 不合理한 社会構造에 基因하는 極端的인 不均衡을 正当化하는 根拠가 될 수는 없다. 社会正義의 理念이 指示하는 바에 따라서 可能한 限度까지 平準化를 지향하면서 社会的 不均衡을 是正하도록 努力하는것은 우리들 民主市民의 共通된 義務가 아닐 수 없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過熱된 競争은 目的과 手段을 混同하고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는 権謀術数로 不正과 腐敗는 더욱 助長되어 이 社会를 不信風潮의 蔓延과 深化를 가져오는 結果를 낳게 한다고 하겠다.

ㄴ. 構造的 隔差와 不均衡—経済開発計劃에 따른 急速한 経済成長은 大都市나 新興工業地域에서 急速한 富의 蓄積을 가져 왔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러한 蓄積過程에서 発生한 成果의 配分에서 疎外되므로써 地域間 및 階層間에 所得 隔差를 拡大深化시켜 왔다.

또한 都市 高所得層의 浪費的 生活様式은 그들의 蓄積의 速度와 比例하여 急速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그들은 先進諸國의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華麗하다. 高級邸宅, 最新型自家用, 冷蔵庫, 洗濯器등 갖가지 文明의 利器는 勿論, 高級호텔, 高級料亭利用등이 日常化되고 있다.

이러한 一部層에 의한 西欧的, 浪費的 生活様式의 導入은 現実的으

로 그것을 生活의 一部로 받아드릴수 없는 条件下에 있는 都市 사람들에게 그 模倣을 強要하고, <매스, 콤>을 통해 農村에까지 伝播되고 있다. 이 경우 高所得層의 生活方式의 模倣은 低所得者에게도 浪費를 助長하고 그것이 그들의 物質的条件에 의하여 制約을 받을때 거기서 発生하는것은 不満이며 異質意識과 疎外感으로 階層化할 뿐만 아니라, 特히 感受性이 強한 青少年에게 極度의 社会的 不満을 助長하여 마침내 그들을 堕落시키기에 이른다. 여기에 西欧에서 들여온 <재즈>나 無節制하고 開放的인 性의 追求 飮酒와 喫煙은 青少年의 不満의 脫出口를 提供하고, 그들의 堕落은 既存의 価値体系와 生活倫理와 正面으로 対立하게 된다.

◦工業化를 中心으로 하는 経済開発過程에서 資本 蓄積에 成功한 企業家와 그들의 蓄積을 推進하는데에 필연적으로 增加하는 中間管理者, 高級技術者들에 있어서는 経済的向上, 그로 인한 西欧的生活과 그들의 社会的地位의 向上을 保障받았지만 國民의 大多数를 차지하는 一般勤労者와 農民, 그리고 失業者들의 社会福祉는 거의 改善을 보지못한 채 相対的으로 뒤떨어지고 不満과 疎外를 拡大시킨것이 우리나라의 発展過程에서 나타난 社会現象으로서의 하나의 뚜렷한 特徵이며, 커다란 問題로 抬頭되고 있다.

◦均衡된 社会発展이 바람직한것은 비단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며, 特権을 누리는 사람이나 高所得層의 文化的生活을 駆歌하는 사람들의 人道主義를 위해서도 勿論아니다. 오로지 実利만을 따진다 하더라도 現在 裕福한 사람들은 이 社会的 不均衡을 더욱 警戒

해야 할 理由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均衡을 잃은 社会는 不安定한 社会이며, 安定을 잃은 社会는 큰 変動의 可能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急激한 社会変動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것은 現在 支配的 位置를 차지한 사람들일 것이다.

現存하는 社会秩序의 持続에 의하여 보다 利益을 얻는것은 上流層 사람들이며, 밑바닥에 깔린 사람들은 오히려 急激한 社会変動을 契機로 자기네의 處地에도 変動이 오기를 期待하는 心理가 크다는 事実에서 더욱 均衡된 社会発展을 이룩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ㄷ. 非人間化 - 財物과 官能의 快楽따위의 競争性이 強한 価値를 삶의 目的인양 열심히 追求하는 価値体系의 보다 根本的인 弊端은 그것이 「人間의 自己喪失」 또는 「人間의 非人間化」 라는 現代的悲劇에로 우리를 引導한다는 事実이다.

◦人間에게 가장 重要한 것은 人間이며, 따라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人間이기를 希求한다. 人間이 언제까지나 人間이기를 持続한다함은 人間으로서의 本質을 끝까지 지킨다는 뜻이며, 이것은 우리들의 가장 切実한 要請이다.

◦그러면 『人間의 本質이 무엇이냐?』는 解答은 사람마다 일치하지 않을 것이나 人間이 自由의 主体라는 事実을 그의 基本的 特色가운데 重要한 것이라고 보는 見解에 反対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自由의 主体』라 함은 自己自身의 意思 또는 스스로 세운 目標에

따라서 行動하는 自主的 存在라는 뜻이니 그것은 남을 위한 단순한 手段으로서 利用될 수 없는 것이며, 그 自体속에 目的으로서의 価値를 지닌 存在이다.

그러나 不幸히도 오늘의 人間은 自由의 主体로서의 그 本然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때로는 단순히 무엇을 위한 手段으로 転落하기도 하고, 때로는 外的条件에 얽매여 被動的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方向感覚을 잃는다.

人間을 한갓 奴隷처럼 묶어 놓는 羈絆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나 그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우선 金銭 및 物質文明을 들수 있다. 돈이나 物質은 本来 人間을 위한 手段으로서 所重한 것이었으나, 그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欲求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서 도리어 人間보다도 貴重한것 같은 錯覚을 일으켜 人間위에서 人間을 支配하려 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선 生存에 필요한 財貨를 얻기 위해 自己自身의 모습을 喪失한다. 商品을 生産하는 機械의 信号에 따라서 노동하는 가운데 어느덧 機械의 한 部分과 같은 구실(機能)을 하는데 익숙할 뿐 자기가 만들고 있는 部品이 社会에 어떻게 貢献하는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또한 労動의 過程 안에서 보람을 찾기도 어려우며 오로지 賃金을 얻기 위한 手段으로서 労動에 従事할 뿐이다. 더구나 労動에 従事하는 時間이 잠자는 時間을 除外한 하루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까닭에 労動以外의 다른 時間가운데서 삶의 보람을 찾는다는것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結局 「산다는 것은 苦痛」이오, 「虚送歳月」

이고,「疎外意識」을 안은체 서글픈 生存으로 나날을 보내는 형편이 되고 만다.

그리고 人生을 위해서 財物을 갖는다는 本来의 뜻을 벗어나서 도리어 財物을 위해서 人生을 사는 것에 가까운 지경에 까지 이른다. 畢竟 돈이 사람의 上典으로서 君臨하는 것이며, 自由의 主体로서의 人間의 모습은 빛을 잃는 셈이다.

◦요지음 사람들이 흔히 時間에 쫓기어 奔走하다고들 말한다. 時間에 몰린다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証拠라고 볼 수 있다는 뜻에서 좋은 現象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閑暇로움이 不幸을 意味하듯이 지나치게 時間에 끌리는 것도 不幸한 일이다. 스스로 作成한 計劃에 따라 스스로 세운 目標를 向해 차근차근 일해 가느라고 바쁜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밖으로 부터 強要한 事情으로 말미암아 전혀 選択의 餘地도 없이 奔走한것은 매우 不幸하다.

都大体 누구를 위해서 奔走한것인지 自己도 모를 어떤 外部的 強要에 의해서 時間의 奴隷가 될때 우리는 벌써 自身의 主人公이 아니다. 複雜한 社会의 한 成員으로서 살아야하는 우리는 各者의 職分을 다하기 위하여 寢食을 잃고 부지런히 活動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은것도 事実이다.

그러나 때때로 自己의 時間을 가지고 自己의 삶을 吟味해 볼 수 있는 마음의 餘裕를 가질 필요도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우리의 生活은(特히 大都市의 生活) 自己의 時間이 점점 줄어드는 동시에 저 마음의 餘裕도 거의 없어져 가는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趨勢는 人間이 自己를 喪失해 가는 徵兆의 대표적인 것으로 理解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는것으로 『流行』을 들 수 있다. 流行이란 어느時代 어느社会에도 있는 自然스러운 社会現象일뿐 아니라 그것이 健全할 경우에는 文化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流行은 단순한 自然現象이기 보다도 黃金万能이란 風土위에서 돈 벌이에 熱中하는 사람들의 人為的 造作에 의하여 促進된다는 点에 그 病理的特色이 있다.

製造業者나 商人들이 商品을 많이 팔기 위해서 自然스러운 風俗의 변천을 앞질러 가며 새로운 流行을 만들어낸다. 새로움을 無理하게 꾸며 만드는 까닭에 不合理하고 病的인 것이 宣伝될 경우도 적지 않으나 〈매스, 콤〉의 魔力에 의하여 그 畸型性은 隱蔽되고 도리어 魅力의 焦点으로 化한다.

그리고 所属感과 紐帶感이 微弱한 現代의 人間関係 안에서 孤独을 無意識속에 깊이 간직해야 하는 群衆들은 『消費는 美德』이라는 口号에 眩惑되어 가며 저 畸型的인 流行을 비싼 값으로 사 들이는 것이다.

流行의 心理는 外形的인 것뿐 아니라 우리들의 意識 내지 思想의 領域에 까지 侵透한다. 輿論의 이름을 빌은 流行이 우리의 独自的思惟를 妨害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流行의 바람을 따라 이리 저리 나부낀다는것은 各者의 個性을 잃고 남의것을 모방하는 風潮가 強하다는것을 意味한다. 그리고 模倣의 風潮가 強하다는것은 사람들이 各者의 主体性을 喪失하여 그

本然의 모습으로 부터 멀어져 감을 意味한다. 한 民族 또는 國家에 要求되듯이 個人에게도 主体性은 필요한 것이며 그것을 잃을때 人間으로서의 모습도 희미해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自己의 個性과 信念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남이가는 길로 휩쓸려 버리는 理由의 하나는 自己에 대한 他人의 意見 또는 評価에 매우 敏感하게 反応하는 性格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유달리 神経을 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기를 熱望하며 그들에게 좋은 印象을 줄려고애를 쓴다. 따라서 恒常 남의 눈치를 살피게 되며, 눈치를 살피기에 餘念이 없다 보면 自己 스스로의 個性과 信念을 죽이고 남들이 가는길로 適当히 追従하는 結果에 이르기 쉽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바라는것은 社会的 存在로서의 人間의 共通된 傾向이며 現代 우리 社会에서는 모든것이 돈벌이를 위한 商品으로 化하는 趨勢를 보이는 가운데 人間도 하나의 商品으로서 自處하는 現象을 보이고 있다.

自身의 成功을 渴望하는것은 本人의 実力 그 자체 보다도 그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意見과 評価이며 『우리가 우리 自身을 얼마나 要領있게 팔아먹느냐에 따라서……우리의 包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

나에 따라서 우리의 成功이 左右되는』 것이 商品文化가 支配하는 現代社会의 実情이다.

自己의 価値를 内在하는 能力과 人品에 의하여 測定하지 않고 남의 嗜好 즉 交換価値에 의하여 測定하는 性格을 E,Fromm은 『장사꾼의 性格』이라고 부르고 現代人의 大部分이 이 性格의 所有者라고 観察하고 있다.

이와 같이 現代人은 平生을 一貫해야할 目標를 喪失한채 非人間化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것이다.

人間이 自己를 回復하기 위해서는 人間的 価値体系의 頂上을 다시 차지 해야 한다. 金銭이나 権力따위의 手段的 価値가 人間을 抑圧하는 価値의 顚倒에 남은 価値観의 根本的 欠陥이 있다는 우리의 観察이 妥当性을 갖는 것이라면 새로운 価値体系의 優先되는 첫 課題는 뒤바뀐 価値序列을 그 本来의 位置에로 되돌려 놓는 일이 아닐 수 없다.

ㄹ. 価値観의 混乱 — 우리의 価値體系를 構成하는 要素들 하나 하나를 떼어서 생각할때 그것들이 크게 나무랄데가 없을 경우에도 그것들이 結合되어 이루어진 全體로서의 価値體系는 많은 欠陷을 가질 수도 있다. 훌륭한 価値體系를 위하여 가장 重要한 것은 그 體系를 構成하는 여러 要素들이 하나의 妥当性있는 根本原理의 一貫性있는 媒介를 통하여 調和로운 関係를 이루고 結合되는 일이다.

하나의 根本原理를 一貫된 土台로 삼고, 調和롭게 結合된 価値體系는 자연히 『論理의 一貫性』을 갖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価値體系는 混乱에 빠지게 마련인 것이다.

現在 우리들의 価値體系는 論理의 一貫性의 要請을 満足시키지 못하고 混乱에 빠졌다고 흔히 말한다. 『価値體系가 顚倒되어 混乱에 빠졌다』함은 앞에서 言及한바 있는 「観念과 行動의 遊離—言行의 不一致」를 指摘함은 勿論, 그밖에도 여러가지 現象들이 混沌의 状態에 있음을 念頭에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現象들은 모두 論理의 一貫性을 欠如하고 있는 性質의 것이다.

◦우리의 「価値體系의 混乱」을 말할때 첫째로 들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価値観에 個人差가 많다는 事実이다. 価値観이 사람에 따라서 若干의 差異点을 갖는것은 自然스럽고 좋은 現象이라 하겠으나 大局的 見地에서 볼때 같은 文化的 背景을 가지고 같은 社会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価値観은 가장 基本的인 側面에 있어서 共通性을 갖는것이 普通이며 또 그것이 그社会의 安定과 平

和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러 実践的 問題에 대한 見解와 信念에 個人差가 너무나 懸隔한 것으로 観察된다.

特히 젊은 世代와 既成世代 사이에 生活感情의 差異는 巨視的 協同과 団結에 支障을 가져올 程度로 顕著하며 또 大都市와 農漁村의 生活態度의 差異도 많은 問題点을 안고 있다.

◦価値體系의 混乱은 全體로서의 社会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個人의 마음 内部에도 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사람도 때에 따라서 그가 主張하는바 또는 行動하는 바에 変動이 심하고, 言行이 一致하지 않는다. 어느때는 急進的인 言行을 하는 사람이 다른때는 매우 保守的인 傾向을 보이기도 하고, 平常時에 늘 合理主義를 力説하던 사람이 때로는 매우 不合理한 処事를 옹호하기도 한다. 要컨대 어제와 오늘, 또는 이곳과 저곳 사이에 論理의 一貫性을 잃고, 주책없이 갈팡질팡하는 態度이다.

•論理의 一貫性의 欠如나 価値體系의 混乱은 混乱한 社会現実의 반영인 동시에 社会現実의 混乱을 助長하는 要因이기도 하다.

우리들의 価値體系가 社会的調和와 論理의 一貫性을 欠如하고 있음이 甚하다는 事実은 우리들의 価値體系로 하여금 우리가 当面하고 있는 共同의 問題들을 解決하는 原理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当面한 共同의 課題 그 자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結果도 된다는 것이다.

第 3 章

새로운 価値 体系確立의 方向

第3章 새로운 価値体系 確立의 方向

1. 새로운 価値体系의 基調

이제까지의 評価的 考察이 否定的인 側面에 力点을 두게 된 것은 새로운 것의 摸索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묵고 낡은 것의 잘못된 点을 把握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至今까지의 考察을 土台로 삼고 장차 바람직한 価値体系를 確立하기 위한 基本的인 力向을 示唆해 보고자 한다.

◦새로운 価値體系는 올바른 倫理의 原則에 부합되는 価値體系가 곧 바람직한 価値體系이며 올바른 倫理觀, 滿足스러운 社会生活을 위한 智慧에 該当한다. 그리고 人間으로서 人間다운 生活을 하기에 充分히 適合하지 못하다는 事実에 우리들의 묵은 価値體系의 가장 根本的인 欠陷이 있었다. 그러므로 앞날에 세워져야 할 새로운 価値體系는 무엇보다도 人間의 回復을 가져 오는 것이어야 한다.

ㄱ. 人間回復

1)앞에서(非人間化)人間価値의 回復을 위해 提言한바 있다. 人間的 価値를 価値體系의 頂上에 올려놓는다 함은 우리의 観念 또는 言語의 世界에 있어서 『人間的 価値가 가장 貴重하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데 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行動과 実践의 世界에 있어서 人間的 価値를 最高의 主된 価値로서 追求하게 될때 비로소 그 本来의 位置를 回復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人間的価値』라는 말은 "人間의 精神 및 肉體에 깃들 수 있는 모든 価値를 통틀어 가리킨다. 即 個人이 가진 道德的 人品, 学識, 芸術, 技能등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사람의 生命, 健康, 肉體의 아름다움 그리고 〈스포츠〉技能 같은것도 『人間的価値』의 範疇속에 包含되는 것이며 社会正義와 平和, 그리고 찬란한 民族文化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社会的業績도 人間的 価値의 중요한 것으로서 헤아려야 할 것이다.

2)여기에서 人間 또는 人間的価値를 価値體系의 頂上에 위치해야 할 것으로 評価하는 根拠를 概括的으로 밝혀 둘수 밖에 없다.

①人間이 貴重한 存在라는 判断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하나로서 우선 人間이 人間自身을 経験的 世界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存在라고 느끼는 것은 人間心理의 必然이라는 事実을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自我保存의 本能的欲求와 自我意識을 아울러 가진 모든 個人은 自己自身 즉 『나』라는 存在를 정말 貴重한 것으로서 느끼도록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일단 自己自身이 貴重하다는 것을 認定한 以上 다른 사람들도 모두 貴重하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心身의 根本構造에 있어서 나와 本質的으로 다를 바가 없는 存在이며 本質이 같은 두 対象에 대하여 서로 다른 評価를 내린다는 것은 論理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人間이 尊貴하다고 주장하는 根拠로서 흔히 人間의 理性을 指摘한다. 그러나 理性을 가졌다는 事実이 왜 尊貴性내지 尊厳性의 근거가 되는 것일까? 理性이라는 機能자체가 尊貴하다기 보다도 理性의 機能으로 因하여 人間의 行動이 固有한 特色을 갖게되며, 그 行動의 特色이 人間을 尊貴한 것으로 만드는 根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좀더 부연해 말한다면 人間은 理性을 所有하는 까닭에 ⓐ世界와 自己를 認識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信念을 따라서 自主的으로 行動하는 道德의 主體일뿐 아니라 ⓒ誘惑과 権力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굳굳하게 일어서는 勇気와 自尊心을 発揮할 수 있다는 事実이 人間을 尊貴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重要한 理由가 된다고 생각된다.

◦첫째 軟弱하고 작은 人間이 広漠한 宇宙를 認識의 対象으로 삼을 수 있다는 事実도 偉大한 일이거니와 特히 안으로 自身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마음의 余裕를 가졌다는 事実은 더욱 놀랍고 장한 일이다. 『自身을 안다』함은 『自身을 対象化 한다』는 뜻이며 그것은 自己를 超越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에 우리는 매우작은 것으로 보이기 쉬운 人間이 事実은 무한히 큰 存在임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自己自身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人間이란 보기에 따라서는 地球위의 가장 強한 存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軟弱한 存在에 不過한 事実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다.

特히 우리는 人間이 早晩間 죽어야 할 運命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아는 까닭에 우리는 같은 運命을 나누게 마

련인 다른『人間家族』에 대한 깊은 共感과 사랑을 느낀다.

※ Gabriel Marcel은 『人間이 有限者라는 바로 그 事実 가운데 그의 本質的 尊厳性의 原理를 찾을 수 있다』는 逆説的 結論을 앞세운 다음 그러한 주장의 根拠로서『人間은 自己 스스로가 죽어야 할 運命을 지니고 있다는 事実을 깨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唯一한 存在』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有限者로서의 自身의 運命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러나 여전히 높은 理想을 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보자고 努力을 기울이는 人間, 그리고 같은 運命아래 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人間으로서의 사랑을 깊이 느끼기도 하는 人間, 이러한 人間을 우리는 尊貴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人間은 스스로 옳다고 믿는바에 따라서 行動하는 道徳的 主體이다. 밖으로 부터의 刺戟에 따라 完全히 被動的으로 움직이는 無生物이나 本能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盲目的으로 行動하는 一般動物과는 달리 人間은 스스로 정한 目標와 스스로 내린 判断에 따라서 主體的으로 行動한다.

그리고 主體的으로 行動할 수 있다는 뜻에서 人間은 自由를 가진 存在이며, 自由의 主體라는 이 사실 가운데 우리는 人間을 尊厳한 存在로서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理由의 하나이다.

◦세째로, 人間은 誘惑과 権力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勇気와 自尊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自由의 主體라는 事実에서 자연히 따라오는 現象이거니와 이 勇気와 自尊心은 우리로 하여금 人間을 尊厳한

것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게하는 가장 直接的인 事由이며, 人間은 스스로를 尊厳하게 대접하는 까닭에 진실로 尊厳하다.

여기서 勢道나 金力을 잡은 사람들이 権勢를 자랑하고 権威를 내세우는 傲慢한 態度와 人間의 尊厳과는 거리가 멀고 厳格히 区分되어야 한다. 威勢를 誇示하기 위하여 華麗한 옷차림이나 雄壯한 住宅 따위로 겉모습을 装飾하는 態度를 批判하여 『그것은 空虛와 欺瞞을 숨기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며·····진실로 自己自身을 背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批判的인 사람의 눈으로 볼때 스스로의 権威에 致命傷을 입히는 것』이라고 説破한 G.Marcel의 말도 바로 이 点을 지적한 것이다.

ㄴ. 人間回復과 経済生活

◦人間 또 人間的 価値의 優位를 強調함은 金銭과 権力등 外面的価値가 배척되어야 할 悪이라는 뜻은 아니다. 人間的 価値의 実現을 위해서는 物質生活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므로 経済的価値의 重要性을 忘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恆常명심해야 할 것은 金銭내지 物質은 人間을 위해서 중요한 手段的 価値이며 目的으로서의 価値는 어디까지나 人間에게 있다는 事実이다.

묵은 価値観의 잘못은 物質내지 経済를 重要視한 事実이 아니라 物質이 도리어 人間을 圧倒하게된 主客의 顚倒에 있었기 때문에 人間과 物質의 関係를 올바로 回復하는것이 새로운 価値體系가 力点을 두고 志向해 나갈 方向이다.

◦權力의 問題에 있어서도 비슷한 주장인데 現代民主国家에 있어서 權力의 源泉이 되는것은 国民各自의 人權 또는 市民權이며, 이 各者의 主權을 国民生活의 秩序와 能率을 위해서 小数에게 委任된 것이 곧 政治權力이다.

이와같은 權力도 그 本質에 있어서는 人間을 위한 手段이며, 現代社会生活이 複雜多端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手段이라는 것도 明白하다. 그러므로 權力을 重要視하는 것도 当然하지만 問題는 權力을 目的으로서 追求하거나 또는 그것을 共同體의 繁栄내지 成員의 幸福을 위하여 使用하지 않고 私事로운 目的을 위해서 濫用할 경우에 있다.

◦物質生活의 安定과 權力의 올바른 使用을 위해서 切実하게 要請되는 것은 合理的 精神이다. 이미 指摘했듯이 우리의 伝統的 価値體系에 있어서는 合理的 精神이 不足하기 때문에 西欧的合理主義로 부터 배워야 할 教訓이 적지 않을 것이다.

◦『合理的精神』 또는 『合理主義』라는 概念도 여러가지 側面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다음 두가지 側面에 力点을 두고 合理主義精神을 살려야 한다고 하겠다.

①첫째로 経済生活의 合理的運営이 切実하게 要請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経済的 後進性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는 事実을 考慮할때 特히 이 問題는 強調되어야 한다. 自国의 利益 追求에 余念이 없는 歷史的 現段階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모로 不利한 与件下에서 国際競争에 臨하고 있는데 그 경쟁의 中心이 経済的利得이라는 事実을 想起할때 国民経済의 発展이 얼마나 切実한 課題인가는 너무나 明白하다. 그리고

合理的 運営을 떠나서 国民経済의 発展을 期待할 수 없다는 것도 明若観火한 일이다.

◦経済生活의 合理的運営은 生産과 分配 그리고 消費등 모든 側面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生産의 여러 過程은 企業精神과 科学的 経営의 原則에 따라서 遂行되어야 할 것이며, 家族主義的思考方式, 特恵措処, 私事로운 結托등 不合理한 要因들이 介入해서는 안될것이다.

分配는 公正의 原則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消費生活에 있어서도 奢侈와 浪費 그리고 虚礼와 虚飾등의 不合理한 習性을 脱皮해야 할 것이다.

◦合理性에 関聯하여 또한가지 力点을 둬야 할 일은 公正 또는 社会正義의 側面으로 日常生活에 있어서 合理的 態度를 취하는 問題보다도 더욱 重要한 問題이다. 『合理的』 및 『公正』은 모두 多少의 多義性을 가진 概念이나 本稿에서는 却説하고 우리의 政治와 経済, 宗教와 芸術, 그리고 教育등 여러分野의 現実的問題들을 合理的으로 処理하는것은 公正한 社会, 또는 社会正義의 樹立을 위해서 必須不可欠한 條件이다.

※『公正』의 原則은 『処地와 形便이 같은 두사람은 差別없는 待遇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処地와 形便이 다를때에는 사람들이 받는 대접이 달라지는 것이 不可避하므로 処地와 形便에 따른 差別待遇의 正当한 事由가 될 수 있는것과 없는것을 区別해야 한다.

그렇다면 差別待遇의 正当한 事由가 될 수 있는 事情의 差異란 어

며한 것일까? 그것은 『各者의 必要에 따라서 分配해야 한다』는 것이요. 또하나는 『各者의 能力과 業績에 따라서 分配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註— G. Vlastos)

◦우리가 公正을 요청하는 根本的인 理由는 모든 사람들이 各者의 뜻을 이루어 幸福에 到達하기를 바란다는 事実에 있으며, 사람들이 필요로하는 바에 個人差가 있다는 것은 各者의 幸福을 위해서 要求되는 條件이 다르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必要에 따라 分配를 달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幸福이 고루 잘 実現되도록 하는 方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필요를 모두 供給한다는 것은 物資와 人力의 限界때문에 事実上 不可能하므로 『누구의 어떠한 必要를 優先的으로 待接하느냐?』하는 물음이 不可避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각자의 能力과 業績에 따라 分配한다』하는 대답이 事理에 맞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原則을 完全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것은『사람은 누구나 幸福하게 살 權利를 가진바 귀중한 存在』라는 보다 큰 原則으로서 能力이 弱하고 業績이 적은 사람이라도 生存의 權利와 幸福을 누릴 資格을 가진것으로 보아 分配의 基準을 能力과 業績에만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보다 原初的이며 基本的인 欲求일수록 優先的으로 充足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平等의 理念에도 보다 符合되는 見解이다.

◦『필요에 따른 分配』가 現実的으로 不可能한 것이므로 하나의 理想으로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人間的 努力의 정당한 目標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理想으로 『필요에 따라서 分配한다』하는 原則을 버리지 않으면서 現実에 適応하기 위해 『能力과 業績에 따라서 分配한다』는 原理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社会的脆弱層国民의 基本生活을 保障하기에 필요한 分配가 慈善事業과 같은 善心의 発露라는 形態로 주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前近代社会에 있어서 이루어졌던 일이다. 善心을 통한 解決은 一時的 彌縫策에 不過하며, 또한 善心을 받는 사람의 自活能力을 阻害한다. 그러므로 不具와老幼등 特殊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各者의 社会的 貢献에 대한 当然한 報酬의 形態로 生活이 保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할 機会가 均等하게 주어져야 한다.

◦公正의 問題를 物質의 分配에만 局限된 問題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人間은 物質生活의 安定과 平準化만으로 삶의 보람을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社会 또는 国家의 한 成員으로서 能力과 분수에 맞는 자리를 얻어 自己의 素質을 発揮해가며 共同의 事業에 積極的으로 参与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孤独과 疎外感을 벗어나 사는 보람을 느낀다.

그러므로 物質의 分配에 있어서 不公平이 없는 것만으로 한社会가 充分히 公正하다고 評価될 수는 없으며, 모든 成員들에게 일할 수 있는 機会와 자리를 公平하게 나누어 주는것도 公正한 社会建設을 위해서 중요한 必須條件이 아닐 수 없다.

ㄷ. 合理的精神과 人情美

◦앞에서 주장한 合理性을 強調하는 나머지 사람들이 항상 利害

打算에 汲汲하고, 모든 일을 権利와 義務로 따지는 가운데 個人들의 人品이 옹졸해 지는 한편 社会全體는 人情에 메마른 冷淡한 集団으로 굳어져 버리거나 機械化되어 主體意識이 없는것 처럼 되는것은 우리들이 本来 所望하는 바는 아니다.

일찍이 合理主義的 思考와 行動이 発達한 西欧社会에 있어서의 個人主義나 物質主義의 発達에 영향을 받아 오늘날 사람들 사이의 内面的紐帯가 弱化되는 동시에 社会全般에 人情美가 欠乏되어가는 傾向은 우리에게 크고 깊은 教訓을 준다고 할 수 있다.

◦人間은 社会的動物인 까닭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円満하고 満足스럽게 서로 섞이고 어울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理智와 論理를 초월하는 다른 因子의 作用이 必要하다.

그 필요한 다른 因子들 가운데 가장 重要한 것이 다름아닌 늘 우리가 伝統을 자랑하는 人情 또는 人間味라고 하겠다. 앞에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家族主義 伝統이 尚存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 家族主義 속에 깃들은 融和의 心情과 調和나 中庸의 原理를 보다 큰 共同體를 위한 内面的 紐帯의 原理로서 発展시키는 일은 앞으로 새로운 価値體系를 摸索하는데 力点을 두어야 할 課題의 하나라고 하겠다.

◦東洋의 伝統이 자랑하는 人情과 西洋의 伝統이 자랑하는 合理的 精神을 한층 높은 次元에서 辨証法的으로 綜合하고, 이것을 우리의 日常生活의 구석구석에 浸透시켜 態度化하고 生活化하는 것이 社会気風을 醇化시켜야 한다는 当為的인 課題인 것이다.

◦『나』에 대한 옹졸한 執着을 克服하고 보다 큰 自我로서의

『우리』에로 志向하게 하는 融和의 原理인 人情을 살리되 情実 또는 偏愛로 흐르는 일이 없으며, 経緯와 是非를 밝히고 能率과 実質을 높여주는 合理的精神을 살리되 刻薄하고 孤独한 人間関係를 招来함이 없는 健全한 社会를 建設하는 일이 비록 그것이 어려운 理想이라 할 지라도 우리 모두의 窮極的 目標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切実한 問題는 어떻게 하면 東洋의 人情과 西洋의 合理性의 短点을 克服하고 그 長点만을 높은 次元에서 살릴 수 있느냐 하는 実践的 原理의 問題를 提示하는 일이다.

辨証法的綜合이 可能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함께 志向하는 共同目標에 대한 情熱이 個人的利害의 対立에서 오는 競争意識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고 強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共同目標는 国民各者가 그것의 実現을 위하여 情熱로서 参與하기를 自願하게될 未来像이며 一般国民의 自由로운 意思와는 관계없이 他律的으로 定해진 어떤 全體主義的 課業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即 어디까지나 個人의 自我実現과 国家의 繁栄을 相互 依存의 관계로서 定立하는 가운데 온 国民을 위한 共同目標가 追究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個人의 犠牲을 代価로서 要求하는 全體의 目的은 民主国家의 共同目標로서는 不適하며 오직 国民各自의 뜻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約束하는 보다 公正하고 보다 健全한 未来像만이 우리들의 바람직한 共同目標가 될 수 있다.

2. 家族과 倫理

가. 家族의 概念

家族이란 말은 一般的으로 하나의 집(家)에서 共同의 生活을 営爲하는 親族의 集団 即 夫婦, 親子 兄弟姉妹의 集団을 말한다.

家族에 있어 「집」이 갖는 意義는 重要하다. 집은 일찍이 住居로서의 家屋을 意味하지만 同時에 家族들의 日常生活의 터전이며 雨露風霜을 피하며, 外敵으로 부터 家族을 保護하고 또 家族의 全成員을 모아 家族相互의 混淆를 防止하는 役割도 갖고 있다. 「집」은 「家族」의 概念과 緊密하게 連結되어 때로는 「집」이 곧 「家族」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家族」이라고 할 때 그 집의 成員뿐 아니라 財産같은 것을 包含해서 表現하는 경우도 있는데 家族의 統率者인 家父長밑에서 統率되어 生活하는 家族을 뜻하고 있다.

나. 家族의 構造

家族은 夫婦, 親子, 兄弟姉妹들의 共同生活의 集団이지만 그 狀態는 自然的条件 혹은 政治的 經済的, 文化的条件에 制約을 받아 여러가지로 変化하고 있다.

家族의 構造는 形式的으로는 大家族과 小家族으로 分類할 수 있다. 小家族은 夫婦와 그의 未婚의 子女를 포함하는 家族으로서 대개 結婚하여 새 家族을 形成하므로 成立된다. 小家族은 모든 家族의 基礎的 中心的単位라는 뜻에서 核家族이라고도 한다. 大家族은 많은 世代를 포함하는 複雜한 構成의 家族이다. 大家族과 小家族과

의 差異는 家族成員의 多少가 아니라 同居世代数의 多少에 관계된다.

歷史的으로는 大家族形態로 부터 小家族形態에로 옮겨져 오고 있다고 하겠다. 中国과 古代<로마>에서는 家族은 既婚의 아들과 손자의 家族을 포함하는 大家族을 形成하고 있었다. 大家族을 統率하는 家父長의 権力은 莫強하고 自給自足的인 經済를 統括하며 宗教, 教育, 警察등의 権限도 行使하였다.

그러나 近代社会에서는 家父長을 代身하여 国家가 政治的 社会的 秩序를 掌握하고 教育에도 国家와 社会의 손이 뻗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資本主義의 発達은 従来의 家族的 自給自足經済를 崩壊시켜 사람들은 職業을 求하여 社会에 進出, 拡散하기에 이르렀다. 同時에 個人의 人格과 自由를 尊重하는 近代<휴매니즘>의 思想도 漸次 普及되어 各自의 家族의 独立性을 重히 여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傾向과 더불어 強力한 権限을 갖고 大家族을 統率하던 家父長의 存在意義는 稀薄해지고 家族의 構造는 大家族으로 부터 小家族에로 変해 왔던 것이다.

다. 家族의 倫理(近代家族을 中心으로)

1)夫婦의 倫理ー家族의 成立은 夫婦를 起点으로 한다. 親子, 兄弟姉妹의 諸關係도 夫婦의 存在에서 비롯된다. 夫婦의 成立에는 男女 두사람의 私的인 關係가 夫婦로서 社会的으로 承認되어야할 必要가 있기 때문에 一定한 節次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夫婦의 愛情은 性愛를 基礎로 한다. 그러나 그것은 夫婦의 關係가 性的欲望의 充足만을 目標로 하여 成立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 感性的인 사랑은 生活을 共同으로 하고 夫로서의, 妻로서의 役割을 遂行하면서 人倫的인 愛情에 까지 이르러 夫婦의 和合이 実現되지 않으면 안된다.

夫婦의 協調는 過去에 있어서는 夫唱婦隨하여 夫의 權威에 順從하는 妻의 姿勢에 의하여 実現되는 경우가 많았다. 近代家族에 있어서는 夫婦間의 支配나 服從關係는 크게 變化하여 .男女同等의 政治的 權利와 義務를 갖이게되고 教育의 機会均等에 의하여 女性도 高度의 教育을 받아 男性과 같이 職業에 從事할 수 있게 되어 女性의 能力 社会的權利와 地位가 顯著하게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女性의 一方的인 服從내지 順從에 의하여 夫婦의 和合을 実現하는것은 夫婦의 特히 妻의 倫理로 생각할 수는 없게 되어 버렸다.

그리고 女性의 地位向上이 夫婦의 和合을 不安定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例를 들면 女性이 男性과 같이 就業하고 經濟的 能力이 높아가고 結婚하여 妻가 된 뒤에도 就業을 繼続한다. 職業에 관한 責任과 義務는 夫와 子女의 돌 보아줌이나 家事때문에 軽減되지는 않는다. 일과 家族生活과를 両立시키는 条件이 整備되거나 夫와 婦와의 相互努力이 充実해지지 않으면 夫婦의 共同生活은 不安定해진다.

經濟的 能力이 많은 妻는 自活할 수도 있기 때문에 夫에 不満

을 갖게되든지 혹은 일과 自由때문에 離婚을 要求하게 되기도 쉽다고 할 수 있다.

近代家族에 있어서의 女性의 權利와 敎養, 地位의 向上은 이와같은 夫婦의 愛情을 不安定하게 하여 和合을 破壞하는 要因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元来 夫婦의 人倫的 愛情은 相互間에 人格的으로 尊重한다는 精神的 基盤이 없으면 참으로 実現될 수 없는 것이다. 妻가 단순히 性愛의 対象으로서 혹은 家事 担当者로서의 役割만을 存在理由로 삼거나 過去에 볼 수 있었던 性差에 의하여 男尊女卑의 序列이 만들어진다면 夫婦의 사이에는 人倫的인 愛情은 생겨나지 않는다.

元来 大家族制社会에 있어서 女子의 貞節을 높이 評価한것은 家系의 純潔과 아울러 家族및 祖上에 대한 忠節을 重要視한 까닭이었지만 그러한 点은 度外視하고라도 人格을 保全하는 意味에서도 配偶者에 대한 信義와 性欲의 節制라는 点으로 보아서 夫婦가 함께 貞節을 지키는 것은 人倫의 道理로서 마땅한 것이다.

離婚에 관하여도 自由가 保障되어야 하지만 夫婦關係는 元来 永續的인 結合으로 成立된 것이므로 離婚은 결코 正常한 狀態가 아니다. 거기에 어떠한 原因이 잠겨있든 그것은 夫婦生活의 破綻이오 그 子女에게 더 큰 不幸이 되고 나아가 社会의 不安을 招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一時的 不和로 因하여 함부로 離婚을 쉽게 할 일이 아니다. 離婚은 相互의 人格을 維持発展시키는데 不可避한 事態에 있을때 비로소 그 意義가 있는 것이다.

2) 親子의 倫理

어버이와 子息의 관계는 兩親이 동등한 權限으로 認定되어야 한다.

從来에 父子關係를 重히하고 母子關係를 輕히 하는 弊端이 있었다. 이는 父系中心社会에서 부득이한 傾向이라 하겠으나 夫婦가 平等한 權利로서 結合되어야 한다면 어느 한편만이 偏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親子關係는 한갓 權利로써만 아니라 義務로써 結合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된다.

(母性愛와 父性愛)

o 閉鎖的인 男女 두사람의 共同体인 夫婦는 子女의 出生에 의하여 完成되며 親子로서의 새로운 血緣關係가 成立된다.

夫婦의 愛情은 子女의 出生과 子女에의 共同의 配慮를 통하여 強化된다. 그러나 父性愛와 母性愛란 반드시 같지도 않다. 어머니는 姙娠, 出産, 哺育의 긴 세월에 걸쳐 子女들과 身体的으로 密着되어 愛情을 키워간다. 母性愛는 本能的 無条件的이며 子女를 自己의 分身으로서 끊임없는 愛情을 쏟는다. 그리하여 子女의 成長後에도 마찬가지로 強한 母性愛를 作用한다.

한편 아버지도 子女를 自己의 分身으로 생각하고 強한 愛情을 갖는 것은 어머니와 다를바 없다. 그러나 子女와 密着된 보다 自然的 本能的인 母性愛와 比較하여 父性愛는 保護者的인 愛情이고 理性的인 愛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o 子女는 成長하기까지의 긴 歲月의 過程을 어버이와 함께지나는 동안 어버이로부터 衣食住의 提供을 받고 知識과 情報 技能등의 教育도 받는다. 그리하여 充分히 成長하고 独立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면 結婚하여 새로운 家族을 形成하고 어버이의 집으로 부터 分離 独立돼 간다. 거기까지 어버이는 子女를 保護하며 養育하는 立場에 있으며 子女는 어버이에게 依存하는 立場에 있으나 어버이의 優越性과 権威가 子女를 尊敬과 親和의 情으로 느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父母의 愛情의 각별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o 親子의 關係는 家父長의 権限이 強했던 時代에는 子女는 어버이의 権威에 従属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일찍이 儒教文化圈에서는 親子의 關係로 尊卑의 關係를 보고 子女의 어버이에 대한 態度로서 「恭敬」을 그 본으로 하였음은 너무나 잘 알려진 事実이다.

오늘날 近代化와 더불어 東西文化가 마주치면서 家族制度의 変化와 더불어 家族間의 關係에도 커다란 変化를 가져왔다.

ㄱ. 孝-다른 章에서 「孝의 思想」에 대하여 言及한바 있다. 古来로 東洋에서는 子女의 道理를 孝로써 表明하고 孝를 百行之源이라하여 그 道義的 価値를 가장 높이 評価하였다. 그러므로 儒教에서는 孝를 子女教育의 根本으로 삼고 이를 崇尚하였다.

元来 孝道의 根本精神은 한갓 服従만을 要求하는것이 아니다. 孝의 根源은 실상 사람으로서 마음 속에서 솟아나오는 愛敬과 報本의 精神에 있는것이다. 그것은 결코 他律的이 아니라 自律的인 것이다.

o 어버이의 子女에 대한 「내子息」이란 意識은 子女를 自己의

分身으로서 사랑하는 동시에 더우기 子女에 대하여 어버이의 愛情내지는 扶養에 대한 応報를 期待하는것과 連結된다. 그러한 어버이의 期待에 副応하여 子女는 어릴때는 몸을 튼튼하게 하여 어버이의 心慮를 끼치지 않게 하고, 또 学校에서 成績을 높여 어버이를 安心시키도록 努力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成長해서는 立身出世하여 어버이의 이름까지도 빛나게 努力하고 老年期에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衣·食·住의 念慮도 없게하고 또 孤独도 느끼지 않도록 扶養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낳아 주고 길러준 어버이에게 報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은 孝의 自然스러운 道德的行爲이며 아름다운 行動이다.

이러한 孝道는 아무리 民主主義가 発達한다 하더라도 無視할 수 없을 것이며, 社会가 아무리 急激하게 変遷한다 하더라도 家族은 社会의 基盤임에는 틀림없고 父母와 子女間에 意見의 差異가 있을지라도 親子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關係이며, 社会発展에 따라 子女의 뜻을 받들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며, 子女의 所見으로는 설사 父母의 바람이 마땅치 않다고 느낄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父母가 子女를 위하는 일일것이니 어디까지나 참는 마음으로 順従하여야 할 것이다.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면 父母를 理解와 說得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確実히 할 때 어느 父母가 子女를 悪의 수렁으로 들어가라고 할 것인가? 그러므로 先人들은 父母의 뜻을 잘 받들것을 『養志』라 하여 孝의 本義로 삼았던 것이다.

子女가 어버이를 사랑하고 위로하는일은 어버이에 대한 子女의 道理이다. 老来의 父母를 物質的으로 精神的으로 돌아보지 않는다는것은

子女의 道理가 아니며, 老人에 대한 社会保障과 社会福祉施設이 完備되었다 하려라도 어버이에의 愛情이나 憐憫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편 어버이도 子女를 自己의 所有物처럼 恣意로 支配하려는 생각을 마러야 하고, 特히 어머니는 완전히 子女에게 密着되어 心身의 모든것을 子女에게 依托하고 子女가 成長하여 独立한 뒤에도 子女와 떨어지기 어렵고, 걸핏하면 子女에 愛情을 過度하게 要求하는 例가 많은데 反省해 볼 일이다. 子女의 人格과 生活을 尊重하면서 自己의 精神的 充実을 図謀할 必要가 있다.

ㄴ. 教育-어버이의 権威가 絶対的인 것으로 作用하던 時代에는 어버이의 価値観은 그대로 子女에게 伝해질 수 있었다. 道徳的으로 그렇게 行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어버이의 見解에 따라 子女를 그대로 맞추어 만들수 있었으며, 어버이의 理想的 人間像을 子女에게도 理想으로 그리게 하여 그것을 目標로 昼夜 勉学에 努力시킬수도 있었다. 혹은 代代로 伝来하는 家風이라던가 家業을 子女에게 가르치는것이 家父長으로서 어버이로서 重要한 家庭教育이라고 생각하여 教育은 어버이로 부터 子女에게 一方的인 伝達이라는 形態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近来의 価値観의 큰 変動은 家庭教育마저 動揺시켰다. 個人主義 自由主義的인 思想은 지나치게 児童中心的인 放任教育으로 치닫게 한바 있다. 子女는 子女로서의 人間性이 尊重되야 한다는 것에서 부터 子女의 自由意思와 経験이 極端的으로 重視되어 放任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어린이는 세살까지 사이에 人格의 基礎가 形成된

다는 教育学者도 있지만 가장 重要한 家庭教育의 時期인 幼児期마저 礼儀凡節을 가르치지 않는것이 民主的이라고 생각한 그릇된 어버이도 있다. 혹은 어지러울 程度로 変化하는 社会속에서 成長하는 어린이들이 人生에 그러한 새로운 価値意識과 行動様式을 일찍이 몸에 익혀 旧世代에 成長한 어버이와의 사이에 間隔이 생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結果 어버이가 子息을 教育하는 自信을 잃고 無責任한 教育포기의 状態에 있는 경우도 있다.

価値観의 転換이 教育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過度한 抑圧이 過誤를 낳듯이 過度한 放任도 過誤를 낳게 된다. 어버이는 子女들 보다 思慮가 깊고 보다 豊富한 経験을 쌓았기 때문에 子女를 指導하지 않으면 안되고, 子女가 過誤를 犯했을때는 適切한 助言과 叱責을 해야 한다. 子女의 自主性도 自由로운 意思와 経験도 올바른 教育없이는 잘 養育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ㄷ. 舅姑와 子婦間의 關係ー特殊한 親子關係로서 舅姑婦의 關係가 있다. 累世同居하던 大家制度下에서 왕왕姑婦間의 軋轢이나 反目으로 子女들의 自然스러운 夫婦生活을 円満하게 이끌어 가지 못하게한 例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夫婦가 結婚하는 동시에 別居하여 새로운 生活을 営爲하는 風習이 一般化하게 되자 旧来의 姑婦의 極端的이고 深刻한 關係는 오히려 減少되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姑婦의 關係 即 시어머니가 며느리로 부터 업신 여김을 당하거나 놀림감이 되어버리는 例가 発生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肉親은 아닌 姑婦가 참 母子의 關係처럼 되기는 無理가 있지만 同性으로서, 家政을 맡은 主婦로서, 心理的 反撥이 있는것도 어느정도 不得已한 일도 있겠지만, 시어머니는 子息과 그 妻의 家族을 距離를 두고 보아갈 것이며, 며느리는 夫에 대한 愛情을 夫의 母에게도 배풀어야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子女의 教育도 国家와 社会에서 도맡아 学校의 設備가 갖추어지고 바람직한 人間像과 教育方法도 学校가 가르쳐 준다. 어버이의 經済力이 微弱하면 公共의 能力으로 保育시켜주며 老人保護의 社会保障도 進展돼 가고 있다. 그러나 어버이에게 있어서 家族은 큰 힘이며, 보람이 되는것은 子女의 存在가 어버이에게 주는 情緒에 依存하기 때문이다.

3) 兄弟姉妹의 倫理

兄弟는 같은 어버이로 부터 생겨나는 分形連気之人이다. 어버이와의 共同生活속에서 衣則連服하고 食則共案하며 어버이의 사랑을 받고 함께 教育도 받으며 서로 서로 同志的 同僚的인 것으로 情誼를 나누어 兄友弟恭하며 살아간다.

兄弟姉妹는 年令的으로는 비교적 接近해 있지만 兄姉는 年長者로서 弟妹에 知識과 技術같은것을 가르쳐 어버이가 이룩할 教育機能에 部分的으로 参与하는 수도 있다.

父母가 欠損이 있을때는 兄姉는 父母를 代身해서 그 役割을 다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때는 단순한 同類的인 愛情뿐 아니라 오히려 親子의 関係와 비슷한 緊密한 感情으로 連結되어야 하는 것이다.

従来의 家族制度下에서 兄弟姉妹의 出生의 順序가 支配와 従属의 關係도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長幼有序」를 重視하여 弟妹의 兄姉에 対한 敬愛를 「悌」로서 強調하였던 것이다.

近代家族制 下에서는 各己 結婚하여 自己의 새로운 家族을 形成해 가기 때문에 兄弟姉妹의 序列의 重要性의 意味를 잃어가고 있지만 이것은 社会秩序維持에 크게 作用한다는 事実에서 再今味되야할 問題이다.

兄弟姉妹의 血緣은 親子에 다음가는 強한것으로 各自의 家族으로 分離된 뒤에도 平素의 交流가 継続되고 困難할 때는 서로 서로 援助하게 된다.

家統을 継承하는 長男만이 어버이의 扶養을 全面的으로 担当한다는 習慣이 살아져 가는 現代에는 어버이의 老後 奉養은 兄弟姉妹의 보다나은 協力에 매여 있다고 하겠다.

4) 崇祖睦族

① 元来 先祖崇拝는 父祖에 대한 孝의 延長으로 이룩된 道義이다. 即 追敬愛慕의 마음으로 祖上을 숭배하고 報本謝恩의 情으로서 奉祀하는 것이다.

祭祀의 宗教的 起源은 原始的인 恐怖畏懼와 滅禍招福의 観念을 度外視할 수 없고, 儒教에서는 報本追敬의 崇高한 道義観念으로써 崇仰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冠婚喪祭에관한「礼論」은 너무나 有名하고 번잡한 儀式은 마침내 繁文褥礼의 極端에 까지 이르렀다.

② 그런데 近代에 西欧文化 특히 基督教가 普及됨에 따라 우리의 伝統的인 祖上崇拝는 큰 変化를 가져와 一部 사람들은 先祖에

대한 喪祭의 儀礼를 虛礼로 여기게 되고 어떤이는 迷信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国民은 先祖崇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事実 종래의 先祖崇拜의 여러儀式은 번잡하고 또 迷信이라고 보여질 만한 点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祖上에 대하여 순진한 追慕愛敬의 感과 敦篤한 報本謝恩의 情으로써 崇仰하는 精神 그 自体는 결코 迷信도 아니고 悪徳도 아닌 子孫된 사람의 道理이다.

祖上의 遺徳을 기리고 先祖의 遺業을 継承発展하는것은 사람의 마땅한 道理이고 이는 또한 民族文化의 発展에 큰 意義를 가진 것이다. 다만 그 儀式은 時代에 合当한 方式으로 改善하는것은 필요한 일이다.

o 우리는 伝統的인 儀礼生活에서 脫皮하고 時代的인 潮流에 알맞도록 "家庭儀礼準則"을 法制化까지 해놓고 온 国民의 生活化를 서두르고 있다.

o 先祖를 崇拜한다는 것은 家系上의 問題뿐 아니라 民族国家 特히 우리들 처럼 単一民族으로서의 긍지에서 새로운 道徳的 意義를 認定해야 한다. 即 先祖들의 偉徳을 崇仰하는 것은 血族이라고 해서 만이 아니라 한 民族 한 同胞로서 큰 意義를 가진것이다. 우리는 보다더 民族的 先祖中의 偉人을 崇拜하며 民族文化의 優越함을 認識시켜 文化財, 史蹟등의 保護와 育成 特히 愛国先烈의 遺徳을 기리며 民族의 얼을 되새겨 韓国民族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伝統文化와 現代文化와의 不調和를 韓国的인 文化로 調和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o 이러한 意義에서 우리는 先祖崇拜의 道義観念을 現代化시키는

일과 아울러 睦族의 道義를 強調해야 한다. 前者는 血族을 從的으로 連結함에 対하여 後者는 横的으로 連結한다. 親族은 같은 先祖아래 結合된 하나의 共同社会이므로 祖上을 崇拜할때는 親族間의 和睦을 重要視함은 당연한 帰結이다. 오늘날 平等思想의 普及이 切実하고 総和団結을 부르짖는 이마당에 더욱 睦族의 道義는 매우 重要한 課題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同族間의 親和를 崇尚하고 睦族의 道義를 尊重하였기 때문에 相扶相助의 精神과 共存共榮의 德義는 높이 讃揚할만한 것이였다. 그러나 反面에 여러가지 弊端도 적지 않았다.

社会가 変遷하고 모든 分野에 있어서 個人本位의 制度가 発展한다 할지라도 睦族의 道義는 버려서는 안된다. 近代社会는 協調와 扶助를 要求하며 社会連帯意識의 稀薄은 人情이 매마른 각박한 社会相을 낳는다. 特히 国民의 団結을 要請하고 民族의 統一을 絶叫하는 오늘날 우리는 愛族의 精神을 그대로 発揮하여야 할 時際에 臨해 있다. 実로 家族愛를 拡大하고 親族愛는 또한 民族愛 同胞愛로 発展시켜야 한다.

이제 우리는 崇祖睦族의 道義観念을 한낱 旧来의 弊習이라고 排撃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道徳的 意義를 발견하고 그 精神을 国家社会에 까지 発揮하여야 하겠다.

라. 家族과 国家

家族은 人類生活의 揺籃이요 国家社会의 基盤이다. 그러므로 家族의 道義는 언제나 国家와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成立되는것인

만큼 文化家族이요 道義家族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찌기 "헤에겔"은 그의 이른바 客觀精神의 発展過程에 있어서 道義体의 基本形態를 「家族」과 「市民社会」와 「国家」의 3段階로 삼고 거기에 辨証法的 発展을 인정하였다.(註)

그에 의하면 道義体의 첫째 形態인 「家族」은 直接 제대로 存在한 道義的精神이다. 即 家族의 統一은 愛情에 의하여 結成되는데 거기에서는 各個人은 独立된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家族全体의 構成部分으로서만 存在한다. 다시말하면 거기에서는 한 사람의 実在性이 인정되지 않고 家族全体의 統一만이 実在한다. 그런데 市民社会는 이와 반대로 個個人의 存在만이 実在的이요, 団体의 全体性은 그 背後에 숨겨져 있다. 그러므로 市民社会에서는 道義가 喪失된다. 말하자면 거기에서는 個人 各自의 利益과 欲望을 充足하는데 汲汲하고 分業의 形成으로써 한개의 組織体를 形成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内面的結合이 이루워지지않고 法律로써 個人의 権利侵害를 防止하여 外的秩序를 維持한다. 그러므로 市民社会는 実体的 統一이 喪失되고 実在的 普遍性이 分裂된 것이다.

그러나 "헤에겔"은 이 喪失된 統一과 分裂된 普遍의 裏面에 道義体의 発展的 展開의 契機를 인정한다. 即 市民社会가 가지고 있는 形式的인 普遍性이 必然的으로 内面化한다. 그리고 家族이 가지고 있는 全体的 契機가 이와 結合한다.

註 : Georg W·F·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1821

여기에서 道義体의 세째 形態로 最高段階인 国家가 出現한다. 이 国家에 이르러서 道義的 普遍者의 完全한 実在性을 確保한다. 그런데 家族에 있어서는 個人의 存在를 내버린 普遍形態였으나 国家에 있어서는 個人의 独自的 存在性과 아울러 그 機能을 発揮하면서 普遍者의 構成에 참여하고 国家 그 自体를 個人의 目的으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活動한다. 다시 말하면 国家는 家族의 全体性 普遍性과 市民社会의 個別性 特殊性을 止揚하여 全体 即 部分 普遍 即 特殊의 綜合的 道義体이다. 그러므로 個人은 国家를 통하여서만 自己完成에 到達할 수 있는것이다.

이와같이 "헤에겔"은 그의 独特한 哲学的 方式 即 普遍者와 個別者와의 相互關係의 辨証法的 発展形式으로써 家族과 市民社会와 国家와의 關係를 說明하였는데 그의 辨証法的方式의 是非는 姑捨하고 人間은 그가 家族의 成員으로서 머물러 있는한 個人的인 発展을 期할 수 없고 国家의 成員으로서 비로소 自己完成을 期할 수 있다고 主張한것은 미상불 家族과 国家와의 關聯性을 論破함에 適切한 것이라고 하겠다.

(註:金斗憲 著 "国民倫理")

일찌기 "아리스토텔레스"가 国家를 家族의 拡大로 보았고 特히 東洋의 儒教에서 忠孝一致를 最高의 道義로 본것은 우리가 잘 吟味해 볼만한 일이다.

忠孝一致의 思想은 本来는 中国의 伝統的인 儒教思想으로서 우리祖上들에게 미친 影響이 컸었고 또한 国民精神의 基本을 이루었었다.

그러나 忠과 孝의 觀念을 한갓 封建社会에 있어서의 精神과 같은것

으로 理解되어서는 안된다. 忠이란 君主에 대한 理念이 아니라 国家民族에 대한 忠誠으로, 孝는 父母의 命令에 服從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人格的으로 敬愛의 精神과 아울러 立身出世하고 揚名後世하는 道理로서 理解되어야 한다. 다른 章에서 孝와 忠에 대하여 詳論하기로 하였다.

o 家族은 언제나 国家와 緊密한 關聯性을 지니고 있기때문에 国家는 家族을 保護할 義務가 莫重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憲法에도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은 国家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고 明示하고 있다.

近代의 西欧諸国에서는 個人本位 家族의 形態가 発展함에 따라 個人이 国家社会의 단위가 되고 家族이 그 단위로 되는 傾向이 稀薄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못하면 家族의 健全한 発展을 阻害할 優慮가 있고 이에 따라 国家社会의 基盤을 弱化시킬 危険이 있다.

o 우리는 家族을 国家社会의 基礎単位로 보고 「健全한 家庭生活을 통한 韓国的인 家庭倫理의 定立」을 첫째 目標로 삼고 그 保護에 萬全을 期하도록 하는데 重点을 두기로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결코 낡은 思想은 아니다. UN의 世界人権宣言에도 「家族의 社会의 自然的 基本的인 単位団体로서 社会와 国家의 保護를 받아야 한다」고 明示하고 있다.

o 이와같이 家族은 国家社会의 単位로서 重要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家族은 언제나 하나의 単位로서만 国家에 奉仕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 個人資格으로서 国民의 義務를 完遂하고 있다. (例 兵役 納稅와 같은 義務)

이러한 義務는 家族의 代表 또는 代理로써 行使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個人資格으로만 行使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에 家長이나 父母가 子女 또는 子孫을 위해 가졌던 權限을 現代에 와서는 国家가 대신 負担한것이 적지 않다. 子女에게 罪가 있을지라도 그 処罰權은 父母에게 있지 않고 国家에 있는것은 代表的인 例이다.

우리는 子息을 自己家族의 한 成員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国家의 貴重한 子息 即 한 成員으로 봐야 한다. 近代国家에서 발달된 義務教育은 実로 이러한 근거에서 重大한 意義를 가진것이다.

마. 家族制度에 대한 小考

1) 家族의 形態

ㄱ. 家族生活과 家長

ㅇ家族이란 概念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바 있다. 家族이란 것은 人類生活의 가장 基本的인 形態이다. 그러니 만큼 여러가지 점에서 家族生活은 우리에게 매우 重要한 일이 된다.

첫째 : 家族生活은 하나의「집」에 모여사는데 비롯된다. 이 「집」은 人類生活의 가장 좋은 安息処이며 동시에 한쌍의 夫婦가 子女와 더불어 共同生活体를 이루어 人間의 社会的 生活의 발단이 된다.

둘째 : 家族生活은 永続的으로 結合된 一夫一婦가 正当한 關係로써 性的 満足을 얻고 그와 동시에 그 子女를 養育하는곳이 된다.

세째 : 家族生活은 精神的으로나 物質的으로나 共同生活에 가장 適切하다. 夫婦間의 愛情이며 親子間의 愛情은 人間의 가장 自然스럽고 순수한 情이다. 그리고 이러한 親愛感으로 말미암아 親密한 共同生活을 営爲할 수 있고 共同經濟로써 生活의 安定도 얻게 된다.

이러한 根拠에서 家族은 人類生活의 基盤이 되어 夫婦의 生理的 本能的 生殖作用을 이루어내고 그 子女와 더불어 共同經濟를 土台로 삼아 精神的 文化的 生活을 한다.

이러한 家族形態가 뚜렷하게 形成되면서 社会組織이 原始的 氏族社会와 매우 달라져서 여러家族들이 모여서 한개의 社会集団을 이루게 되었다. 即 家族이 社会의 単位가 된 것이다. 다시 말 하면 여러 家族들이 모여서 한 村落을 이루고, 여러 村落이 모여서 한 地方이 되고, 여러地方이 모여서 統合된 国家를 形成하게 된것이다.

o 여러 家族들이 한 村落에서 集団生活을 하게 된것은 相互扶助와 共同作業을 하기 위한 일이었다. 이 村落共同体안에서 家族이 単位가 되어 主로 農事를 生業으로 삼았기 때문에 家族의 全成員이 共同作業을 하게되고, 또 그 增産을 위해서는 家族成員이 많을수록 有利하였으므로 여러 世代가 한집에 모여서 사는 이른바 大家族制度라는 形態가 여기서 발단한 것이다.

이러한 大家族生活에 있어 여러 成員들을 統率하고 共同經濟体를 運営하기 위한 家長이 생겨난 것이다. 여기에 家長의 地位와 権限은 한집에서 共同生活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命令은 強力해야 할것이고 成員들은 이에 服從해야 할 義務가 負荷된 것이다.

o 家族形態가 뚜렷해지면서 原始民族社会에서의 財産共有, 共同消費는 점차 家族끼리의 私有로 化하면서 私有財産制度가 생겼다.

그런데 私有財産이 必要하게 되면서 그 社会는 큰 変動이 생겼다. 그것은 서로 財産을 많이 私有하려고 勢力다툼을 하게 되고, 権勢를 가진者가 財産을 많이 私有하게되고 또 無力한 者를 使役하게 되고, 그 使役의 程度가 甚해가서 奴隷를 한 財産으로 삼게 되었다.

여기에서 自由民과 奴隷라는 社会의 階級이 생기게 되었고, 階級社会가 進展되는데 따라서 封建制度가 発達하고, 이 封建制度下에서 家長的 大家族制度는 크게 発展하였다.

孝를 百行之源으로 보고, 忠孝를 一致하게보는 道徳観念은 모두 여기에서 始作된 것이다. 中国의 封建的 大家族制度가 굉장히 발달하였으며 그것은 우리나라에 큰 影響을 주어 오랫동안 大家族制度가 存続하였던 것이다.

ㄴ. 大家族制의 特質

o 무릇 大家族形態는 本質的으로 祖上을 中心으로 그 家系가 永続하는것을 基本으로 삼고 先祖崇拝를 心的基礎로 삼는 宗教的団体가 되고 親和의 感情으로 一体가 되어 経済的共同生活을 하는것이다.

o 大家族制度란것도 이러한 要求를 充足하기 위하여 생긴것으로 이를 테면 家長権制 親族制, 相続制, 養子制, 妾制, 冠婚喪祭의 礼法등등이 모두 그렇다.

o 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家長은 곧 家系를 継承하는 동시에 家族成員을 統率하는 責任者로 相続権, 宗祧権, 家産権, 戸主権, 尊長権,

親権등을 비롯하여 私法的 統制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家族들은 절대로 服従할 義務를 가졌던 것이다.

o 親族이라함은 父族, 母族, 妻族의 三族을 의미한다. 그러나 大家族制는 元来 父系中心으로 組織되고 여기에서 宗法이 발달하였다. 宗族에 있어서 大宗과 小宗의 別이 있고, 宗家에 分派가 있어서 그 系列을 記録保存하는 族譜란 것이 필요 하였다.

宗族에 대하여 母族, 妻族은 親族의 限界를 훨씬 좁혀 그 親疎關係는 喪服制度에서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의 李朝에 있어서의 礼論은 譜学과 아울러 士類의 중요한 学問으로까지 되었고 마침내 礼論의 対立은 政争으로 변하여 国政을 어지럽게 하는 原因이 되기 까지에 이르렀던 것이다.

ㄷ. 大家族制의 崩壊

o 東西洋에서 발전하였던 大家族制는 個人主義의 발전과 近代産業化社会의 経済組織에 따라, 社会的 移動이 活潑해지면서 점차로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日帝의 侵略과 때를 같이하여 商工業을 中心으로한 資本主義가 急速度로 발달하게 되고, 한편 大家族制의 기반이 된 農村은 疲弊해지기 시작하였다. 特히 解放後 西欧文化의 영향과 6.25戦乱, 그리고 最近의 経済開発計劃의 推進과 때를 같이 하여 急激한 都市化現象은 우리들로 하여금 祖上때 부터 전해온 故郷집을 떠나고 先塋이며 祭位番도 잊어버리게 했다. 他郷으로 떠나게 되면 일가친척도 멀어지고 冠婚喪祭의 礼節도 疎忽히 되고 만다. 아무리 祖上을 위한

생각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故鄕을 떠나 生業에 종사하다보면 同族의 觀念이 흩어지게 마련이다.

이밖에 法律 社会制度등에 있어서도 個人格権의 尊重, 文化面에 있어서의 自由主義 民主主義 個人主義등 近代的 西欧思潮는 従来의 封建的 家族制度에 의한 여러가지 慣習에 커다란 波紋을 던져 우리의 思考方式이나 生活様式에 変革을 가져다 주었다.

o 이와같이 하여 時代가 変遷하고 思想과 文化가 国際的으로 進展함에 따라 大家族制度는 큰 変動을 일으켜 所謂 核家族化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릇 家族制度란 것은 家族의 構成과 機能을 規律하는 制度를 말한다. 그런데 制度란 元来人間의 社会的行動과 機能, 그리고 生活様式을 提示한다. 따라서 家族이란 것도 그 制度上으로 보면 여러가지 規制를 받고 있는것이 分明하다. 例를 들면 家礼니, 家風이니, 家訓이니 하는것들은 家族的 生活의 内的規制를 말하는 것이요 民族이니, 階級이니, 教団이니하는것은 時代의 文化思想과 아울러 家族的生活의 外的規制가 된다.

다시 말하면 家礼, 家風, 家訓등은 家族의 한사람으로서의 生活様式과 또 그生活的行動様式을 規定하는 것이며 家族의 構成形式이며 生活様式은 民族이나 階級이나 教団에 따라서 다르고 時代의 文化와 思想의 변천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従来의 大家族制度는 必然的으로 崩壊되고 近代的 個別家族形態로 転換해 가는 것은 不可避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家長的 家族制와 個別的 家族制

o 從来 文化民族의 家族形態에는 대체로 大家族制 即 家長権 家族制와 小家族制 即 個別家族制의 두 形態가 있다고 한다.

1) 이 両者의 特色을 살펴보면

(1) 大家族制는 「집」이라는 実体가 現存家族成員의 위에 超越하여 있어서, 그 家系가 永続하는것을 本質로 삼기 때문에 그 実体的인 「집」은 現在의 家族成員뿐만 아니라 過去와 未来 即 久遠한 祖上으로부터 子子孫孫에게 継承하여 간다. 이러한 基本的 原則에서 先祖崇拝니, 家長이니, 相続이니, 養子니, 孝子니, 家礼니 하는 모든制度가 생긴 것이다.

이에 対하여 小家族制는 婚姻으로써 結合된 夫婦가 그 本体를 이루어서 그 夫婦関係가 存続하는 동안 「집」이 있다. 그러므로 夫婦가 離別하게 되면 그 「집」은 벌서 解体되고 만다. 거기에는 家系의 継承이란것이 無意味해 진다.

(2) 大家族制는 父子와 祖孫의 縦的関係가 中心이 되고 小家族制는 夫婦의 横的関係가 中心이되므로 前者는 여러 世代가 同居하게 되어 成員이 大多数로 되기 쉽다. 그렇다고 成員数가 이 두가지 制度의 差異를 決定하는것은 아니다.

(3) 어쨌든 大多数의 家族을 統率하기 위한 家長의 權威가 重要視되고 妻子와 弟姪이 이에 服從하는 道理가 絶対視된다. 子女의 孝道며 婦女의 三從之道는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나아가서 祖上을 崇拜하고 같은 祖上아래 맺어진 親族観念을 敦篤히 한다. 그리고 家族의 純潔과 存続을 위하여 女子의 貞節을 絶対視하고 相続制 養子制등이 생겨 거기에 따르는 法制와 冠婚喪祭에 관한 礼俗이 複雜하게 되었다. 이에 対하여 小家族制에 있어서는 夫婦의 和合을 主로 하여 그 子女로써 이루어진 現在家族의 団欒한 維持以上의 要求가 없고 崇祖睦族의 観念은 거의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언제나 個人權이 尊重되어 있는 反面에 夫婦의 離合이 容易하다.

이와같이 두가지의 家族制度가 다 特異한 点이 있다. 그러나 制度上 그 極端에 이르러서는 弊端이 생긴다. 大家族制度는 封建社会에서 여러가지 批判을 자아냈다.

① 家族이 한 全体性을 이루고 있으므로 家族의 한사람이 罪를 犯하면 그 家族成員 모두가 連坐의 刑을 받았다. 李朝社会에서의 滅門之禍라 하여 三族을 滅한다 함은 좋은 例이다.

② 家長權이 至厳하여 子女나 그밖에 成員의 個人格이 無視되었고 服從을 強要하므로 因하여 子女의 自主的인 個性과 能力의 発達이

阻止되었다. 例로서 婚姻의 一方的인 決定, 家產權의 独占에서 家長의 經濟的失敗로 因한 全家族의 生計를 危殆하는 따위를 들 수 있다.

③ 여러 世代가 同居했기 때문에 父子, 姑婦間또는 同娣間에 不和가 생기기 쉬웠다. 그중에서 姑婦間의 軋轢과 反目嫉視가 심각했던 事実은 너무나 알려진 일이다.

④ 崇祖睦族의 観念에 지나쳐 親戚에 대한 依頼心이 助長되었다. 例를 들면 出世한 사람이 있으면 일가친척이 모여 그에게 依支하려하였고 自主的活動을 게을리하거나 혹은 債権, 債務에 있어 「族徵」을 敢行한 일도 있고 公私를 分別하지 못하거나 親族和睦의 観念에 치우쳐 公德心이 희박했었다.

⑤ 家系存続에 치중하여 嫡庶와 男女의 別이 甚하고, 妾制의 公認은 一夫一婦의 德義를 損傷하였으며 早婚의 弊, 養子의 弊도 여기에 基因한 것이다.

⑥ 冠婚喪祭의 礼節에 치우쳐 繁文褥礼의 弊를 자아냈고 그로 因한 經済生活의 逼迫 李朝社会에 있어서의 礼論의 政争은 国政을 紊乱케 했다.

⑦ 家門의 崇尚에 치우쳐 人材登庸의 길을 막았고 門閥 族閥로 인하여 社会的 公平을 깨뜨렸으며 個人格의 能力発揮를 封鎖하였다.

⑧ 婦女의 貞操觀念에 치우쳐 寡婦의 再婚을 厳禁하였고 嫡庶의 別이 심하여 庶子의 人権을 無視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弊習만을 보고 反感을 가진 젊은世代들이 많은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지만 그들이 憧憬 하는 西洋式의 家族生活이나 個別的 小家族制度에 대하여 無条件 追從해서도 바람직 하지 못하다.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客観的인 批判이 있어야 하고 西洋諸國의 個別家族制에도 弊端이 不少하기 때문에 이를 看過해서는 안된다.

西洋의 家族制는 오랜 歷史를 통하여 民主主義니 個人主義니해서 발달해 왔고 그 歷史的 背景이 있고 그 社会的 特殊性이 있으니 만큼 우리나라와는 다른것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하고 個人主義가 極端에 이르러 利己主義에 偏向하기 쉬운것도 알아야 한다.

◦家族生活은 어디까지나 한개의 社会的生活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団体的 結合이 離合함을 기본조건으로 삼는다. 그러나 個人을 本位로 하는限 夫婦의 離合이 無常하기 쉽고 親子의 団結이 弛緩되기 쉬운것이다.

実際로 西洋諸國에 있어서 離婚事態가 많고 棄児現象이 顕著하여 家族分解의 傾向이 많은것은 그 좋은 実証이 될 것이다. 萬若 그렇다면 家庭은 順坦 할때는 団欒할 수 있지만 그 結合의 紐帯가 微弱하여 家庭生活의 破綻을 일으키기 쉬운것은 必然的인 것이다.

이는 実로 人間生活의 揺籃이 되는 家族의 本来의 使命에 어그러진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西洋諸國의 識者間에는 이에 대하여 憂慮하는 한편 우리의 家族主義에 새로운 関心을 가지고 이를 憧憬 羨望하며 家族紐帯의 解弛에 대한 防止策을 講究하는데 腐心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라도 우리는 뚜렷한 識見을 가지고 歷史的 現実을 土台로 바람직한 家族制度 模型을 構築하여 適合한 家族制度를 提示하고 동시에 家族道義를 새롭게 해야 하겠다.

바. 要 約

어버이에 대한 孝道나 忠誠은 血緣이 맺어주는 自然発生的인 倫理로 考慮되어 왔지만 現代社会는 一方的인 強要가 아니라 双務的인 愛情関係에서 成長하는 倫理이다.

어버이가 愛情으로써 그 子女를 対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孝道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孝思想에 대한 새로운 解釈과 理解를 模索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現代人類文明思潮에 符合하는 것 即 平等思想에 基礎를 두는 合理的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孝에 対峙될 수 있는 行為規範으로 忠을 생각할 수 있다. 작게는 家族에 대한 忠이 될 수 있고 크게는 나라와 民族에게 대한 忠이 될 수 있다. 이 忠의 思想이 社会, 国家, 民族에로 拡大될 경우 우리는 鄕土를 사랑하는 사람,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忠誠은 精神的 価値도 包含한다. 社会正義, 自由와 平等, 真理, 正直, 善, 美, 友情등과 같은 人間的 価値에 대한 忠誠으로도 나타난다.

(儒学의 孝思想은 孝를 人間性의 自然的発露로 보고 이 사상이 家族으로 부터 나라로 拡大되고 이것은 다시 世界와 宇宙로 퍼져 마침내 四海同胞主義 即, 人類의 平和와 共存 그리고 사랑으로 発展된다고 한다, 그러나 実際에 있어 그러하지 못하였고 오로지 家族이라는 小社会의 포로가 되어 많은 批判을 받아 왔으며 오늘날 흔히 固陋한것이라고 指弾을 받고 있다.)

孝思想이 国家와 人類로 번지지 못한 까닭은 그가 血緣에 바탕을 두고 있어 한家族은 그 뿌리를 같이하는 나무와 같았다, 뿌리를 달리하는 나무와는 無関한것으로 생각했으며, 비록 뿌리는 달리하더라도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룬다는 事実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와 西欧人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그들에게도 家族에 対한 愛着心이 없는바 아니지만 다만 그들은 出生에 対하여 宿命的이라기 보다는 偶然的인 事件(accident)으로 생각하였고 出生의 責任이 그 어버이에게 있는 以上 그를 養育할 義務가 어버이에게 있고 子息이 父母에게 愛情으로 報恩할 뿐이라고 한다. 피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주고 받는 愛情이 問題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血緣関係는 없다 하더라도 이웃에 대하여 親近感을 느끼게 된다면 이것은 共同生活에서 発生되는 情誼때문에 그들의 関心이 家族에서 이웃으로 나아가 社会全体로 容易하게 移動하게 된다. 그러므로서 家族에 限定되 있는 孝보다도 좀더 社会的인 自由라든가 平等思想과 같은 美徳에 더많은 関心을 가지게 되는 것이 自然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3. "女性과 倫理" 一婦徳의 涵養

가. 女性과 道徳

1) 사람은 各己 여러가지의 人間関係를 가지고 各各 다른 立場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그 関係와 立場에 따라 行動해야 하는 길(道理)이 있다,

例를 들면 「家族」이라는 人間関係에 있어서는 어버이로서 子女로서 혹은 夫로서, 妻로서의 立場이 있다. 어버이로서는 子女를 慈愛로써 養育하고 子女는 어버이에게 敬愛의 精誠을 다한다는 것이 各自의 立場에서의 道理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同時에 国家, 社会의 한成員이므로 그 成員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寛容으로 接人하는 것이라든가 国家, 社会 全体의 秩序와 規範을 지키는 것이 行動해야 할 道理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男女라는 性的区別로 存在하게 마련인데 特히 女性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딸로서의 立場이 있다. 그러한 立場에 따라 行動해야 할 道理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2)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女性의 道德을 特別히 強調한 歷史가 있다. 女性이라고 해도 特히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또 「어머니」로서의 行動規範을 強要한바 있다. 即 礼記内則篇과 孝経, 女訓内訓, 女四書, 小学, 烈女伝, 三綱行実図등에 의해서 女性으로서의 持身에 대한 閨訓으로서 教育받아 왔다.

高麗中·末期에 導入된 朱子学은 바로 宋儒의 男尊女卑思想을 이땅에 몰고와 男女関係에 있어서도 三綱五倫 가운데 「男女有別」綱目을 내세워 閨房에 幽閉하고 三従之礼를 強要하기에 이르렀다.

女性들은 나면서부터 바라지 않는 出生을 하고 「男女七歳不同席」이란 儒教的 戒律을 어릴때 부터 申飭받았다.

麗末 鄭夢周의 「海陽郡大夫人金氏墓誌銘」에서 든 女性像의 実例를 엿볼 수 있다. 即「夫人의 天性이 温淑한데 또한 賢父兄의 가르침을

더하여 나이 若干에 朴氏에 帰하니 婦道를 修行하여 世族의 貴함으로써 絲毫도 驕傲의 빛이 없고 大匡公(男便朴氏)이 또 礼를 좋아하는 君子라 비록 平居때에도 서로 恭敬하여 相対하기 손(賓客)과 같이 하니 夫人이 平生에 父母를 섬기기 孝로써 하고 兄弟를 섬기기 和順하고, 子孫을 均愛하고 婢僕에게는 慈愛롭게 하고, 밤에는 仏経을 외우고, 낮에는 紡績잡아(執) 나이가 많아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衣服, 飮食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豊倹하기 尺度에 맞으니(中略)」라고 했다.

이것은 바로 朱子学徒의 理想으로 한女人을 통하여 具象化한것이다.

그리고 李朝에 이르러서도 이런 千篇一律的인 女中君子로 表象해 놓았음을 볼 수 있고 널리 알려진 事実이다.

李朝社会의 女性의 模範的<타잎>을 선비의 아내의 典型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1曰 婦德이니 그것은 不必才明絶異也오, 다만 清閑貞節하며 守節整斉하여 行已有恥로 動静有法함이 是謂婦德이라

2曰 婦言이니, 不必辯口利辞也오, 擇辞而說하며, 不道悪語하여 時然後에 言하되 不厭於人이 是謂婦言이라

3曰 婦容이니, 不必顔色美麗也오 盥浣塵埃하며 服飾鮮潔하여 沐浴以時로 身不垢辱이 是謂婦容이라

4曰 婦功이니 不必工巧過人也오 専心紡績하여 不好戲笑하여 潔斎酒食으로 以奉賓客하니 是謂婦功이라」하고 있다.

그리고 孝親하는 며느리로서

「子甚宜其妻이나 父母不說이면 出하고 子不宜其妻나 父母曰是善事我라

하면 子行夫婦禮焉하여 沒身不衰하라」하여 父母만 좋아하면 며느라는 내어 보낼 수 없었으며, 孝親의 原則으로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致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하라는 것이며, 「아내」로서는 男便에게 敬順忍從하여야 하며 「夫有再娶之義이나 婦無二適之文」으로 不更二夫하여야 하며, 夫婦의 琴瑟은 「敬愼重而後親之」하라는 것이며 「어머니」로서는 賢, 嚴, 義, 慈를 갖추어야 하며 孟母나 呂母나 伊川母를 따르라는 것이었다. (金智勇「內訓放」解說 延大)

3) 이와같은 極端的인 女性의 德은 社會的身分의 尊卑關係를 집에까지 끌어들여 男尊女卑의 思想으로 近代封建社會에서 特히 强調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第2次 世界大戰의 終戰과 더불어 8.15 光復을 맞은 우리에게는 民主主義體制의 導入으로 女性의 社會的 進出이 顯著해지고 그 地位도 상당히 높아졌다.

儒教의 영향이 支配的이었던 지난날의 家父長制下에서는 "忍從"을 그 德으로 삼아왔다. 그리하여 女性은 人格을 가진 存在라기 보다는 男性들의 性의 對象이요, 家系를 이을 後孫을 生産해주는 道具에 不過하고 집이라는 것은 창살없는 監房과도 비슷했다.

더우기 李朝時代의 女性은 地位는 오직 義務뿐 權利는 賦與되지 않았고 어려서는 父權, 結婚後에는 夫權에, 男便이 死亡한 後에는 子權에 服從해야만 했다.

그러나 解放後에는 憲法이나 여러가지 制度改革에 힘입어 家族內에 있어서도

舅姑에 대한 子婦의 權利, 人格의 主張과 主婦勞動의 再認識, 經濟的獨立등으로 「분수」만을 지킬것을 强要받던 女性으로 부터 生活을 支配하는 女性으로 成長하였으며, 家事勞動의 輕減과 生活의 便益을 위한 耐久財의 普及은 女性地位를 현저하게 向上시켜 왔다.

從來의 身分이나 階層秩序로 부터 解放되어 制度的으로도 兩性의 平等이 强調되어온 結果, 女性들은 크게 社會에 進出하게 되어 女性의 學歷도 높아지고 職業女性도 많아지고 社會發展에의 寄與度도 높아졌다.

이와같이 女性의 地位向上과 發展이 女性의 役割을 增大시켜 오늘날 大衆社會化에 따른 個個人의 孤立化는 따뜻한 人間關係의 核으로서의 女性의 地位를 다시 높이는 方向으로 作用할 것이 豫想된다.

나. 아내로서의 道理

◦ 成長過程으로 말하면 女性은 「아내」가 되기 전에는 「딸」로서의 立場에 선다. 그러나 「딸」은 子息으로서 어버이의 子女일뿐 獨立된 存在라고 할수는 없다. 「딸」은 成長하여 結婚하므로 「아내」가 되어 어버이의 膝下를 떠난다. 女性은 「아내」가 되어야 비로소 女性으로서 完成된 人格이 된다.

夫婦의 사랑은 性愛를 기초로 한다. 夫婦의 道理는 그 感性的인 사랑을, 人倫的, 持續的인 사랑에 의하여 높아지고 夫婦의 和合을 實現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道德的 義務는 夫와 婦의 雙方에 걸쳐진 雙務的인 것이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아내」가 夫의 단순한 性愛의 對象이거나, 舊時代의 家族制度下의 경우와 같이 「아내」가 夫의 支配에 服從한다는 關係에 있어서야 人倫的인 사랑은 實現될 수가 없다. 夫婦란 相互人格을 尊重할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 男女2人의 閉鎖的인 關係의 夫婦의 關係를 正常的으로 維持하기 위해서는

貞操의 義務도 雙務的인 것이어야 한다.

◦ 權利는 平等하고 義務는 雙務的이라 하드라도 男女의 體力과 氣質의 相異는 역시 存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相異는 自己가 갖지 않는것을 相互補完한다는 關係에 있어서 必然的인 意味를 가져오는 것일뿐 自然的인 相異가 夫婦의 尊卑의 差別에 連結되어서는 안된다. 相補的인 關係에 있어서의 정답고 부드러움이나 慰勞, 日常生活上의 사소한 일에 까지 마음쓰는 表現은 「아내」의 道理에 合當한 것이고, 「지아비」가 家族의 經濟的인 全責任을 擔當하고 밖에 나가 일하는데 對하여 「아내」가 家庭에 있으며, 家事를 整齊하고 子女를 養育하는 役割을 다한다는 分業은 倫理的으로도 意義가 있는 일이다.

◦ 現代의 女性의 解放과 地位向上은 「아내」로서의 態度(姿勢)에 대하여 밝고 바람직한 結果만을 가져왔다고만 할 수는 없다. 考慮해야할 몇가지의 問題를 안고 있다. 女性이 人間으로서의 自覺을 깊게하고 地位가 向上되었다 해서 늘 「아내」에 대하여 支配的으로 말하려는 「지아비」와 부지런히 일할뿐 敎養을 높이려 하지 않거나, 혹은 家庭에 非協力的인 「지아비」에 대하여 「아내」가 强한 不滿을 갖는다던가, 經濟能力이 있는 女性이면 離婚하여 自活해 가는 길을 擇하기도 하고, 離婚하지 않고도 關心을 오로지 子息에게 쏟으면서 不滿을 解消시켜 「지아비」를 母子의 和合으로 부터 분제 삼지 않는다 하는 事例도 일어난다. 「아내」의 向上은 夫婦의 和合을 不安定으로, 때로는 破壞하기도 한다.

「아내」의 不滿은 人間으로서의 正當한 要求일때도 勿論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아비」는 恒常 「아내」보다 俊秀하여 「아내」를 引導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女性을 男性의 下位에 둔 思考方式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 되며, 夫婦의 和合의 意義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努力도 하지않는 未熟하고 怠慢한 態度라고 할 수 있다.

現代에서는 就業하는 女性(아내)이 많아졌다. 家族經濟의 必要에 의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高尙하고 意義있는 職務니까, 혹은 職務를 통하여 幅넓은 社會와 連結, 紐帶를 가지고 自己 敎養을 높이고 싶다든지 하여 「아내」가 希望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就業하는 「아내」는 의당 家庭과 職場의 雙方에 職務와 責任을 가지고 二重的인 負擔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지아비」와 그밖의 사람들의 理解와 協力을 얻어 順調롭게 繼續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더욱 더 「아내」 自身이 家族愛와 職務와의 <디렘머>에 빠져 스스로 苦痛과 煩腦를 겪는 일이 많다고 한다. 就業하는 「아내」는 二重的인 負擔을 어떻게 해서든지 遂行하겠다는 意慾은 女性으로서 過重한 것이므로 오랫동안 繼續하기는 困難하다.

다. 어머니로서의 道理

○ 「아내」는 子息을 낳고 「어머니」가 된다. 어머니의 子息에 대한 마음씨는 母性愛이다. 어머니는 姙娠과 養育이라는 긴 歲月을 子息과 密着되어 愛情을 가지고 養育해 간다. 母性愛는 自然的이며 無条件的이다. 이에 対하여 父性愛는 理性的인 사랑이며 保護者的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父性愛와 母性愛는 相補的으로 結合되어 子女에게 作用한다.

○ 子女가 어릴때는 어머니의 無条件的인 労苦를 아끼지 않는 사랑과 보살핌이 특히 必要하다. 그러나 올바른 教育에는 恒常 理智的인 作用이 随伴되어야 한다. 3歲까지의 사이에 人格의 基礎가 形成된다는 学者도 있듯이 이 時期의 教育은 重要한 것으로 젖(乳)을 먹이거나 衣服을 갈아 입히는 사이에도 어머니는 子女의 健康에 留意하며 清潔하게 保全하고, 正常的으로 発達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보살피며, 말을 가르치고 또 홀로 잘 살 수 있는 習慣을 기른다 든가 오줌, 똥을 가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여러가지와 礼儀 凡節을 가르치는데도 神経을 쓰며 配慮한다.

새로운 教育의 方針은 児童中心主義다 自由主義다 하여 이를 誤解하거나 또는 어머니의 盲目的인 사랑으로 인하여 子女들이 하는데로 放置하고 幼少年期의 礼儀, 凡節을 게을리 한다면 이것은 커다란 過誤를 犯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時期의 어린이 教育에는 어른들의 보살핌이 얼마나 重要한가를 알아야 한다. 그

렇기 때문에 어린이와 接触하는 機会가 가장 많은 어머니의 重要한 責務의 하나이다.

o 子女들은 점점 成長하여 밖에서 벗(親友)을 사귀게 된다. 子女를 자기 손에서 또는 温床과 같은 家庭에서 떠나게 되면 安全하고 礼儀바른 자기집에서의 凡節과 態度가 밖에 있는 벗 때문에 허물어지거나 誤導되기 쉽다는 危惧心 때문에 집안에서 어머니의 손이 미치는 節囲에만 오랫동안 머무르게 한다면 이는 適切한 教育이라고 할 수 없다. 子女는 成長하는 동시에 어버이의 곁을 떠나는 것은 成長의 必然的인 過程이므로 子女와 密着된 어머니의 自然的, 無条件的인 愛情이 強하다 해도 保護者, 助言者로서의 寛容있는 理性的인 愛情으로 変化하지 않으면 안된다.

o 집에만 있어서 教育을 높여줄 機会조차 갖지 못한 어머니가 成長해 가는 子女를 뒤따를 수 없어 教育에 完全히 無力하게 된다는 것은 子女에게 있어서 不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와는 反対로 教育熱이 높은 어머니의 教育過剰도 子女에게 반드시 幸福한 것이라고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例로 音楽, 舞踊, 피아노教育, 幼稚園과 国民学校의 遠距離 通学. 家庭教師, 심지어는 大学에서 就職, 結婚까지 子女의 人生航路의 〈레-루〉를 깔아 놓고 子女로 하여금 強要하고 있다. 자칫하면 自己의 人生을 責任지고 打開해 나아갈 能力을 잃어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思慮가 不足한 母性愛라고 할 것이다.

o 아들이 結婚하면 「며느리」와 姑婦의 関係가 形成되는데

従来의 家族制度下에서는 姑婦関係의 悲劇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있었다. 結婚과 同時에 夫婦中心의 새로운 家族을 이루는 現代에서는 姑婦関係의 어려운 問題들이 多少 緩和되고 있다. 그러나 늙은 老母만을 홀로 두고 아들 夫婦가 別居한다고 하면 어머니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허전함과 孤独이 掩襲해 올 것이며 그 夫婦도 非難의 対象이 될 수 있다.

姑婦間의 어려운 関係를 完全히 解決하기 위해서는 社会 全体의 思考方式과 生活様式의 変化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必要한 것은 男便이나 子息에게 全面的으로 依存하여 自己를 喪失하지 말고 오히려 積極的으로 그 精神과 生活의 充実에 努力하고 老後에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態度를 스스로 길러 간다는 마음가짐과 成長한 子息은 子息 스스로의 生活에 熱中할 수 있도록 놓아 두는 勇気와 理性을 갖는 일이다.

라. 딸로서의 道理

○ 딸로서의 道理는 子息의 道理와 아울러 子女들 相互間에 사이좋게 協力하고 友愛하여 어버이에 대한 敬愛의 精誠을 다하는 데 있다. 그것은 子女로서의 道理와 다를 바 없다.

従来에는 将次 家父長이 될 長男이 重視되어 精神的으로 物質的으로도 優待를 받으며 老後의 어버이의 부양과 未成年의 弟妹까지도 돌봐줘야 할 무거운 責任을 졌던 것이다. 오늘날 그러한 差別은 볼 수 없지만 어버이의 経済力에 制限이 있는 경우 딸의 大学進学을 留保하는 例는 아직도 흔히 볼 수 있다.

子女의 将来에 있어서의 어버이의 期待와 希望에도 差가 있다. 男児의 社会進出과 出世, 或은 豊富한 経済力으로 老後의 生活을 安楽하게 할 수 있도록 될 것이라는 期待를 하지만 女児에게는 다만 좋은 男便얻어서 幸福한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주기를 希望한다. 男女 다같이 幸福한 生活을 할 수 있고 各自 自己의 人生에 責任을 질 수 있는 人間이 되기를 区別없이 생각하는 어버이는 아직도 적은 것 같다.

이와 같이 男児보다는 軽視되거나 不利한 条件에 있다거나 하는 딸들이 不満을 품는 경우도 없을 수 없을 것이다. 女子로서 順従하고 家事에의 充実만을 教育받은 어머니가 딸에게도 그와 같은 教育을 시키려 할 때 새로운 教育을 받은 딸과의 사이에는 衝突이나 意見의 差異도 있을 수 있고 男女共学에서 男子에게 지지 않으려고 공부에 熱中하는 딸의 姿勢에 대하여 어머니는 女子답지 않다고 보고 야단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新旧世代의 思考方式의 対立을 避할 수 없겠지만 보다 重要한 것은 그 処理方式이다. 成長한 딸로서는 옛 생각, 낡은 생각이라고 反撥하거나 敬遠하지 않고 相互 理解増進에 努力한다든가 또는 낡은 思考方式을 가진 어머니를 慰労하고, 区区히 説得시켜서라도 새로운 方向으로 理解시켜야 겠다는 마음 가짐이 必要할 것이다.

成長한 딸은 아들보다 懐柔와 慰労로서 늙어서 孤独해진 어버이를 마음 가볍게 接할 수 있고 훨씬 効果的으로 対応할 수 있다.

마. 職業女性의 道理

未婚이던 既婚이던 職業을 가지고 밖에서 就業하는 女性이 많아졌다. 女性도 男性과 같은 職種에 従事할 수 있게 되었고, 地位의 昇進의 機会도 열려 있다는 利点도 큰 하나의 理由가 될 것이지만 同時에 成長한 뒤에는 自己의 生活에 責任을 갖는다는 女性 自身의 自覚이 作用하고 있다는 事実도 否定할 수 없다.

女性은 職場에 나감으로서 넓고 複雜한 社会와 接触하여 見聞을 넓히고, 教養을 높일 수 있고, 就業하는 男便에 대한 理解와 協力이 보다 잘 이루어진다. 그러나 就業女性에 있어 職場의 服務規律을 지킨다는 것은 男性과 같은 義務이며, 地位가 向上되면 그 責任도 또 무거워진다. 体力이 弱하다든가 家事에도 負担이 무겁다든가, 結婚할 때까지의 暫定的인 勤務라든가 女性이라 해서 責務를 게을리 한다든가 하는 일은 容納될 수 없다. 利点도 많지만 責任도 무겁다. 이것을 견뎌 내므로서만 이 새로운 道理는 굳어져 갈 것이다.

4. 道義와 教育

o 人間社会에 成熟者와 未成熟者가 있는 限 広義의 教育은 늘 어디에나 存在한다. (勿論 狭義의 道徳教育도) 참教育은 人間다운 人間의 形成 即 人格의 形成을 指向하는 것이다.

教育의 核心은 道徳教育에 있으며 스스로의 道徳的 生活이야 말로 最高의 自己教育이다. 이것을 前提로하여 特히 道義와 社会発展과의 関係에 言及하고저 한다.

가. 道義와 社会発展

1) 道義를 생각할 때 道義判断과 道義心情의 두가지 側面을 考慮해 볼 수 있다. 精神分析学이나 分析心理学의 用語를 빌리면 道義判断力은 氷山의 一角格이며 茫茫한 大海의 한 孤島格인 意識界의 한 機能에 不過하며 道義心情은 大海格인 無意識界의 機能으로 볼 수 있다.

道義心情의 発達에 가장 큰 影響力이 있는 要因은 宗教이다. 왜냐하면 人間의 가장 무서운 対象은 「죽음」이며 따라서 「죽음」에 대한 感情이 가장 強烈하기 때문이다. 또한 宗教的 感情은 一時的이 아니고 거의 永続的인 生活感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宗教는 人生観이 근거한 最高의 価値 体系를 形成해 줘서 人間의 社会的 行動을 그 価値体系의 틀 속에서 組織하게 한다. 예를 들면 花郎徒의 信仰体系는 花郎徒로 하여금 그들의 社会的 行動을 組織했다고 볼 수 있다.

人類文明의 初期에 우리보다도 後進했던 西洋이 오늘날 先進하고 富를 누리게 된데는 Max Weber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트>倫理가 資本主義発達을 可能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프로테스탄트>倫理의 特徵은 한마디로 勤倹하는 現世的 禁欲主義로 集約할 수 있는데 이 勤倹하는 動機力을 ① 富의 蓄積이 하느님의 恩寵의 表示로 救援이 預定되었다는 보다 강한 確信을 얻기 위해서 더욱 勤倹하게 했다는 것과 ② M. Weber가 말하는 「사회의 法律的 支配」가 資本主義 発達의 한 要件으로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富의 蓄積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강한 感謝心이 〈프로테스탄트〉로 하여금 그 恩寵에 報答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道具로서 하느님에 의해서 주어진 職業에서 最善을 다하게 한 心理的 動機力이 된듯도 하다.

여기에서 富의 蓄積에 대한 강렬한 感謝心은 강렬한 罪意識에 基因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清教徒들의 物質的 肉体的 享楽을 罪悪視하고 勤儉한 生活을 한 것은 이 강렬한 罪意識에 基因했음을 立証하는 좋은 例이다.

또한 「社会의 法律的 支配」도 이 강렬한 罪意識 때문이라고 類推할 할 수 있다. 그들의 職業倫理의 合理的 功利的 動機에서 보다는 하느님에 대한 『盲目的인』 義務感과 服従心에서 강한 遵法精神이 생겼으며 이 강한 遵法精神의 土台위에서 「社会의 法律的 支配」를 可能케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와 같이 基督教가 信者에게 罪意識을 涵養한데 反해 儒教는 羞恥意識을 涵養했다고 하겠다.

羞恥意識은 必然的으로 体面 지키기를 崇尙하여 儒教人으로 하여금 体面意識을 가지게 했다.

〈심볼〉투성이의 宗教를 欲求不満된 本能의 産物만이 아니고 健全한 人生의 発達을 위한 前望的 性格으로 볼 때 宗教가 道義発達의 한 중요한 変因이 된다고 본다.

또한 社会的 人性은 그 社会를 構成하는 個人들의 人性의 総合 以上의 것임은 明白하다. 왜냐하면 社会자체가 社会的 人性을 形成하는

데 중요한 変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個人이 한 社会의 文化속에 参与하는것 자체가 그의 人性構成을 形成하지 않는다는 事実에 注目해야 한다.

社会는 個人을 빼놓으면 空虛뿐이므로 社会的 人性과 社会的 変因도 個人의 人性発達의 変因을 빼 놓고 생각하면 空虛에 가깝다.

社会的 変因은 비록 停滞된 社会에서도 宗教的 変因보다는 훨씬 더 可変的이므로 一貫性이 적다. 前者는 経済的, 政治的, 学問的 심지어는 自然的인 条件에 의해서 많이 左右되거나 決定되는데 反해서 後者는 이러한 条件들에 의해서 別로 影響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社会的 変因은 人間의 集団生活 様式의 総体이므로 可変的일 뿐만 아니라 多分히 宗教的 変因의 産物이라고 할 수 있음은 M.Weber가 잘 論破하고 있다. 社会가 個人의 「算術的 合計」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即 社会的 힘은 個人의 힘의 算術的 合計 以上의 것이며 이 社会的 힘이 個人의 힘을 左右하거나 個人의 人性을 鋳造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도 事実이다.

그러나 이 힘도 앞에서 말한 宗教的 変因의 産物이라고 본 経済的 政治的, 学問的 条件들에 의해서 크게 左右될 뿐만 아니라 그것의 徹底한 変化는 文化型의 큰 変化를 可能하게 하는 宗教的 変因의 変化없이는 不可能하다.

3) 道義의 分類

앞에서 言及한바의 基督教人의 罪道義(罪文化의 社会)와 儒教人의 羞恥道義(羞恥文化의 社会)로 〈피어〉(Pier)와 〈싱거〉

, ,

(Singer) 는 이를 対比시켰다. 即 罪文化의 社会에서는 個人의 内面化된 規範을 위반하는데서 오는 受難을 당하지 않으려고 行動을 規制하며, 羞恥社会에서는 成人이 자기를 창피주는 다른 成員이 눈앞에 있을때만 社会의 規範에 合致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보았다.

또 〈볼〉(Bull)에 의하면 罪社会에서는 自律的인 良心이 罪意識에 찬 超自我의 모습으로 最高의 判断者가 되며 따라서 道義는 内示的 道義가 되며, 羞恥社会에서는 羞恥가 罪를 代身하여 個人이 自己를 自己의 内的 良心에서 보지 않고 他人의 눈에 나타나는데로의 自己를 보기 때문에 道義는 他示的 道義가 된다고 하겠다.

o 罪와 羞恥가 그 出処는 각각 다르지만 둘다 道義的 行動의 制裁가 되며 情意的 反応이라는 点에서는 같다.

〈리스만〉(Riesman)이 본 罪社会에 있어서의 道義는 内示的이고 羞恥社会의 道義는 外示的이라고 보고 人間의 社会的 人性을 道義的 行動의 合致様式에 따라 伝統指示的(tradition - directed) 内示的 그리고 外示的 人性으로 3分類하고 있다.

伝統指示的 人間은 自己意識이 事実上 없는 것과 같으므로 그가 属한 社会로 부터 自己를 分離시킬 機会가 거의 없기 때문에 社会的 人性은 판에 박힌듯이 社会의 形態 그대로 처럼 보인다. 그리고 内示的 人間은 강한 自己意識을 가지고 있어서 自己의 강한 希望과 目標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実現하는 것을 그의 義務로 생각하며 社会的 規範이 自己에게 깊이 内面化되어서 그것을 社会에 属하는 것이 아니라 自己 個人의 것으로 생각한다.

Riesman에 의하면 伝統指示的人間이 期待되는 行動規範에 合致되지 못했을 때는 羞恥感이라는 情意的 反応을 하고 內示的人間의 경우에는 罪感이라는 情意的 反応을 하며 他示的人間의 경우에는 不安感이라는 情意的 反応을 한다.

그리고 伝統指示的人間의 合致는 主로 年令, 性, 親族, 階級, 職業등 集団사이에 벌어지는 権力関係에 의해서 決定되며, 內示的人間의 指示力은 그것이 어릴때 父母들에 의해서 內面에 심어졌다는 意味에서 內面的인 것이라고 하였다.

또 Riesman은 人口와 産業의 팽창이 伝統에의 合致보다도 個人의 <이니셔티브>에 더 依支했다는 論拠로 內示性이 伝統指示性에 後続한다고 했고, M. Weber는 <프로테스탄트>倫理에 基因한 法律的 支配가 伝統的 支配에 後続한다고 主張한다.

Dur Kheim은 道義의 根源을 社会에 두고 社会의 法律의 段階를 넘어서 社会에의 愛着과 理解를 통해서 道義가 自律의 段階로 発展한다고 보았다.

o 특히 儒教文化圈 안에서는 体面喪失에서 오는 地位喪失을 두려워하며 人間関係에서 高度의 帰属性(ascription)이 있어서 自我의 発達을 어렵게 하고 있다.

4) 分析心理学에서는 罪의 動因이 超自我의 厳命의 違反에서 오는 処罪의 必要性에 의해에 일어난다고 보지 않고 心的으로 発達하려는 必要性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본다. 即 罪란 個人化(Individuation) 過程의 한 必然的인 現象으로 보면서 그 発生根源을 種族発達的인 次

元에서의 自我의 誕生에서 찾는다.

(個人化……① 広義로는 自我(ege)가 大我(self)에서 分離(deintegrate)되었다고 다시 大我에 再統合(re--integrate)되는 全過程을 가리키지만 ② 狭義로는 分離된 自我가 大我에 再統合되는 過程만을 가리킨다. ③ 集団価値로 부터 解放되어 独自的 価値를 創造해서 누릴 수 있다는 点에서도 個人化라고 할만 하다.)

最初의 人間이 知慧를 얻으려고 禁止된 善悪果를 마음대로 따먹고서 부끄러움을 알도록 自意識을 가지게 되었으나 楽園으로부터 追放되었다는 神話的인 表現에서 罪의 発生根源을 찾는다.(基督教에서)

人間이 神을 拒逆하고 自由할때에 罪가 시작되었다는 神学的인 表現을 分析心理学의 用語로 바꾸면 自我가 大我(心全体-意識, 無意識包含)에서 分離될 때에 罪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5) 神의 誡命 또는 律法이나 이것에 縁由한 罪意識, 그리고 他人의 耳目이나 이것에 縁由한 羞恥心 或은 人道나 이것에 縁由한 自愧心등에 의해서 道義的 行動이 決定된다면 그 主体는 厳格한 의미에서 『他律』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o 外部의 権威가 주는 律法과 制裁를 超越해서 스스로 立法할 수 있는 自己立法者가 될 때 『他律』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o 羞恥感이나 罪意識을 超越해서 한 絶対的인 当為感에서 行動하며, 行動하지 않을 수 없을 때 道義의 水準은 높아진다.

o 最高의 道義는 人本主義的 良心에 土台한 道義이다.

o 罪意識과 羞恥心은 善惡과 愛憎의 範疇(Fromm)를 벗어나지 못한 狀態의 兩極사이에서 같등狀態를 超越해서 真正한 自己愛에 立脚한 生活을 할 때 사랑과 仁은 저절로 된다.

即 善惡과 愛憎사이의 갈등을 超越하려면 이것들은 모두 包容하는 大我에 到達해야 하며 權威와 律法을 超越하여 오직 안으로 부터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남은 것은 오직「사랑뿐이다.

o 善惡의 槪念도 愛憎의 槪念과 마찬가지로 価値 感情에 土台한다.

o 人本主義的 道義를 가진 사람은 真正한 自己愛를 위해 自己가 立法하고 行한다. 一切의 誡命, 律法, 耳目, 風習등을 超越해서 오직 自己愛를 追求한다. 그러나 그는 이미 非自我도 自我化하는 自我意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自己愛가 곧 宇宙愛가 된다고 볼 수 있다.

o 善惡의 兩極을 동시에 包容했을 때 善惡, 義不義의 相対的 槪念을 超越하는 最高의 善. 即 사랑으로 止揚한다. 오직 사랑에 의한 道義心情으로 行動하며 羞恥, 罪意識등의 權威에서 解放된 当為感에서 行動한다. 여기서 一視同仁의 道義的 人格은 完成된다. 여기서 自己愛가 宇宙愛요, 사랑이 곧 삶이며, 삶이 곧 사랑이 된다.

나. 道義類型別 特性

1) 羞恥道義를 가진 사람은

(1) 自我의 未発達때문에 自己가 属한 集団에 自己를 同一化해서

集団利己主義에 빠져 集団的 罪悪을 犯할 傾向이 많다.

(2) 有名 또는 匿名의 支配者에 合致되어 罪意識도 羞恥感도 없이 群衆心理에서 罪悪을 犯하기 쉽다.

(3) 이 集団利己主義는 必然的으로 分派主義를 낳으며 이 分派主義에 의한 派争에서의 敗北는 바로 自己喪失을 뜻하며 승리는 바로 삶의 目標가 된다.

(4) 恒常 他人의 危脅속에 있는 그는 他人의 支配征服이 삶의 成功을 의미하며 幸福感의 源泉이 된다. 他人은 友軍이 아니면 敵으로 看做되어 敵과의 싸움에서 心的에너지가 浪費된다.

(5) 그러나 이 싸움은 正面的인 싸움보다 裏面的인 謀陷, 中傷謀略이 되는 傾向이 많다. 正面的인 싸움은 体面維持에 관계되므로 겉으로 体面을 維持하면서 集団利己主義에 立脚하여 싸움을 한다.

(6) 이 集団利己主義에서는 集団의 目的이 어떠한 手段도 合理化하며 目的価値만 考慮될 뿐이며 手段価値는 考慮되지 않는다.

(7) 이와 같이 羞恥道義는 本質的으로 社会関係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삶이 社会関係의 울타리를 넘어가기 어렵다. 왜냐하면 「非常한」 行動은 羞恥의 制裁를 받기 때문이다.

(8) 그리하여 羞恥道義를 가진 사람의 삶은 社会関係에 心的에너지를 많이 써서 社会関係의 成功에서 幸福感을 얻으려고 한다.

2) 罪道義를 가진 사람은

(1) 自我가 비교적 発達했기 때문에 自己를 集団에 合致시키기 어렵다.

(2) 모든 行動의 結果는 自己 個人이 責任을 지게 되며 여기에 따른 罪意識은 社会関係에서 罪悪을 犯하기 어렵게 한다.

(3) 그가 믿는 基督教의 本質的 性格때문에 他宗教人 또는 他宗教 民族에 대해서는 강한 功擊性, 征服性을 드러낸다.

(4) 그는 神의 道具로 自処하여 自然을 征服할 召命感을 가지고 神의 創造의 神秘를 探求하기 위한 学問, 특히 自然科学에 献身하게 했다. (Max. Weber)

(5) 社会関係에서의 勝利에서 成功感, 幸福感을 얻지 않기 때문에 『立身揚名』에 焦心할 必要가 없다.

(6) 罪意識에 불잡힌 그는 神과의 関係 改善에서 幸福感을 얻기 때문에 徹底한 遵法, 人権尊重, 社会奉仕에의 献身, 富의 蓄積, 学問을 통한 真理探求, 慈善事業 그 밖에 宣教活動에 専念한다.

(7) 그는 人本主義的 道義를 누리기 어렵다. 그것은 「사탄」과 「사탄의 使者」를 神国의 敵으로 보기 때문에 善悪의 両極 概念을 超越하는 最高의 次元의 사랑을 하기가 어렵다.

※ 歷史的으로 나타난 異端者에 대한 迫害, 宗教戰爭, 他民族에 대한 攻擊性, 征服慾등이 이것을 잘 証明해 주고 있다.

3) 人本主義的 道義를 가진 사람들은

(1) 他人과의 不和, 敵対感이 있을 수 없다. 高度로 発達한 自我意識이 非自我도 自我化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形態의 利己主義도 있을 수 없다. 即 衆生의 마음이 내 마음과 同一化된다.

(2) 仏教人의 永遠廻帰的 循環的 人生観은 人本主義的 道義에 到

達하는데 有利하다.－(基督教의 一回的, 直線的인 人生觀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3) 絶対者의 審判台 앞에서는 切迫感이 없으며 스스로 最高 善으로서의 慈悲 即 사랑을 創造할 수 있는 『삶의 余裕』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悪』에 대한 조급한 攻擊性이 없다.

(4) 그는 社会関係에서는 不和, 敵対感, 支配慾은 없으나 이것이 征服慾이 강한 民族에게는 弱点으로 利用되어 征服되기 마련이다.

(5) 向外的 攻擊 및 征服이나 物質的 享樂에 삶의 満足感을 얻지 않기 때문에 物質的生産, 自然科学, 社会改造 같은 것이 念頭에 없으므로 物質的으로 貧困하고 社会発展이 어렵다. 또 何内的으로 懶怠하고 無気力하기 쉽다.

(6) 그는 무서운 罪悪을 낳는 個人 또는 集団利己主義로 부터 解放되어 마음의 平静을 삶의 目標로 삼고 있다.

다. 道義発達의 段階와 道義教育

o 道義는 多義的인 槪念이므로 人性発達에 따라 달라지는 価値感情과 함께 変한다. 그 意味를 크게 두가지 側面으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児童의 発達段階에 適合하고 一般的으로 받아들여진 行動法典(주어진 行動慣習에 合致)을 의미하고 하나는 보다 善한 生活을 追求(価値創造)함을 의미한다.

o "콜버그"(Kohl berg)는 道義発達의 段階를 ① 服従 및 処罰指向性의 段階 ② 순진한 自己中心的 指向性의 段階 ③ 착한 사람이 되는 指向性의 段階 ④ 権威 및 社会秩序維持 指向性의 段階

⑤ 契約的 律法的 指向性의 段階 ⑥ 良心 또는 原理指向性의 段階 등 6段階로 分類하여 그 特徵을 說明하고 있다.

o "케이" (Key, W - 1968 英国)는 道義의 發達에 있어 兒童의 個体發達이 人類의 種族發達을 「反復」한다는 이른바 「反復說」을 받아 들여 ① 禁忌段階(taboo stage) ② 律法段階(legal stage)의 個人化 過程의 前半期와 ③ 相互性段階(reciprocal stage) ④ 社会性 段階(social stage)의 個人化 過程의 後半期등 4段階로 分類하고 있다.

1) 人間関係에서 보다 나은 価値를 創造해 나가는 過程인 道義의 發達段階를 Key의 4段階를 基準으로 考察해 보면 다음과같다.

(1) 禁忌段階

① 이 段階에는 意識이 처음으로 出現했을 때 意識의 核心인 自我가 非自我의 危脅에 싸여서 그의 生存을 위해서 조심성있는 行動을 하게 된다.

② 心의 非自我的 要素는 外部世界에 投射되어 社会的 環境뿐만 아니라 森羅万象의 自然環境 마저도 그에게는 危脅的이다.

③ 그의 周囲에 投射된 超自然的 非合理的 힘의 強圧 아래서 그는 向外的인 開拓은 到底히 不可能하며, 오직 環境에의 適応이 汲汲하며 또한 心의 慣性에 의해서 無意識의 状態에 鄕愁를 느낀다.

④ 그러므로 原始人은 조금이라도 非日常的인 現象에 대해서 「새로움에의 恐怖感」을 가져서 <타부>의 対象으로 삼으며 「좋고 있는 生活」을 한다.

⑤ 個体発達的으로도 幼児는 睡眠時間이 아주 길고 特異한 自然現象 특히 動物이나 환상적인 『인물(도깨비 등)』에도 엄청난 危脅을 느낀다.

⑥ 조그마한 별다른 行動에도 処罰을 聯想하는데 条件反射理論으로써는 説明할 수 없을 만큼 전혀 처음으로 해 보는 行動에도 処罰意識을 가지는 傾向이 있다.

⑦ 父母나 教師가 무엇을 「하지마라」고 하면 그 까닭을 모르면서도 그것을 〈타부〉視하는 傾向이 있다. 그리고 그 〈타부〉는 原始人의 경우처럼 伝染되어 普遍化하는 傾向도 있다.

⑧ 精神分析学이 방어적 同一化의 概念으로 父母의 超自我 그 자체가 同一化의 対象이 된다고 説明하는 것 처럼 그의 原初的 父母가 父母에게 投射되어 그들을 엄청나게 怯내기 때문에 그들이 禁忌시키는 것이 쉽게 〈타부〉가 된다.

(2) 律法段階

① 禁忌段階에서의 〈타부〉들이 法典化 된다. 〈타부〉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禁制된 慣習과 伝統이 法典化됨으로서 禁制的인 律法이 된다.

② 그러므로 律法段階는 禁忌段階의 延長으로서 集団生活이 보다 組織化, 複雑化됨에 따라 왔다.

③ "모세"의 십계명의 다섯번째의 "父母를 恭敬하라"는 것을 除外하고는 분명히 禁制的인 律法인데 반해 儒教는 性善説에 기초했기 때문에 消極的인 禁制보다는 積極的인 励行을 더 強調하고 있는

것은 매우 興味있는 것이다.

④ 個体発達的으로 이 段階에 있는 児童은 内在的 応報를 믿

(＊ Piaget, J. (1968) 6－12歲 児童과의 実験에서 이들은 分配的 処罰에 앞서 報復的 処罰을 믿게 되는데 児童이 非行을 했을 때 事物自体에서 일어나는 自動的인 罰을 内在的 応報라고 했다.)

기 때문에 非行의 度를 보는데서 道義的 現実主義를 벗어나지 못한다.

(＊ 児童이 価値 또는 非行을 判断할 때 外界의 客観的인 規則, 現象, 結果에만 執着하여 그것들의 内的인 意味, 動機, 目的은 念頭에 두지 않는 것을 Piaget, J.는 道義的 現実主義라 했다. 이것은 成人의 一方的 強制(賦課)와 児童의 自己中心的 知覚의 結合에서 일어난다고 그는 보았다. 道義的 相対主義는 이와 反対된다.)

即 그는 非行의 度를 보는데서 非行者의 動機 即 内的인 意図는 考慮에 넣지 못하고 오직 非行의 結果 即 外的인 事態 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의 認知的 能力이 自己中心性을 면치 못해서 남의 立場에 놓여서 생각할 수 있는 能力 即 相互性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⑤ 律法이 〈타부〉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動機로써도 그것을 위반하면 賠償的 処罰에 満足하지 않고 꼭 응징적 処罰을 要求 또는 期待한다.

⑥ Piaget, J.는 또한 認知的 能力에서 相互性이 없는 兒童은 真正한 의미의 協同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놀이(play)는 할 수 있으되 〈게임〉(game)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例…어린 兒童들은 「게임」을 하면서도 敗者는 없고 저마다 勝者이며 紛爭이 생길때 저마다 固執만 세우고 남의 立場에 서서 생각해 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게임」을 하는데도 些少한 変則도 용납할 수 없고 規定을 神聖不可侵的이라고 생각해서 거의 盲目的으로 遵守한다.

3) 相互性段階

前段階로 부터의 雄大한 発展을 意味한다.

① 이 때 부터 判断의 視野가 自己中心性을 脱皮해서 남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② 孔子가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고 말한 것이나 〃예수〃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로 너희도 대접하라(마태7 ; 12)」고 한 것은 自己中心性을 脱皮한 相互性을 강조한 教訓이다.

③ 孔子의 말은 禁制的이지만 그 精神은 儒教倫理의 肯定性에 비추어 보아서 積極的인 相互性을 勧奨하는 뜻을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이 相互性 段階의 特徴은 무엇보다도 律法이 消極的으로 解釈되지 않고 積極的으로 解釈되어서 그 律法의 精神이 具顕, 実践되는 것이다. (例 ; 〃예수〃가 安息日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安息日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마가2 ; 27)라고 말한 것은 이 特徴을 잘 나타낸 것이다.)

⑤ 이와 같이 律法을 逐字的으로 盲從하지 않고 그 精神을 体得해서 実践하는 것이 律法段階로 부터의 発展이다.

"예수"는 그전까지의 자질구레한 律法들을 위배함으로써 律法을 完成시켜서 信者로 하여금 律法의 桎梏으로 부터 解放되게 하였다.

⑥ 個体発達的으로만 人性의 発達을 研究하는 精神分析学에서 禁制的인 律法이 内面化된 것인 超自我가 점차로 自我理想에 의해서 代替된다고 본다. 即 積極的인 行動処方이 児童의 成長과 함께 消極的인 禁制的인 律法을 代替해서 道義的 行動의 動機力이 된다는 것이다(이것은 旧約時代의 律法이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에 의해서 代替된 것과 対比된다)

⑦ Piaget, J.는 이러한 積極的인 行動処方이 人間의 外部에 있지 않고 内部에 있다는 点에서 이 道義的 相互性이야 말로 自律道義의 決定的 要因이라고 본다.

⑧ 그러나 그는 이 道義的 相互性이 認知的으로 可逆的 思考를 할 수만 있으면 即 그의 이른바 具体的 操作段階에만 도달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처럼 보면서 이것의 動機力은 문제삼지 않는것 같다.

⑨ 이 段階에서 外部로 부터 주어진 律法을 固守하지 않고 그 精神과 趣旨를 体得하고서 그것을 相互間의 合意에 의해서 任意로 고칠 수 있다. 이 때의 相互間의 몇사람일수도 있고 全国民일 수도 있다. (契約的, 律法的 段階와 恰似)

4) 社会的段階(律法, 禁忌, 두段階의 組織化인 것 처럼 相互性段階의 成熟과 같음)

① 孔子의 『己欲立而立人하며 己欲達而達人』이란 말이나 "예수"의 「이웃을 네몸같이 사랑하라」하는 말은 이 社会的 段階의 道義의 完成을 말한다.

② 孟子가 「仁之端으로본 惻隱之心」은 아직 相互性 段階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으며 「仁」이 完成될 때 道義의 絶頂인 社会的 段階에 到達했다고 볼 수 있다.

③ 그런데 이 「相互性」의 成熟의 어려움은 孔子는 「無求生以害仁이오 有殺身以成仁」이라 했고, 仏陀는 「無我相」이라 했고, "예수"는 「죽어서 거듭남」이라고 한 말에 잘 表現되어 있다.

④ 이것은 바로 認知能力의 発達만으로는 即 自我의 意志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非自我的 힘이 있어야만 社会的 段階에의 到達이 可能함을 示唆하는데 이 말은 結局 個人化의 完成을 통해서만 可能함을 의미한다.

⑤ 얼핏 생각하면 이 社会的 段階가 社会律에 의해서 道義的 行動을 하는 即 道義的 社会律의 段階인 것 같이 보았고 또 他人指向的 合致에서 이 段階의 現象을 찾으며 여기서 個体発達과 種族発達이 서로 만나서 合一된다고 보고 道義의 極致나 絶頂을 近視眼的으로 보았다고 하겠다.

⑥ 道義의 完成은 결코 이러한 社会律에 있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超自我的인 非合理的인 権威의 内面化로써 되는 似而非 自律도 아니다. 그것은 宗教的인 色彩를 띠었다기 보다도 宗教的인 経験을 통해서만 可能한 사람, 「仁」또는 「慈悲」로써만 된다.

요컨대 그것은 「나와 남(社会)」의 区別이 없는 状態 即 「一視同仁」의 경지에서만 可能해 진다.

⑦ 이 「一視同仁」은 羞恥感이나 罪感등 일체의 外的 内的 制裁에서 解放되어서 〃자유로이〃行動하는 것이 바로 「欲心所欲不踰矩」의 경지며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함」이 되는 경지에 들어 갔을 때 可能하다.

相互性段階가 主로 認知能力의 発達에 의해서 律法段階로 부터 発展한다면 社会的段階는 전적으로 情意的 発達에 의해서 相互性段階로 부터 発展한다고 하겠다.

5) 4段階의 道義発達의 要約(個人化 過程과 対比)

① 이 道義発達의 4段階를 個人化過程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禁忌段階와 律法段階는 個人化의 前半過程에 해당되며 相互性 段階와 社会的 段階는 個人化의 後半過程에 해당 된다고 하겠다.

② 그런데 個人化 過程에서 自我가 自己十字架 受難을 당하는 것 即 「中」하기 시작하는 것이 決定的인 고비가 되어 人性発達의 重大한 転換点이 되는 것 처럼 相互性 段階로의 発展은 重大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発達된 認知能力에 基因함은 勿論이지만 이 認知能力에 따라 오는 感情移入 能力이 또한 重要한데 이 感情移入이 孟子의 惻隠之心이라고 하겠다.

③ 그런데 이 感情移入은 「非合理性」도 내포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自我의 機能이라고 볼 수는 없다. 仮令 映画를 보면서 눈물

짓거나 興奮하는데는 「心」의 「非合理的」機能 即 非自我的 部分의 機能이 作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感情移入 現象은 自我의 觀点에서 볼 때 非合理的이지만 非自我의 立場에서는 当然한 것이다.

④ 自我가 発達하지 않은 原始人은 自我와 外界와의 区別이 不明確하기 때문에 所謂 神秘的 同体感을 가지는데 그것은 自我의 「合理化」機能이 없는 原初的인 一体感이다. 그러므로 一体感은 反省的 思考를 할 수 없는 原始人의 「無意識的」「有機体的」인 一体感이기 때문에 非合理的일뿐만 아니라 道義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反面에 相互性段階以後의 感情移入現象은 비록 그 機能에 있어서는 非合理的이기는 하나 그 対象과 自我를 区別할 수 있기 때문에 「意識的」이며 「道義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相互性段階 以後의 「一体感」이야말로 비록 그 動機力은 非自我의 非合理的인 힘이지만 自我의 合理的인 認知能力에 土台하기 때문에 「合理化된 一体感」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비로소 真正한 即 높은 水準의 道義가 시작된다.

⑥ 그러나 相互性段階도 最高의 道義인 社会的段階로의 발달을 위한 土台에 불과할 뿐이지 그 自体가 道義의 完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o 말을 바꾸면 相互性段階에로의 発達은 自我의 발달에 크게 依存하지만 社会的段階의 발달은 自我의 自己十字架 受難을 끊임없이 하는데서 即 中庸하는데서 完成된다.

다) 道義發達段階와 道義教育과의 関係

① 禁忌段階

儒教的 伝統에서는 児童의 行動을 制約하는 超自然的인 힘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巫教的 伝統에서 조금 찾아 볼 수 있다.

o 儒教的 合理主義는 冠婚喪祭와 같은 儀式과 倫理,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하는 礼에서는 「合理化된」<타부>를 많이 発達시켰으나 그 외에는 <타부>를 잘 発達시키지 못했다.

o 우리의 家庭生活에서 어머니의 無分別한 溺愛와 아버지의 비교적 無関心은 児童의 禁忌段階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아버지의 平素의 「無関心」이 爆発的인 過厳으로 나타날 때 어머니의 無分別한 溺愛는 「역성들기」로 나타난다.

여기에 児童의 道義訓練에 있어서 父母의 基準이 不一致할 뿐만 아니라 서로 相殺되어 結果的으로 児童은 「엉석받이」로 자라게 마련이다. (똥, 오줌가리기나 男尊女卑 思想등 品行의 조심성 있는 行動発達저해)

o 児童의 非行에 대해서 即刻的인 反応으로 適当한 形態의 罰이 주어져야 그 罰이 超自然的인 힘의 投射로 보건, 단순한 条件反射의 理論에서 보건, "타부"가 形成 발달될 텐데 그러하지 못한 우리의 家庭生活의 道義訓練은 禁忌段階의 발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② 律法的 段階

o 우리의 儒教的 巫教的 伝統에서 超自然的인 授法者가 없으므로 우리의 宗教的 伝統에는 "타부"들을 法典化한 律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父母, 教師등이 부과하는 律法은 없을 수 없는데 그것이 児童의 道義訓練에 얼마나 이바지 하는가가 問題이다.

o 律法의 権威는 곧 授法者의 権威에 의해서 左右됨을 생각할 때 우리社会의 父母, 教師등의 権威가 어떠하며 따라서 그들이 주는 律法의 権威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o 儒教社会가 法治社会가 아니고 礼治社会라는 것 即 律法 대신에 礼가 있다는 것과 基督教의 십계명 같은 強力한 禁制的 律法이 없는 伝統속에서 그들이 주는 律法이 超自然的인 権威를 가진 律法이 될 수 없고 合理主義的인 礼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o 父母, 教師가 律法에 無条件的으로 服従하는 律法的 段階의 발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律法의 権威가 있을리 없다.

o 父母는 児童과의 約束을 지키지 못했을 때 거짓말로써 辯明하거나 或은 다른사람을 「거짓말쟁이」라는 表現을 쓰면서 弄談을 할 정도로 거짓말 하는 것을 「普通」으로 여기는 傾向이 있다. 거짓말 하는 것이 社会生活의 한 方便이 되는듯 하다.

o 児童期에 가장 사람과 信頼感을 주는 父母에게마저 속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不信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日常化하고 普遍化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o 教師가 주는 校則으로서의 律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는 学校에서의 試験不正行為가 얼마나 盛行하고 있는가를 알므로서 알 수 있다. 심지어 〈커닝〉을 한 것을 「애교」로 보면서 別問題視 하

지 않음을 볼 수 있다.

o 納得할 만한 理由없이 잘 지키지 않는 校則이 많음은 校則으로서의 律法의 權威는 그만큼 墜落되며 따라서 「물렁물렁한」律法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는 무엇보다도 教師의 校則에 대한 「물렁물렁한」態度가 주된 責任이라고 할 수 있다.

③ 相互性 段階

o 儒教에는 基督教의 律法과 같은 律法도 없거니와 律法을 再解釈하는 〃예수〃와 같은 存在도 없다.

그러나 儒教的 合理主義는 『律法』의 存在根拠를 合理化할 뿐만 아니라 自我의 認知 能力을 発達시킨다.

o 孔子의 「忠, 恕」思想에서 道義的 相互性이 잘 나타난다. 仁者의 属性을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이라고 한데서 그리고 儒教의 報恩思想에서도 道義的 相互性이 具体的으로 드러나 있다.

o 우리의 扶助, 賻儀, 契, 품앗이 等은 이 相互性의 具体的 表現이다. (例; 過度하게 왕성한 教育熱이나 法規解釈에서 明文의 定言的 性格을 外面하고 그 「精神」을 恣意的으로 解釈하여 結局은 我田引水格으로 그것이 解釈 운영되는 것은 이 相互性의 変態的 発達때문이라 하겠다.)

o 우리는 흔히 값싼 同情心이 公秩序를 어지럽힘을 볼 수 있다. 教授의 同情心에 의해서 学点을 주는 傾向은 大学에 入学만 하면 이럭저럭 卒業하게 된다는 것이 韓国大学의 한 特徵을 만들었다. 公職者가 人情에 휘감겨서 公私無別이 되는 現象도 흔히 보는데 이

것은 모두 惻隱之心의 「過多」 即 道義의 相互性 段階의 変態的 発達 때문이다.

o 相互性 段階가 変態的으로 발달한 까닭은 이에 先行하는 律法的 段階의 不実때문이다.

基督教人의 律法段階의 健全에 比해 우리는 不実했기 때문에 公務가 情誼에 의해서 左右되며, 法規가 얼마나 賤待받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相互性段階가 不健全하게 발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④ 社会性段階

o 이 段階의 「完全한」 발달은 아주 어렵지만 「다소」의 발달은 基督教社会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우리社会에서는 거의 없는것 같다.

o 基督教人은 비교적 쉽게 倫理의 血肉性을 일지감치 脫皮할 수 있고, 同信者 集団内에서는 이웃을 「내몸같이」는 사랑하지 못할망정 제법 「社会化」된 이웃 사랑함을 볼 수 있다. 거기에는 血縁階級, 性. 国籍, 知面与否등을 초월해서 다 같이 選択받은 天国市民으로서의 이웃사랑을 자주 볼 수 있다.

o 우리의 倫理는 血肉性의 制約때문에 社会的. 段階는 매우 어렵다고 보아 진다. 宗教的 再生의 経験을 통해서만 可能한데 이 経験이 없는 우리가 体面과 같은 外的인 制裁와 血肉의 制約性에 얽매여서 内的인 解放을 통한 道義의 「社会化」에 미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o 우리나라의 基督教人들은 파당의식 때문에 같은 神을 信

仰하면서도 信仰方法의 差異를 핑계로 基督教 倫理를 『血肉化』해서 宗派간에 강한 排他性, 심지어는 敵対性을 품는다. 이 때문에 道義의 社会化가 그만큼 더 어렵다고 하겠다.

라. 道義教育의 方法

1) 基督教社会에서는 道義教育에서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는 주로 젊은 世代의 환각제 사용에서 오는 道義的 破産의 現象이며 또 하나는 非合理的인 過厳한 超自我에 의한 神経症的 現象이라 하겠다.

이 社会의 道義問題는 과도한 罪感이 한 特徵이 있으며 따라서 이 過度한 罪感에서 解放되어 真正한 正義의 原理에 좇아 道義的 行動을 하게 하는데 道義教育의 力点이 주어져야 한다.

o 우리社会의 道義는 儒教的 身分社会에서 발달한 羞恥道義의 水準을 넘지 못한데다가 身分社会에서 大衆社会로 変遷함에 따라 羞恥道義의 土台마저 상실되어 羞恥道義마저 弱化되어가는 実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罪感을 強化하느냐에 道義教育의 力点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内面化된 価値基準에 의한 罪感의 不足은 公職者의 非行을 監査하는 사람을 또 監督해야 하는 現象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o Key는 成熟된 道義를 네가지로 説明하고 있는데 ① 남에대한 純粋한 관심인 利他心 ② 道義的 規定 및 原理의 合理的 評価인 合理性 ③ 道義的 行動의 結果를 항상 생각하는 責任性 ④ 自律性인 道義的 独立性이다. 이 네가지 準拠는 모두 그 動機力을 前提하고

있다. 即 道義의 消極的側面만을 생각해 보면 남에 대한 嫌惡心, 道義的規定 및 原理를 非合理的으로 評価하고 싶은 欲求, 道義的行動의 結果에 無関心하는 習性 그리고 外部의 強制가 없으면 非道義的行動을 하고 싶은 衝動등을 抑制하는 動機力을 前提하고 있다.

◦우리의 道義教育의 第1次的関心은 이 動機的要因으로서의 生感情(rawfeelings)의 開発이 急先務인데, 이 生感情은 주로 罪感에서 찾게된다.

이러한 우리의 戦略은 참다운 家庭生活과 참다운 信仰生活에서 第1次的인 努力이 傾注돼야 한다.

• 不幸히도 韓國基督教는 信者의 信仰生活과 나아가서는 家庭生活을 통하여 우리의 道義教育에 크게 이바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巫教的心田에서 자란 基督教는 現世的인 健康, 長寿, 幸福에 耽溺하는 幸福主義(Eudemonism)의 色彩를 띤데다가 "예수"의 「이웃사랑」의 가로침을 外面하는 極烈한 派争性과 排他性은 儒教的合理主義者인 우리에게 伝教되기가 매우 어렵다.

◦韓國의 基督教가 家庭生活에서는 『儒教化』되어 있고 信仰生活에서는 『巫俗化』 되어 있다는 基本 前提아래 빨리『脱儒教化』하고 『脱巫教化』해야 참 基督教人이 될 수 있다.

※ 親子関係의 吟味와 『愛情撤回』

母(地的— earthly)→創造의 素材—(陰)〈融合的 情意的〉女中男

父(天的— beavehly)→創造의 原動—(陽)〈分離的 理智的〉男中女

※ 儒教的家庭에 있어서의 「慈母」「嚴父」등 思想과 大家族制度의 生活에서의 教養観 礼節観등을 吟味하면서 現代社会의 特性과 比較検討할것.

◦얼핏보기에는 儒教社会의 아버지가 子情의 노골적인 表現없이 謹厳, 또는 過厳한것같이 보이지만 실은 陽의 原理에 비추어 보면 厳하지 않다. 마치 太陽이 모든事物에 区別없이 비치는것 처럼 陽의 原理에 따르는 倫理와 道義는 普遍性을 띠어 二重性이나 仮面性이 있을 수 없는데도 (儒教社会의 価値를 特히 倫理的価値에서 対内, 対外에 따라 각각 다른 二重的 標準을 가지며 이러한 文化에 適応하기 위한 体面의 発達이 仮面人性을 発達시킨다고 보는 경우)있다는 事実은 아버지役割이 不充分했거나 참 厳하지 못한 때문이다.

◦儒教社会에서는 対内倫理로서의 家門倫理는 발달했으나 対外倫理로서의 社会倫理는 발달할 수 없었다.

万一 普遍的인 社会倫理가 存在한다고 想定한다면 家門倫理와 社会倫理의 相馳性때문에 両立하기 어려울것이다.

※ 儒教人은 子息을 「全的으로」 自己의 所生, 即 所有物視하기 때문에 子息의 조그마한 不恭도 그에 대한 「全人的인 挑戦」으로 받아 들이기 쉬우므로 그의 体罰이 感情的 報復性을 띨 蓋然性이 높다.

◦한국의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가 되는 理由는 子息의 成長期에 律法授与가 厳格해서가 아니고 大家族制度에서의 孝의 倫理가 子息을 영원한 児童으로 만들면서 去勢하는데 있었다고 하겠다.
陽의 原理에 의한 律法授与의 점에서는 무서운 아버지는 커녕 오히려

「물렁물렁한」 아버지라고 해야 옳을것 같다.

陰으로서의 한국의 어머니는 사랑의 過度 때문에 道義 발달이란 点에서 어머니役割을 그르치듯이 陽으로서의 아버지는 사랑의 不足때문에 또한 아버지役割을 그르치는것 같다.

◦道義教育에서 우리의 時急한 当面目標는 道義発達의 動機的 要因인 生感情의 발달이며 이중에서도 不安을 그 内容으로 하는 罪感의 발달이 重要함은 前述한바와 같다.

不安神経病이나 精神病의 症勢로 나타나거나 犯罪心理의 한 要因이 되는 그런 「非合理的」인 不安感이 아니고 合理的이라고 判断된 律法을 위반했을때 느끼는 不安感, 이것이 우리가 노리는 生感情인데 이것을 느낄 수 있는 人情을 가리킨다.

◦우리의 学校 状況에서는 教師의 愛情의 分配와 撤回가 学業成果에 따라 児童의 教師와의 愛情関係를 거의 全的으로 左右하면서도 児童의 集団生活上의 品行은 教師와의 愛情関係와 거의 無関한것 같다.

이것은 道義的 발달은 疎忽視하고 知的발달에만 거의 専念하는 非全人的教育의 당연한 帰結이다.

児童에게는 社会를 代表하는 教師의 価値観이 全人的 発達에 보다 知的能力발달에 置重하므로 児童의 価値観도 그렇게 同一化하는것도 당연한 帰結이다.

要컨대 品行에 대한 児童의 価値感情이 희박한것은 教師의 愛情의 分配와 撤回가 児童의 品行에 의해서는 크게 左右되지 않기 때문이다.

◦ 우리社会의 教師는 学生의 試験不正行為를 한 「애교」로 볼 만큼 『물렁물렁한 教師』다. 同一化의 対象으로서의 스승이라기 보다 『글쟁이(知識商人)』로서의 価値가 圧倒的으로 크기 때문에 都市에 있는 教師는 흔히「教師의 権力」을 利用해서 取財致富하기를 일삼기도 한다.

学父母가 児童이 듣는데서 그 教師를 비난하는 理由도 여기 있으며 이 때문에 学校에서의 道義教育은 더욱 어려워 진다.

◦ 教師의 道義性의 問題는 教師養成機関에서의 道義教育과 教育行政体系의 道義性과 密接한 因果関係에 있으므로 教師養成教育哲学의 定立問題와 教育行政体系의 道義性問題까지로 問題로 提起하지 않을수 없다

4) 우리社会의 道義的状況은 너무나 慨歎스럽다.

『近代化』의 물결이 道義的障碍物에 걸려서 그 前進이 遅滞되는 現象을 体験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은 하면서도 그 解決方法으로서는 律法의 強化와 그 硬直的인 執行이나 羅列해 놓는것을 能事로 삼으며 다른 教育的 努力을 諦念하는것 같다.

오늘날 主体性教育과 國民倫理教育이 高調되고는 있으나 그 方法은 具体的으로 提示되지 못하고 있다.

主体性教育은 우리의 民族的 自尊心을 涵養하고 民族利益에 損傷되는 行動에는 강한 罪感을 느끼게하는것이 目標이고 國民倫理教育은 이 目標에다 民族과 社会의 利益을 위한 奉仕心 即 그것에 대한 価値感情

의 발달이 더한 것이라고 하겠다.

即 主体性의 涵養도, 國民倫理의 발달도 모두 個人의 道義教育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不可能하다. 이러한 道義의 重要性과 道義問題의 深刻性, 切迫性을 생각하면 德目을 説教하는 程度의 安易한 方法에만 依存해서는 안 될 것 같다.

◦道義는 知識이 아니다. 知識과 知的能力이 바람직한 価値感情과 그 動機的 要因을 同伴해야만 道義가 제구실을 한다.

知識과 知力은 説教의 方法으로 발달시킬 수 있지만 価値感育과 그 動機的要因은 그러하지 못한데에 道義教育의 어려움이 있다.

説教는 道義的破産者나 偽善者도할 수 있지만 道義感情은 「道義的인」 사람만이 발달시킬 수 있다.

이것은 道義教育이 説教만으로는 不可能하며 「道義的인」사람과 함께 「삶」으로써만 可能함을 가리킨다. 이 삶의 感情的内容인 사랑과 그것의 撤回, 即 미움을 「道義教育的」으로 해야만 道義感情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要컨대 「말」보다도 「삶」에 의해서 道義教育이 可能하다함은 우리의 道義教育의 当面目標인바 道義발달의 動機的要因인 生感情의 발달은 德目들의 説教인 「말」로써는 可能하지 않고 家庭生活에서의 親子関係 그리고 学校生活에 있어서의 師弟関係에 있어 「愛情撤回」의 妙에서 찾아야 한다.

마. 教育的 人間像

1)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教育的 人間像이란 「멋 있는 사람」이니 「現代的 선비」,「謙遜한 能力人」;「韓國的 民主人」,등등으로 表現하고 있는데 本質的으로는 비슷한 特性을 지니고 있다.

◦教育的 人間像으로 말하면 時代따라, 地域따라, 그리고 想定하는사람(個人)에 따라 決코 同一한 것일 수 없다.
오늘날에 있어서 英國人이라고 하면 「紳士(Gentleman)」을, 美國人하면 「開拓者」. 中國「君子」 日本의「사무라이」를 聯想하듯이 韓國人 하면 「花郎」또는 「선비」, 를 생각할 수 있다.

• 教育史上 追求되었던 理想的 人間像을 비추어 보아 다음과 같은 特性을 들수 있을것이다.

① 愛國的人間-이것은「文化価値」와 関聯되는것인데, 民族主義教育思想은 愛國的人間을 強調했던것으로 이는 "예리한 歷史意識에 立脚한" 人類文化에 대한 敬畏心과 公正한 民族愛, 祖國愛를 지닌 人間이다.

② 汎愛的 人間-이것은 「生活価値」와 関聯되는 것인데, 自然主義教育思想이 汎愛的 人間을 強調했던것이다. 이는 身分의 差異없이 누구나 平等한 人間으로서 対한다는 생각이거니와, 愛國的人間이 時間性을 크게 意識하듯이 空間性을 意識하고 充実한 生活을 이룩하는데 촛점을 둔다.
理想的 人間像의 한側面을 항상 자기가 태어난 곳을 잊지않고 文化的, 歷史的, 社会的 土台위에 世界人으로서의 心性을 지닌 韓國的

世界人이 된다는 말이다.

③ 合理的人間-이것은 「知性価値」와 関聯되며, 主知主義教育思想이 合理的 人間을 強調했던 것이다. 이는 事物을 知的으로 處理할 수 있는 能力을 지닌 人間을 뜻한다.

合理的 思考와 公正性이 問題가 되는데 옛날 부터 先知後行이냐 知行合一이냐고 論難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知識의 구조를 비롯하여 訓練과 興味라든가 專攻과 教養과의 関係가 論議의 対象이 되고 있기도 하다

④. 教養的人間-이것은 「人格価値」와 関聯되는 것인데 人文主義(人格主義)教育思想이 追求해온 人間像이다. 이는 権威와 自由, 寛容性같은것이 問題되는데 社会正義의 良心과 豊富한 人間性을 基盤으로 지닌 人間이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良心的人間이니 洗練된 人間이니 多面的性格의 所有者니 할 人間的特性으로서 옛부터 많은 教育思想家들이 여러가지 形態로 주장해 온 것이다.

⑤ 労作的人間-이것은 「協同価値」와 関聯되는것인데 勤労主義教育思想으로서 協同의 原理가 무엇이며, 主導와 追従, 権利와 義務, 勤倹性, 職業과 社会発展등이 論議의 対象이 될것이고, 職業에 矜持를 지니며, 勤労愛護의 態度등을 지닌 人間이다.

⑥ 奉仕的人間-이것은 「奉仕価値」와 関聯되는것인데 福祉主義思想으로서 歷史的으로 상당한 期間 宗教主義教育思想이 追求해온 信仰的人間으로 넓은 意味의 「奉仕的人間」이다. 이는 "世界民主" 市民으로서의 社会連帯感과 人間에 대한 無限한 信頼感을 지닌人間이라고 하겠다.

◦ 이와같이 理想的人間像의 特性을 想定해 볼때 앞으로는 어느 한 特性만을 지나치게 強調하여 本意아닌 誤謬를 犯하지 않게 예리한 歷史意識위에 立脚하여 그들이 統合되고 그러면서도 各自 個性이 뚜렷한 『歷史的 意識人』, 『멋있는 사람』, 『뚜렷한 個性을 지닌 調和된 人間』의 養成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

2) 멋있는 韓國人의 形成

(歷史的意識人, 現代的선비)

◦ 韓國의 精神的風土와 韓國人의 性格을 土台로 하여 形成된 韓國人의 人間像내지 理想像인 「선비」에 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어辭典에 보면 ①옛날에 学識은 있으나 벼슬하지 않은사람 ②学德을 갖춘사람의 옛스러운 일컬음 ③어질고 순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등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階級的指称은 없고 「어질고 순한 사람」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理想的 人間像으로서의 共感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선비」는 学德이 兼備하고 端雅한 文士라는 뜻에서 나아가 修養된 能力人이요, 謙遜한 能力人인 동시에 職業의 如何를 불을것 없이 到處에 「멋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 그들이 곧 「선비」라고 想定할 수 있으리라 (居處恭, 執事敬, 与人忠→克己工夫→思無邪, 毋不敬)

※ 燕巖朴趾源의 両班伝, 許生伝.

※ 栗谷李 珥의 擊蒙要決

※ 許 鉉(教育学者)의 Sunbi of Old Korea

※ 趙芝薰의 선비의 直言 등 參照

(2)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하는 우리의 옛부터의 가르침은 韓國人의 理想的 人間像인데 現行 教育法에서 말하는「弘益人間」이 지닌 特性을 吟味하면 다음과 같다.

① 叡智性—「先人들의 業績에 敬虔하게 머리를 숙여 크게 배운다」는 뜻으로 국민교육헌장에 「祖上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에 해당되는 것으로 「歷史的 自我의 探究」가 필요하다.

여기에 「孝의 思想」과 「祖上 崇拜 思想」을 再吟味하여 「謙虛한 마음씨」를 우러나게 해야한다. 이 謙虛한 마음씨의 欠如는 「감사할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 버렸고, 이리하여 根源을 잊어버린 教育이 되고 있다 하겠다.

「孝思想」을 통하여 우리는 "鋭利한 歷史意識에 입각한 人類文化에 대한 敬畏心과 公正한 民族愛, 祖國愛를 지닌 人間" 의 特性을 키워야 할것이다.

또 教育法第2条에 「調和있는 社会生活, 和解 明朗한生活, 保健関係知識과 習性」 國民教育憲章에 「愛國愛族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라고 하여 「삶」(生活)이라는말로 「教育이 生活」이라는것을 強調하고 있으나 우리의 生活現実에 너무나 等閑視해온것도 事実이다. 結局 삶의 価値를 통해서 우리는 "世界的 雄飛라는 巨視的 眼目을 지니고 幸福한 生活을 營為하는 人間" 의 特性을 키워야 할

것이다.

② 寬容性—「自由라는 理念」에서 「自己位置와 使命을 直視하는것」으로 국민교육헌장에서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다하며」, 「自由世界의 理想을 実現하는 기반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知性과 人格이 함께 있다는 自由의 理念을 나타내고 있다.

이리하여 「나」(歷史的自我)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主体」임을 분명히 하고 教育的 価値의 「知性」을 「能率」「創意」「(民族의) 슬기」로서 국민교육헌장에서 「真理探究의 精神과 科学的 思考力의 培養, 合理的生活, 自由를 사랑하고」 하는 말로 教育法에 明示하고 있다.

우리는 教育을 통하여 合理的 思考, 公正性을 길러 「事物을 合理的으로 處理할 수 있는 能力을 지닌 人間」 의 特性을 키워야 할 것이다.

다음, 「聖, 健, 真, 善, 富, 美」등 価値中, 「善」에 해당하는 人格価値로서, 國民教育憲章에 「誠実한 마음」으로 教育法에는 「堅忍不拔의気魄」이라고 하고, 人格의 陶冶를 통해 「社会正義의 良心과 豊富한 人間性을 기반으로 지닌 人間」의 特性을 키워야 할것이다.

③ 雄健性—이것은 「秩序의 理念」에 해당하는 協同과 奉仕에 의하여 보다 나은 社会建設을 위한 実践의 次元으로서 국민교육헌장에 「새歷史를 創造한다」「公益과 秩序」「創造의 힘과 開拓의 精神」등의 말로 表示하고 있다.

여기에 「秩序」라는 말은 消極的인 의미의 法을 지킨다는 경우와 積

極的인 의미의 새로운 真理를 発見함으로써 새로운 秩序를 이룩해 간다는 두가지 意味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日常生活에서 法規範을 遵守함은 勿論 人類文化 発展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発見, 発明을 위한 積極的인 行動이 있어야 될 것이다.

「協同」의 価値를 教育法에는 「公民으로서의 資質」이라는 말을 비롯하여 「協同, 勤倹労作, 務実力行, 賢明한 消費者, 有能한 生産者, 責任尊重, 世界文化의 創造, 発展에 貢献, 創意的活動」으로 국민교육헌장에도 「協同精神, 創意와 協同, 國家建設에 参与하고 勤勉한 國民」등으로 表現하고 있어 「勤倹性, 協同性」을 통하여 「職業에 矜持를 지니며, 労動愛護의 態度를 지닌 人間」의 特性을 키워야 할것이다.

「奉仕」 価値에 관련되는것으로 教育法에 「人類平和 建設에 寄与, 信義, 崇高한 芸術의 鑑賞, 審美的 情緒의 涵養」으로 國民教育憲章에는 「公益, 奉仕하는 국민精神을 드높인다. 信義에 뿌리박은」등으로 表現하고 人間信頼에 기반을 두고 「人間尊重思想」과 連結지워 「弘益人間」으로서의 未来 志向的인 民主的 人間像으로 追究하는 教育的 人間像이며, 韓國的 表現임을 再吟味해야 할 것이다.

※ 李朝의 四端七情 論争에서

※ 新羅의 國学以来로 「論語」와 「孝経」을 必須教科로한 理由에서

※ 古朝鮮에서의 「八条禁法」에서

※ 東学의 「人乃天思想」에서도 크게 注目해야 한다.

人間의 基本的 特性과 教育的必要

教育価値	教育的必要	基本的人間性	教育的人間像
1. 文化	文化的伝統의 発掘, 継承発展	言語의 使用 文字의 使用 (記号의利用)	歷史意識에 立脚한 人類文化에 대한 敬畏心과 公正한 民族愛, 祖國愛를 지닌 人間
2. 生活	基本的 人間能力	身体의 初歩的 技術	世界的雄飛라는 巨視的 眼目을 지니고 幸福한 生活을 營為할줄 아는 人間
3. 知性	個人의 実際的 要請	構成的 活動	事物을 合理的으로 處理할수 있는 能力을 지닌 人間
4. 人格	個人의 理想的 必要	道德的 責任	誠実한 마음 가짐으로 社会正義의 良心과 豊富한 人間性을 지닌 人間
5. 協同	実際社会의 要請 (職業)	社会의 基本的 技術	職業에 矜持를 지니고 勤労愛護 倹素 節約의 態度로 社会成員으로서의 一体感을 지닌 人間
6. 奉仕	社会의 理想的 必要	社会性	公益優先과 社会秩序를 尊重하며 社会連帶意識이 투철하고 人間에 대한 無限한 信頼感을 지닌人間 (弘益人間)

注 ①韓基彦著 "基礎主義" 의 理論과 筆者의 私見을 統合 調整한것임.

바. 人間解放을 위한 教育

1) 오늘날 急速한 科学과 技術의 発展은 経済的인 生産力을 増大시키고, 이러한 힘은 人類歷史上 처음으로 人間을 모든 苦痛과 貧困으로 부터 解放시킬수 있는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다.

物質的인 精神的인 資源들은 이젠 거의 確実하게 数十年 안에 모든 人間들을 包含한 모든 社会들에 超過生産의 社会로 만들기에 充分하다고 하겠다.

生活水準이 向上되어가고, 또 労動時間도 短縮되어가고 모든 사람들의 精神的인 物質的인 需要들이 充足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다. 発展된 産業社会는 이러한 状態에 매우 接近해 가고 있다. 우리 社会는 그런 状態를 아직은 멀리 바라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러한 状態를 志向하고 있는 것은 事実이다.

至今까지 우리들은 不得已 抑制하고 断念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여러가지 人間的인 需要들이 이제는 삶의 自律性과 人間性의 全面的인 発展을 促進시키는 方向으로 充足될 수 있게 될 것이다. 即 社会가 그 秩序와 発展을 犠牲시킴이 없이도 모든 人間들이 自然的인 欲求를 充足시킬수 있게 될것이라는 말이다.

人間生活의 経済的인 保障과 不足한 必需物資의 分配가 必要없게 될 豊饒한 社会에서는 強圧的인 支配도 사라지고 自由롭고 平等한 人間들의 協同이 生存競争대신에 필요한 生活原則이 될 것이다.

人間解放 即 不合理한 支配와 疎外된 労動과 自然스런 欲求의 抑圧으로 부터의 解放은 社会構造의 改革을 통해서만 可能하다.

科学과 技術의 발달은 이러한 社会構造의 改革을 拒否하고 社会의 참다운 民主化와 人間의 참다운 解放을 妨害하는, 支配를 위한 支配를 貪하는 勢力이 尙存하고, 또 앞으로 強大한 抵抗勢力으로 남을것이다. 発展된 産業社会들은 現在 支配하고 있는 이러한 勢力들을 人間의 苦痛과 貧困을 除去하는데 利用하지 아니 하고 人間生活을 위해서는 直接 意義가 없는 다른 目的에 奉仕시키고. 모든 人間들로 하여금 그들의 生活水準이 向上되더라도 現存의 支配体制에 철저히 依存하게끔 만든다.

그들은 向上된 生産力을 人間解放을 위해서가 아니고 人間操縱을 위해서 利用한다. 오늘날 이러한 人間操縱은 人間生活의 거의 모든 領域에 미치고 있다. 政治生活과 個人生活뿐 아니라 労動과 餘暇, 消費生活과 家族生活, 그리고 性生活에 이르기 까지 따라서 教育의 모든 形式들 까지도 거의 操縱 当하게되어 가고 있는것이 現代人의 運命이다.

이러한 人間操縱은 社会組織, <매스, 콤> 娯楽体系등을 통해서 直接作用할 뿐만 아니라 成長하는 어린이들의 社会化의 過程을 통해서, 그리고 現在의 支配体制의 存続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行動規範과 行動方式들의 内面化를 통해서 더욱 効果的으로 作用한다.

産業社会는 現在의 支配体制의 存続을 위해서 모든 技術的인, 制度的인, 理念的인 手段들을 餘地없이 動員한다. 모든 経済的인 手段들까지 利用해서 人間의 深層 意識에 作用하고 그렇게해서 人間을 経済的인, 政治的인 目的에 奉仕시키려 하고 있다.

"아도로노"(Adorno)는 『經済的인 生産力의 向上은 一面에서는 正義로운 世界를 建設할 수 있는 条件들을 마련해 주지만 다른面에서는 技術的인 体制와 이를 掌握한 社会的인 集団에게 매우 優越한 能力을 賦与해서 大衆을 支配하게 만든다. 個人은 이러한 経済的인 勢力앞에서는 완전히 去勢된 存在에 不過하다』

以上과 같은 状況 即 科学과 技術의 発展이 人間解放을 위한 条件들을 마련할 수 도있고, 또한 人間操縦을 위한 道具가 될 수 도 있다는 状況아래서 万若 教育이라는 것이 단순히 体制를 擁護하기 위해서만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니고 人間의 成熟과 最善의 自我의 実現을 위해서도 이바지 해야 된다고 하드래도, 教育이 人間解放을 위한 어떤 하나의 政治制度의 実現을 말하는것은 아니다. 오늘날 科学과 技術의 発展에 의해서 増大한 生産力이 人間操縦을 위해서 利用되지 아니하고 人間解放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社会的인 条件들의 実現을 의미한다.

2) 発展된 産業社会에서 人間解放의 教育을 主張하는 사람들은 人間解放의 教育이 社会秩序의 改革을 위한 闘争에의 参与를 뜻하고 不合理한 支配와 抑圧과 操縦에 反対하는 闘争에의 参与라는 것이다. 여기서 改革이라는 것은 人間에 대한 人間의 支配가 끝나고 새로운 協同의 秩序를 建設하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人間解放의 教育은 그 社会안에서 어떤制度, 어떤構造, 어떤関係가 不合理한 것이고 非人間的인 것인가를 批判的으로 認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教育이야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어떤 社会構造가

人間의 自由로운 全人的인, 그리고 成熟한 発展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가를 알려 주어야 하고, 반대로 어떤 社会構造가 人間操縦과 "人間疎外에 대해서 責任이 있는가도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人間解放의 教育은 啓蒙主義的인 教育이라야 한다. 勿論 하나의 絶対的인 理想的 秩序라는것은 없다. 対話에 의해서 서로 補充할 수 있는 責任있는 思惟에 의해서 끊임없이 合理化될 수 있는 社会構造가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하버마스>(Habermas)가 <支配의 合理化>에 관해서 『오늘날 하나의 큰 危険을 造成하는 支配의 不合理性은 다만 一般的인 自由로운 討議의 原則에 의한 새로운 政治的 意志의 形成을 통해서만 克服될 수 있다. 支配의 合理化는 対話에 依存하는 思惟에 의해서 밑받침된 政治風土에서만 期待된다. 技術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知識의 思惟가 아니고 相互補完的인 批判과 反省의 思惟에 의해서 밑받침된 政治風土를 말한다』고 하였다.

3)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人間解放의 教育은 社会批判 그리고 政治参与와 不可避하게 連結되지만 언제나 成熟한 人間性의 発展은 成熟한 社会環境 안에서만 可能하다는 것을 前提하고 있다. 人間의 最善의 自我実現은 理想的인 社会構造의 実現과 더불어서만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韓國教育이 처해 있는 状況은 発展된 産業社会의 状況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社会는 過去와 같은 貧困의 悪循環을 겨우 免하려 하고 있다.
科学과 技術의 発展이나 経済的인 生産力도 先進國을 따르려면 아직도

멀다. 그래서 一般的인 社会生活과 教育에서 技能이 거의 絶対的으로 重要視되고 秩序를 위한 訓練이 要請되고 있다.

이러한 現実的인 与件속에서는 事実 人間解放보다는 아직 人間訓練이 教育의 当為性을 차지하고 있다는 우리의 現実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基本条件을 考慮해야 한다고 믿는다.

〔社会開発〕

첫째로 우리의 現実生活의 下部構造로서의 経済的基盤인데 万一 우리의 現実的인 社会生活이 貧困의 悪循環이라면 人間解放이란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教育은 祖國의 近代化와 産業化에 이바지하는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現在의 教育体制가 과연 祖國의 近代化나 産業化에 効率的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정도로 合理的이고 現代化되지 못하다고 하는데 問題가 있다.

오늘날 生産力을 위해 技能工이나 技術工学徒의 養成이 時急하다 하드래도 職業教育이나 技術教育은 一般教育의 体制안에서의 全人教育의 一部라야 한다. 아무리 技術教育이 要請된다고 해도 人力市場의 需要에 따라서 特殊한 技能만을 習得시키는 教育만으로 満足해서는 안된다.

科学은 人文, 社会, 自然을 包含한 하나의 巨大한 有機的인 体系이므로 全体를 発展시키지 않고 一部만 発展시키려고 하면 곧 限界에 부딪친다는 事実이다.

〔社会醇化〕

둘째로 우리는 経済発展을 위한 基盤을 이룩하고 生産力이 어느程度

伸長되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共同体意識이 社会를 支配할 수 있도록 社会構造의 改革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貧富의 隔差가 甚해져서 階層意識이 생긴다든지, 支配層과 被支配層과의 間隔이 벌어지고, 相対的 貧困意識 같은것이 움트게 되면 우리의 地政学的, 時代的状況을 考慮할때 매우 重大한 問題가 惹起될 수 있다고 보겠다.

굳은 共同体意識과 一体感만이 우리가 当面하고 있는 모든 難関을 克服할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自由로운 協同, 団合의 社会를 建設하는것을 可能케 한다.

따라서 참다운 共同体意識을 위한 教育이 곧 人間解放을 위한 教育이다.

従来의 人間教育의 理念은 人間을 하나의 個体的인 生命으로 보아 個人의 完成에 重点을 두어 왔지만 앞으로서 教育, 人間解放의 教育理念은 人間을 國家나 社会成員의 하나요, 社会의 아들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成熟되고 民主化된 社会에서만 成熟한 人間이 育成될 수 있으며 理想的인 社会構造 안에서만 人間은 그의 最善의 自我을 実現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社会道義의 確立

가. 社会의 類型

1) 「人間은 社会的 動物」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意味가 있다. 社会와 個人은 人間의 本質上 不可分하게 結合되어 있어 社会는 個人을 保護한다. 그러나 언제나 融合한다고 할 수 만은 없다. 個人은 社会에 反抗하여 背馳되는 自由도 갖는다. 個人의 反抗으로부터 일어나는 混乱에 対하여는 社会는 個人에게 制裁를 加하여 秩序를 回復하고저 努力하며, 이 対立을 克服한다는 뜻에서 社会는 個人에 対하여 強制力을 갖게 된다.

이런 面에서는 社会는 社会 以下의 個人을 強制的으로 社会의 水準에까지 向上시켜 그 構造에 맞추어 주는 威力있는 것이며 社会와 個人의 関係는 外面的이 된다.

그러나 個人은 社会生活을 強制받을뿐 아니라 스스로 自発的, 自律的으로 社会에 参与하는 面도 強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社会의 存在方式을 人間性의 立場에서 抑制하여 보다 나은 社会로 改造해 가는 것도 個人이므로, 그런 뜻에서 個人은 社会 以上의 것이 될 수도 있다. 個人은 社会에 관하여 社会 以上의 社会内의, 社会 以下의 関係에 서기도 한다. 現実社会는 이와같은 社会와 個人과의 関係로서 組織되어 움직여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自由를 누리는 人間은 늘 社会生活의 精神面, 物質面의 構造에 대하여 研究 考察하는 동시에 社会를 움직여가는 精神을 育成하려는 努力을 継続하는 社会的 動物이다.

그러나 複雜한 社会와 個人의 関係를 考察함에는 이것을 몇개의 主要한 傾向을 갖는 類型으로 分類하여 考察해 보는 것이 理解를 돕는다. 다만 現実社会는 여러가지 傾向의 複合体이므로 類型대로의 社会는 없으며 몇個 類型의 混合体이다.

類型에는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相互 密接하게 連関돼 있으므로 어떤 類型으로 좁혀 다루어 보면 자연히 다른 類型에도 接触하게 되어 여러가지 傾向의 特色을 捕捉하게 된다.

2) 社会類型의 代表的인 것으로서 自然的인 男女의 性, 血縁에 의한 家族을 原型으로 하여 民族에까지 펼쳐져 가는 「血縁社会」, 그것은 또 生活의 터전을 가까이 갖는 村落, 郷土 등의 「地縁社会」(共同社会)라는 形態가 있다.

이 社会는 人間의 自然의 共同性에 基因하는 것으로서 社会의 維持繁栄, 그 자체를 目的으로 하여 個人은 그것을 維持保全하는 手段으로서만 生存의 価値가 認定된다.

이에 対하여 個人의 意志, 判断을 主軸으로 하여 個人의 幸福, 自己完成의 要求를 充満시키도록 하는 個人間의 同意와 約束에 의한 社会, 即 契約社会라고도 할 수 있는 社会가 있다. 이것을 一般的으로 「市民社会」라고 한다. (共同社会에 対応하는 利益社会)

여기에서는 主로 「市民社会」에 대하여 重点的으로 言及하고져 한다.

国家는 民族的 血縁, 国土라고 하는 共同社会的인 面과 合理的 市民社会的인 面과를 総合하는 것이지만 現実的으로 国家는 보다 많은 共同社会的인 国家와, 보다 많은 市民社会的인 国家로 区別될 수 있을 것이다.

나. 融合과 自主独立

1) 共同社会는 自然的인 社会라고 하였지만 다만 本能的으로만 生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血縁, 郷土 등의 自然을 母体로 하면서, 이것을 純化시켜 보다 나은 繁榮을 願하고 있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歓喜, 悲哀등 情愛가 그 精神風土이다.

이와같은 雰囲気를 呼吸하는 사람들은 思考方式, 感情方式을 함께 하며 融合해 가고 있다. 여기에는 模倣의 心理가 社会를 支撐하고 있다. 社会는 여러가지의 習俗을 낳아서 社会的인 精神을 生成하여 生活을 <리듬>에 올려 놓는다.

個人은 이 <리듬>을 타고 信頼에 充満하는 安賭感을 가지고 그 속에 서로 마음을 풀어 놓고 친해져서 따사로운 同情, 相扶相助하는 情에 스며든다.

社会는 個人의 生活을 保証하며 그 恵沢이 充満하게 된다.

年長者, 強者는 慈愛로서 年少者, 弱者의 保護, 指導의 責任을 지고 年少者는 恩恵에 感謝하고 思慕의 情을 가지고 이를 따르게 된다.

여기에서는 個人(나)과 社会(公), 自己와 他人과의 区別은 明確하지 않으며, 하물며 対立, 争闘는 될 수 있는대로 避하며, 利害打算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人情이 社会를 潤沢하게 한다.

우리들이 共同生活을 営為함에 있어 이와같이 美쁜 人情은 확실히 生活을 부드럽게, 따사롭게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것이 어느 程度를 지나치면 그 雰囲気속에 무쳐서 個人性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

다. 公·私의 区別이 없는 곳에는 例를 들면 公職에 私的 情実이 介入되는 公·私의 混合이 일어나고, 自他의 区別이 없는 곳에 不必要한 干涉, 好意에 의한 強要가 일어나기 쉽다.

2) 情的인 社会에서는 合理性은 모가 난다고 해서 一般的으로 禁忌되고 어쨋던 情에 밀려 흘러가는 非合理的인 生活의 情性이 継続된다. 温情이 지나치면 不快한 湿気가 되어 生活을 좀먹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生活을 더욱 더 快適하고 透明한 合理性이 要求된다. 이 要求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個人의 自主性, 自由意志, 理性的 判断力의 正確함을 精神으로 하는 市民社会이다.

個人의 自主性을 重히 여긴다고 하드래도 社会인 만치 個人 相互間의 承認에 의한 契約으로서의 規範이 要求된다. 그러나 그 規範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個個人의 思考力의 綜合으로서의 合理的으로 規定된 法律과 制度가 아니면 안된다.

個人은 社会의 規範에 服従하지만 그것은 合理的 支配에의 服従이다. 個人도 社会도 合理化되고, 個人의 自由, 権利와 함께 社会의 規範, 義務, 責任도 尊重되고, 合理的 精神밑에서 個人의 幸福과 公共福祉의 一致가 要求된다.

個人과 社会, 自由와 規範, 権利와 義務 등이 확실히 区別되면서, 与受의 交互作用을 통하여, 良識에 의한 統一이 指向된다.

이와같이 市民社会는 共同社会가 갖는 欠点을 克服하지만 個人의 尊重은 権利만을 主張하고 義務를 잊어버리거나, 規範을 無視하고 放縦하며 稚拙한 利己主義로 変質하여 無責任한 混乱을 惹起시킬 위험이 있다.

이 混乱을 防除하기 위하여 法律과 制度는 점점 巨大, 緻密해져서 非情한 機械처럼 圧力을 더해간다. 이렇게 되면 그 가운데 있어서의 個人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되어 個人의 理性은 損失이나 利得의 計算만을 따지는 狡猾하고 冷血動物로 堕落해 버린다.

어쨌던 知覚만을 지나치게 作用하여 모가 나고 自他를 区別하는 心性은 冷淡, 無関心으로 化하여 마침내 他人은 모두가 敵이라는 対立意識을 낳아, 不信과 憎惡의 想念에 사로잡히고 만다.

萬人이 이리(狼)가 되어 끊임없이 危脅하는 것으로 不安과 焦燥에 휩싸여 메마른 砂漠의 한 가운데서 한 모금의 물을 구하며 허덕이는 것과 같이 愛情에 굶주리게 된다. 그리하여 各個人은 群衆속에 있으면서도 늘 孤独하게 된다.

2) 앞에서 말한 것과 関聯이 있는 다른 面을 다른 角度에서 살펴 보자.

社会生活을 営為함에 있어 規範에 服従하는 것이 社会生活을 円滑히 한다.

共同社会에 있어서는 이 規範이 習俗이며 温和한 和合에 의해 社会生活을 営為한다. 그 規範은 切磋琢磨해서 美뿐 것이며 節度있는 것으로 個個人은 그것이 몸에 젖어버리도록 익혀지고 있다.

社会生活에 있어서 이미 익혀지고 있는 規範도 어느 程度 지킬 必要도 있지만 다만 古来의 伝統的인 것이라 해서 盲目的이라면 無意味한 것이다.

그러나 情的인 社会에서는 個人은 社会속에 溶解되어 意味도 理解하

지 못한채 어떤 樣式을 지켜가는 傾向이 顯著하므로 自己의 判斷없이 周囲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所謂 「世人의 称頌이나 非難」에 気를 기울여 여러 사람의 監視의 눈을 살피게 된다.

이렇게 되면 無事主義, 安逸主義 또는 事大主義의 根性이 발을 부치게 된다. 萬一 깊은 생각없이 무엇을 主張했다가는 「8分」이라는 非難을 받기 쉬우니까 「입은 禍根」이 되고 「냄새나는 것은 뚜껑」을 덮어 놓고, 서로의 親近함 속에서의 속임수가 公公然한 秘密이 된다. 그 반면에 監視의 눈이 없으면 가만 가만히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陽地와 陰地가 많아져서 ……

이렇게 되면 어떻던 無事하고 나중에는 그 社会의 温情이 도와줄 것이므로 自主性, 独立性이 欠如되고 依頼心이 強한 無責任한 者가 된다.

이런 社会는 이웃사람의 温情속에서 느릿 느릿하게 잠이나 즐기고, 온화하게 고분 고분하면 버릇없이 굴거나, 기어 오르는 利己主義者의 温床이 되어 個人을 無力하게 만들며 나아가서는 社会自体가 活気를 잃고 沼처럼 混濁해 버리기 쉽다.

이 沼는 社会라든가, 世上이라는 既定事実의 規範에 無感覚하게 되어 「他律的인 道德」에의 規制를 받을 수 있게 할 危險이 있는 陷井과 같은 것이다.

市民社会에서도 合理的인 社会로서의 規範이 있으므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社会의 一員으로서의 自覚이 있으면 그것이 갖는 意義를 理解한 然後에 自己 것에로 同化시키며, 他人의 눈이 아

니고 自己의 良心, 判断에 의하여 自発的으로 지키는 것이므로 스스로를 制裁하는 「自律的인 道徳」이 된다.

人間의 尊厳性은 이 自律性에 있다. 이것이야 말로 人間을 다른 動物과 区別하는 人格의 品位이다. 自律性에 의한 自主性, 批判力은 重視되어 다른 것으로부터의 制圧이 엷어지면 当然히 그만큼 責任도 커진다. 毅然한 自律의 精神이 強한 個人의 活動은 社会의 脈動点이며 社会를 밝게 하는 活気에 넘치는 것으로 弾力 있는 秩序를 가져온다.

他律的인 道徳을 制裁하는 道徳이라 해서 밀어제쳐 놓고 自律精神이 育成되지 않으면 아무런 規律도 없는 無軌道한 길로 나아가 独断的인 생각, 盲目的인 反抗으로 英雄視한다면 市民社会의 落伍者가 된다.

다. 秩　序

1) 어떠한 社会에도 秩序가 있다. 오직 그 秩序를 確立하는 方法이 問題이다.

共同社会에서는 支配와 被支配의 関係에 의한 身分, 家系, 年令, 能力, 男女間에 上·下의 関係를 만들어 人間의 差別観에 의해서 秩序를 세우려 한다.

特定의 非凡한 者의 権威있는 支配와 그것에의 献身的인 服従이라는 傾向도 생겨난다. 所謂 上·下関係에 의한 「縦的인 道徳」이 支配하므로 上位에 있는 者에는 特権이 賦与되어 下位者는 個人의 才能은 無視되고 努力을 해도 徒労에 그치게 되므로 이 秩序는 半 運命的인 것이 되고 만다.

이 秩序가 固定되면 그것을 堅持하기 위해서는 情愛의 사이에 矛盾을 招来하여 양자 사이에 끼여 꼼짝 못하게 되어 苦悶도 하지만, 마침내 情은 否定되고 冷厳한 道德만이 支配하게 된다.

社会와 個人間에 衝突이 생기면 個人쪽이 犧牲되지만 그것이 当然視되면, 個人의 軽視, 無視로 変하여 犧牲은 下位者나 弱者에게 돌려진다. 하물며 이 犧牲은 公을 위해 私를 犧牲할 뿐 아니라 上位者나 強者의 保身, 名誉心, 虚栄心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한다. 어느 것이나 献身의 美德이란 名分下에 忍従이 強要된다.

그것을 正当한 것이라 해서 勇敢하게 犧牲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그것으로 인한 悲劇으로 上·下가 苦悶하는 경우도 있고, 怨恨을 갖는 者도 있을 것이나 어쨌던 犧牲하는 者가 생겨날 것이다.

「上位者의 命令은 正当하다」 하는 信念에 基因하여 諦念하거나 아주 断念하는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不満과 反抗이 陰地에 도사려, 오히려 公的인 事実에 不信感에 사로잡혀 冷淡, 無関心해져서, 公共精神이나 公德心의 根源을 枯死시키기도 한다. 또 劣等感에서 비뚤어지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復讐心에 불타, 陰険한 利己心이 싹트게 된다.

強者도 利己的이라면 弱者도 한통속의 너구리가 되어 強者에게는 아첨하게 되고, 보다 弱한 者에게는 호랑이의 위엄을 빌린 여우처럼 뻐기게 되는등 保身術에 能한 小賢으로서 괴로움에도 不拘하고 어떤 모습으로 분장하게 된다.

威厳과 忍従에 의하여 表面은 平和롭게 治癒돼가는 것같으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暗闘의 불이 이글거린다. 이 抑制가 사라지면서 暗闘가 爆発하여 表面化되면 怨恨과 더불어 걷잡을 수 없는 混乱을 惹起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매우 귀찮은 精神病으로서 이 病을 고치는 薬으로서 市民社会에 있어서의 人間의 平等観의 賦与이다.

2) 人間은 平等하다고 보면서 個人의 才能은 努力 如何에서 自由롭게 伸長될 수 있는 機会가 주어지는 것이다.

職業에 貴賤이 없어지고 모든 勞動은 神聖視한다. 各人의 自覚과 矜持, 相互의 人格을 尊重하는 友愛의 精神, 連帯意識에 의한 「横的인 道徳」이 要求되므로 自律的 精神에 의하여 公共의 精神은 養成되며 社会의 秩序는 確立된다.

그러나 自由가 放縦으로, 平等이 懶怠한 者가 즐기는 惡平等으로 은연중 바뀌어 自律精神, 友愛, 連帯의 精神을 잃어버리면 社会는 混乱하여 無政府狀態로 化하여 弱肉強食의 世界가 돼버린다.

여기에서는 利己心은 陽性이지만 混乱을 惹起시키는데는 変함이 없으며, 無秩序는 無計劃化하여 能率이 오르지 않는 精神의 浪費는 社会를 不健全하게 만들어 버린다.

라. 固定과 変化

1) 우리들의 生活은 程度의 差異는 있을지언정 安定과 変化를 必要로 한다.

共同社会에서는 社会의 安定 그 자체가 重視되어 그것을 混乱시키는 것은 利己心에 의하던, 改革때문이던 無条件 나쁘다(惡)고 한다.

이 社会의 安定은 옛날부터 神聖한 伝統에 의하여 保証되어 沈着하고 조용한 静粛한 雰囲気에 싸인다. 社会의 維持에 責任을 갖는 支配者는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先祖들에게도 面目이 서지 않고 個個人도 社会의 安定을 어지럽히는 일은 罰을 받는다고 생각하므로 上下가 다 같이 安定을 希求한다.

支配者는 「伝統은 神聖하다」하는 信念에 基因하여 支配하며, 被支配者도 같은 信念에 의하여 正当함을 認定하고 그에 服従한다.

社会의 安泰를 어지럽히고 個人의 安全을 危脅할 만한 変化, 그와 더불어 일어날 摩擦과 争闘는 嫌忌하는 바로 極히 避해야 된다.

이 社会는 上·下関係에 의하여 秩序를 維持하게 되므로 有利한 立場에 서있는 上位者는 変化를 願치 않고 現状維持에 努力하게 되며, 下位者도 「모나는 者는 정을 맞기」 때문에 保身하기 위해서도 忍従을 継続한다. 上位者는 積極的인 努力에 의하여 下位者는 消極的인 忍従에 의하여 保守的으로 돼 버리기 쉽다.

또 社会内部의 安定은 外部로부터의 影響을 좋아하지 않고 閉鎖的이 된다.

郷土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자랑삼고 뽐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자칫하면 偏狭하게 되어 排他的 独善, 나라자랑에 치우칠 危険이 있다.

이런 形態의 社会에 있어서는 血縁과 近隣者만이 結合하는 同僚意識이 強하고, 人間社会라고 하드라도 그 範囲안에 限定된다.

2) 沈着性은 発展性을 欠하고 마침내 단조롭게 되어, 마치 고인 물과 같이 흐려지면서 썩어버릴 危険이 있다. 물이 썩지 않기 위해

서는 흐르지 않으면 안된다. 단조로운 生活의 실증을 깨트려서 社会를 発展시키려면 変化가 있어야 한다.

精神的으로도 肉体的으로도 어디까지 自由로운 個人의 要求에 基因하여 形成된 市民社会에서는 늘 変革이 要求된다. 最大多数의 最大幸福의 実現을 指向하는 이 社会에서는 社会의 固定化는 人間의 桎梏이오, 満足은 怠惰로 흐르기 때문에 法律과 制度는 改革을 거듭하면서 身分과 階級등의 틀은 때때로 解体되게 마련이다.

弾力性있는 発展을 要求하는 이 社会의 눈(眼目)은 늘 未来를 向하여 열려 있다. 進歩를 위해서는 摩擦, 争闘, 不安 같은 것은 不可欠의 刺戟剤이다. 밖을 向해서는 開放的으로 外来의 影響에 의한 摩擦, 混乱을 克服하여, 배워야 할 点은 吸収하여 스스로의 것으로 鍛練하여 土着化시킨다.

血縁과 地縁을 超越하여 人間社会는 넓은 見地에서 同等하게 보기 때문이다. 動的이고, 開放的인 것을 特色으로 하는 이 社会의 原動力은 個人의 積極的인 批判力, 創造的인 努力의 精神이다.

이와같은 精神이 欠如되면 다만 末梢神経을 刺戟하는 눈앞의 変化를 追求하는 好奇心 때문에 堅実性을 잃고, 짓궂게 新奇한 豪奢를 즐기는 軽佻 浮薄한 気風에 넘쳐 흔들 흔들하고, 조금 지나치면 남의 눈에 들려고 才子 才女가 대단히 칭찬받게 되지만, 곧(즉각) 風船처럼 찌부러져서 잊혀져 간다. 浅薄한 外国風에서 생겨나는 風潮이다.

마. 앞날의 市民道徳

지금까지 共同社会와 市民社会의 性格과 傾向 그리고 長·短点을

対比하여 보았지만 現実社会는 混合体이며, 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非同時的인 것이 同時에 共存하여 더욱 複雜한 狀態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共同社会的이며 이것을 脫皮하여 市民社会的으로 変化해가는 過程에 있다. 그러나 깊숙한 밑바닥에는 쉽게 脫皮되지 않고 市民社会라는 仮面속에서 共同社会的인 傾向은 아직도 뿌리깊히 作用하고 있다.

이 二重性은 日常生活에서부터 政治, 経済, 社会등 모든 面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市民으로서의 道德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우리들이 社会生活을 営為하면서 他人과 함께 共生共榮하기 위해서는 人間의 平等観에 立脚하여 相互間에 生命을 尊重하고 慈愛로운 사랑이라던가, 慈悲라던가, 아름다운 心情의 豊饒가 모든 人間関係에 젖어들게 될 것이다.

自他의 生命의 共感으로부터 友愛의 精神이 育成되고 거기서부터 連帶意識을 理性의 힘으로 꽉 붙잡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友愛의 精神, 連帶意識은 個人의 権利의 主張과 社会的 義務가 생겨나는 터전이다. 社会 成員으로서의 各個人은 平等하고, 個人의 自由도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生気있는 自由가 된다.

友愛, 連帶의 精神, 権利의 主張과 義務의 完遂라는 精神으로부터 合理的인 社会의 規範도 만들어진다.

그와같이 이러한 精神은 各自의 理性的 自覚에 의해서만이 育成되는

것이며, 權利와 義務의 相応도 社会의 一員으로서의 自覚에 의한 良識에 의해서만 統一될 것이다.

社会規範의 遵守, 公益精神의 尊重도 自律的인 精神에 의해서 더욱 明朗해질 것이다.

自由란 社会에 있어서의 自由가 되었을때 비로소 참 自由가 된다.

自律의 精神은 다만 既存의 規範을 自発的으로 지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社会를 指向하여 늘 現存하는 社会를 批判하는 精神도 되고, 批判하는 精神은 建設的인 創造의 自由에 의하여 充実해야 한다.

그러나 現存하는 社会를 批判하며 보다 나은 社会를 建設하는데는 여러가지 다른 見解, 思考方式, 思想도 나타날 수 있지만 아무리 다른 것일지라도 서로 서로 보다 나은 社会의 建設을 指向한다는 人間의 善意를 信頼하며 寛容의 精神을 가지고 協力하며 이것을 総合하는 叡知에 의하여 새로운 社会의 建設을 向하여 努力해야 할 것이다.

人間은 自由이므로 責任이 있다. 責任이 있으므로 努力해야 한다. 努力하는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混迷와 망서림을 참고 견디어 나가면서 発見될 歓喜를 追求한다면 반드시 보다 나은 社会가 建設될 것이다.

바. Communication의 役割

1) Masscom 時代

現代는 <매스콤>의 時代라고 할만큼 Mass Communication의 手段이 極度로 発達된 時代이다. 新聞, 雜誌, 라디오, TV, 映画 등의

所謂 Mass Media 의 顯著한 進步에 의하여 사람들은 世界 到処에서 일어나는 事件을 正確하고 또 迅速하게 온 世上사람에게 容易하게 報導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옛날 사람들이 想像조차 할 수 없었던 方式으로서 놀라우리 만큼 広範한 知識, 모든 種類의 芸術, 娯楽 등을 귀와 눈으로 吸収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現代의 技術文明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偉大한 貢献이라는 点을 否定할 수 없는 것이다.

Communication 이란 본래 伝達, 交通, 交換, 共有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人間은 個人的으로 蒐集할 수 있는 知識의 範囲는 자연히 限定돼 있다.

機械의 発達은 그러한 個人의 能力을 초월하는 広範한 知識을 蒐集하여 大量의 人間을 向해 단숨에 迅速하게 伝達하는 것을 容易하게 하여 그것으로 오늘의 膨脹되고 複雜하게 된 社会에 사는 人間들의 要求에 応할 수 있게 하였다.

一定한 送信은 機械를 통하여 不特定한 多数의 大衆에게 情報를 伝達하는 <매스·콤>은 그 内容에 있어 間接的이며 一方的이라는 事実을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受信者는 自己의 直接的인 経験이 미치지 않는 範囲의 事項에 대하여 機械를 통하여 間接的으로 報道되므로서, 伝達된 事項에 대하여 그 眞偽를 確認하는 手段을 가질 수는 없다.

또 <매스·미디어>는 그 機能이 有力하면 有力할수록 그 所有者는

限定되는 것으로, 보통 <미디어>를 掌握한 送信者가 一方的으로 情報를 흘려 버리는데 対하여 受信者는 그것을 受動的으로 받아들일뿐, 自己의 意志를 送信者에 보낼 수가 어렵다.

그렇지만 Communication의 目的은 情報와 知識을 단순히 相対便에 一方的으로 伝達할 뿐만 아니라 相互間의 意志와 思想을 交換하므로써 意志를 疎通시키고, 思想을 一致시켜 理解를 돕는데 있다.

그리하여 独立된 人間과 人間 사이에 相互交驩, 連結함으로서 社会的 連帶가 形成된다.

Communication은 人間의 社会的 結合의 끊기 어려운 情이요, 人縁이며, 그窮極的인 目的은 完全한 交誼를 통한 一致 Communion에 있다.

이와같은 目的에 適合하기 위해서는 Communication의 手段은 直接的이며, 相互的이 아니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Communication의 特色은 間接的, 一方的인데에, Communication으로서의 根本的 欠陥이 있는 것이다.

受信者는 間接的으로 받아들인 報道에 대하여 眞偽를 確認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対하여 恒常 不信感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一方的으로 받아 들일뿐 이쪽의 意思를 伝達할 수 없으므로 意思를 通하여 合議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매스·콤>의 特徵을 利用함으로서 送信者는 그 意図에 따라서 情報를 自由롭게 取捨選択하거나 事実을 歪曲하거나 하여 그것을 眞実인 것처럼 一方的으로 大量 또 間断없이 無数

한 大衆을 向하여 보낼 수가 있는 것이다.

受信者는 아무리 批判的이라 하드래도 그 眞偽의 程度를 確認하는 手段을 갖고 있지 않는데다가 疑問을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의 影響을 받지 않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

따라서 <매스·미디아>를 掌握하는 것은 偏向된 情報와 一定한 <이데올로기>와, 低俗한 娛樂을 一方的으로 間斷없이 흘려 버리므로서 容易하게 宣伝, 暗示, 誇張, 欺瞞을 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大衆의 意識을 均等化하며, 低俗化하며 그 批判精神과 個性과 階級意識을 剝奪하여 그것을 意図한대로 操縱할 수가 있다. <매스·콤뮤니케이션>에는 이와같은 魔力이 숨어 있어서 独裁国家와 商業主義의 強力한 武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現代人의 孤独

現代社会는 資本主義로, 이것과 더불어 技術文明이 極度로 発達한 結果, 大量生産様式, 官僚制的 組織을 促進시킴으로써 人間의 人格的 結合을 解体시켜 이른바 「孤独한 群衆」이라고 하여 조각 조각 <아톰>化된 個性도 思考力도 批判力도 잃고, 低俗한 娛樂만을 追求하면서 우선 편안하게 지내보자는 大衆을 낳았다.

<매스콤>은 이와같은 大衆을 形成하는데 拍車를 加하는 것이다. 間接的, 一方的인 性格을 가진 <매스·콤>은 伝達의 機能에 있어서 아무리 優秀하다 하드래도 <아톰>化된 大衆의 心理를 相互 結合시키는 것일까? 도리어 그것을 점점 空虛하게 하여 相互 疎遠하게 하는데 큰 役割을 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人間의 Communication 은 人間과 人間과의 交驩, 一致를 目的으로 하는 人格的 要求에 뿌리를 둔 것이다.

現代人은 여러가지의 Communication 手段이 発達한 덕으로 以前보다는 훨씬 넓은 広域社会를 形成하여 보다 더 複雜한 人間関係를 가지고 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人間의 結合이 커지고 強해진 것은 確実하다.

오늘날 우리들이 勞動하는 場所는 점점 더 巨大組織이 되어 거기에서 보다 많은 사람과 接触하게 되었고, 交通, 通信機関의 発達은 遠距離에 隔해 있는 사람과의 交際를 容易하게 해주고, 世界 全体의 움직임과 우리들 個人과의 関係는 점점 緊密해져 오고 있다.

그러나 그와같이 人間関係가 넓어지고 複雜해지면 해질수록 그것은 점점 外的인 것으로 서먹 서먹해진다는 것을 否定할 수 없는 事実이다.

眞実된 人間関係란 人格으로서의 人間과 人間의 交驩이 아니면 안된다. 即 独立하여 다른 것과 代身할 것이 없는 個性을 가진 主体로서의 「나」와 「나」와의 사이의 意思疎通, 마음 接触이어야 한다.

Communication 이란 단순한 人間 間의 外的 機械的인 接触이 아니고 内的인 交通을 말한다. 그런데도 現代社会에 있어서의 大衆은 어떻든 그러한 外的 接触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相互間에 実質的, 内的聯関을 점차 稀薄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들은 機械의 톱니바퀴(歯車), 組織의 한 機能, 한個의 商品처럼 取扱당함으로써 그의 人間으로서의 主体性, 個性, 自由를 剝奪 当하여

더욱 더 非人格的인 存在로 堕落하는 傾向에 있다.

그리하여 大衆은 非人格化되면 될수록 참된 Communication의 成立条件을 잃어버리고 社会는 점점 非人間的인 것으로 化해 버린다.

現代人은 外的으로는 더욱 複雜해지고 緊密하게 얽혀 살면서도 그 內的인 心性은 더욱 더 조각 조각으로 떨어져 나간다.

巨大한 組織속에서 共通하는 目的때문에 『개미』와 같이 일하게 되는 勤勞者 相互間의 交驪, 接触은 冷情한 것으로 더욱 複雜해지는 都市에 있어서의 이웃사람은 점점 人緣없는 것으로 돼버리고, 世界의 来日을 左右하는 政治의 動向은 아무리 細密하게 報道되드라도 人類全体의 運命은 自己에게 있어서는 점차로 서먹서먹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現代人은 世界가 좁아지고 人類 全体가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더 不信感과 無力感에 들볶여 孤独의 深淵으로 떨어져 간다.

3) 実存的인 交流

現代人은 이 巨大한 社会의 機構속에 움추려지면서도 救援받을 수 없는 孤独感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社会가 人格의 結合의 터전이기 보다 商品이나 物件으로 滅視 当하는 人間은 巨大한 社会라는 機構를 움직이는 機能, 톱니바퀴, 部分品으로만 取扱되지 않는다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現代社会에 있어서 個性과 判断力, 批判力, 階級意識 등을 漸次로 剝奪 当해가는 普通사람은 主体性도, 自由도 없는 非人格的인 것이 되고 있다.

그러나 萬若 사람들이 정말 商品이나 物件과 같이 되어 그 人格, 을 모두 잃어버렸다면, 책상이나 걸상이 孤独하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孤独感에 苦悶하지는 않을 것이다.

複雜하고 広範한 人間関係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사람은 孤独感에 苦悶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他人과의 内的交流를 깊이 願望하면서도 그 回路가 멀고, 막혀 있다는 矛盾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人間이 自己에게 눈이 트이고 自己의 個性과 主体性의 意識이 強하면 強할수록 他人과 自己를 확실히 区別할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人間은 한편 혼자서 独立하여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恒常 他人과 살아가고 있는 社会的인 存在이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自己가 他人과 代替될 수 없다는 單独者로서의 実存을 意識하면 의식할수록 더우기 (역시) 單独者로서 実存하고 있는 他人과 交流 내지 交驩하고 싶다는 意思를 強하게 갖게 된다. 或은 逆으로 他人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自己를 점점 強하게 意識하게도 된다.

恒常 많은 大衆속에서 附和雷同하여 騒動하는 主体性이 없는 사람보다도 확실한 自我意識을 갖고 있는 人間일수록 보다 더 깊은 孤独을 느낄 것이며, 또 그러한 人間일수록 참된 友情도 強하게 要求할 것이며, 그러한 人間의 友情일수록 厳格한 것 처럼 人間은 自己를 「나」로서 意識함에 따라 眞実로 「당신」(또는 貴下)이라고 불리는 他人格과 함께 「우리들」이라고 불리어지는 共同体 (Community) 를 欲求하는 것이다.

他人은 모두 「그대」(彼)로서의 「나」로부터 떨어져 意識될 경우 「나」는 孤独으로 떨어지고 만다.

現代社会가 마음(心)으로부터 「우리들의 社会」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社会에 있어서 接触하는 他人은 「그대」로서 実感을 가지고 「당신」으로 불리어지지 않는 곳에 現代人의 깊은 孤独感이 있다.

「내」가 없으면 「당신」도 없고, 「당신」 없으면 「나」도 없다. 現代의 人間은 自己를 喪失하고 있는限, 사람은 「당신」이 될 수 없고, 또 사람은 恒常 「그대」로서만 意識되지 않는限 自己는 참으로 「나」로서는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나」와 「그대」(너)와의 交流에 의한 「우리」의 形式이야 말로 참된 意味의 Personal Communication으로서의 「実存的交流 existential Communication」이라는 것이다.

Personal이라는 形容詞는 단순히 個人的이라는 것은 아니고 自己의 單独者로서의 主体性을 意識하는 人格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이 참된 人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있는 누구(誰)이며, 아무도(誰)이닌 匿名의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라는 限定된 되물이 되지 않는 歷史的인 狀況에 한번만 存在하는 것으로서의 実存으로서 自己를 意識하는데서이다.

現代人은 平均的인 사람이 돼있다는 것은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사람」의 狀態에 있다는 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참으로 Communication 마저 없다면 또 그것에 対한 要求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들이 自己의 代替物이 없는 実存을 意識할 때 우리들에게 있어 他人도 벌써 단순한 "無縁"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의 実存에 関한 他의 代替가 없는 実存이라는 것을 発見할 수 있다. 実存은 本来 「交流」속에 있는 것이다.

또 반대로 우리들은 他人과의 交流속에서 自己의 実存을 깨달아 自己를 自己로서 意識한다. 即 「交流」에 있어서 人間은 実存을 되찾는다.

現代人이 잃어버린 人格을 回復하며 孤独으로부터 脱却하여 世界를 참으로 自己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実存的 交流」로서의 참된 Communication의 回復이 要求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4) 人 間 愛

現代에 있어서의 人間関係는 이른바 식어버린 夫婦関係와 같다. 冷静한 夫婦関係에 있어서 夫에 있어서 妻는 단순한 「女子」이고, 便利한 道具에 불과하다.

또 妻에 있어서 夫는 한사람의 「男子」이고, 月給의 運搬車와 같은 것이다. 그러한 関係에 있어서는 1対1의 男女가 契約에 의하여 다만 함께 있다는 것으로 두 사람의 사이에는 아무런 内的인 交流는 없다.

아마도 그러한 夫婦의 사이에는 아무런 風波도 일어나지 않는 반면 비열한 倦怠感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가 相対便을 마음으로부터 「당신」이라고 부르는 일도 없고 두사람 사이에서 自己를 참으로 「나」라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関係에 있어서 相対는 무엇을 하던 結局 아무래도 좋다고 하여 두사람은 完全히 無縁할 것이며, 두사람이 経営하는 家庭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들」의 것으로 意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関係에 있어서 夫婦는 다 같이 自己를 喪失해 있고 다만 惰性에 살아가는 以外에는 아무런 삶의 보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夫婦가 언젠가 自己들의 貴重한 一生을 虚送한 事実을 깨달았을 때는 그들은 自己들의 関係에 不満과 嫌悪感을 품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그들의 사이에는 愛情의 葛藤이 再開될 것이다. 그들은 새삼스러히 서로 相対方의 存在에 놀라 두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自己

를 発見한다. 두사람은 그때부터 도리킬 수 없는 맞남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끊기 어려운 情을 끊은 시냇물의 깊음을 느껴 激烈한 孤独感에 사로잡힐 것이다. 孤独의 意識은 相対方을 불러들여 交流를 願치 않고는 견디기 어렵게 된다.

두 사람은 交流에 있어서 自己를 「나」로서, 相対를 「당신」으로서 相互 代替될 수 없는 存在를 確認하게 된다.

그러나 交流가 깊어짐에 따라 두 사람은 서로 相対의 存在와 自己와의 異質性을 強하게 意識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愛情의 싸움의 터전이 될 것이다. 愛情이란 결코 甘美로운 陶酔가 아니고 闘争이며 自由의 奪取이다. 그러나 그러한 自他에 対한 厳格한 闘争의 結果 두사람은 마침내 「나는 당신의 것」 「당신은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境地에 到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한쪽이 다른 쪽을 所有하는 支配関係가 아니고 相互実存의 独立과 自由의 参与에 의하여 成立되는 「우리들」이라는 共同体의 創造이다.

愛情(사랑)은 그러한 共同体에 있어서의 一致에서 完成된다. 人間은 本来 그러한 愛情에 있어서의 一致에 끌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Communication 의 참 目的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一致에 있어서 実存하는 「나」와 「당신」은 참으로 結合되고 「나」는 「우리들」속에 있고 「우리들」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現代社会에 있어서 「사람」이 他人과의 連帶感을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孤独感에 들볶이고 있는 人間은 그 「나」로서의 「実存」을 되찾고, 因緣이 없어진 世界와의 삶의 連結을 回復하여, 世界에 있어서의 自己의 存在를 참으로 肯定하기 위해서는 우선 自己가 実存으로서 이 歷史的狀況속에서 他人과 더불어 있다는 事実을 깨달아 그것을 主体的으로 받아들여 그것과 보다 깊게 交流하기 위해서는 激烈한 闘争을 통하여 서로 애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하여 愛情에 있어서 世上은 참으로 「우리들」의 것이 되고, 그 「우리들」의 創造에 参与함으로서 「나」는 「나」로서의 存在를 確保하고, 「나」와 「당신」의 連帶性을 保障할 수가 있을 것이다.

勿論 現代社会는 元来 이와같은 愛情의 交流를 困難하게 하는 条件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愛情에 의한 現代의 矛盾의 克服이 거의 꿈과 같이 느껴지는 것도 当然하다. 그러나 問題의 本質을 깊게 考究할때 그것이 어떻게(얼마나) 困難하고, 観念的으로 생각되는 것은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굳은 決意로서 이 過程에 参加하지 않는 限 人間世界는 마침내 非人間化되고 말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 우리社会의 道義発展

1) 儒教文化와 우리의 意識構造

(1)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社会는 儒教社会라고 할 수 있다. 비록 基督教人일지라도 그의 家庭生活은 儒教倫理에 의한 意識構造와 그 人性의 深層部는 더욱 그러하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의 基督教가 「脱儒教」하지 못해서 信者들의 宗派主義가 甚하고 基督教人이 가져야할 罪道義보다는 儒教的인 羞恥道義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고, 教役者가 信者들의 羞恥意識에 呼訴해서 献金을 모으는 경우가 많음은 그 좋은 例이다.

이러한 儒教社会에서 健全한 自我가 채 発達되기 前에 西洋의 個人主義와 부디쳐 葛藤을 일으키는 데다가 都市化, 産業化등 急激한 社会変遷이 健全한 倫理的 価値体系를 歪曲되게 発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社会的 環境이 急変하고 倫理的 価値体系가 바뀜에 따라 덜 発達된 自我가 発達보다는 「適応」에 많은 心的<에너지>를 쓰고 있다.

自我의 発達이란 어느程度까지는 権利나 義務意識의 発達로 나타나는데, 西洋의 個人主義가 우리들의 権利意識을 자극하고 있으나 急変하는 社会環境에의 適応때문에 権利意識도 正常的으로 発達하지 못하고 있다. 例를들면 解雇가 겁이나서 生活給에 대한 正当한 権利주장도, 上司나 権力者에 대해서 正当한 発言을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未発達된 微弱한 自我는 生存이 急先務 일뿐만 아니라, 正当한 権利意識의 포기는 「適応에의 権利」意識으로 変化되기 때문이며, 이렇게 強化된 適応意識이 義務意識을 弱化시킴은 勿論이다.

더우기 民主主義를 準備없이 받아들여서 消化不良症에 걸린것처럼 物質文明도 그것을 充分히 뒷받침할 精神文化의 成熟없이 우리를 魔術的인 힘으로 사로잡아 그것에의 適応이 삶의 全部인양 우리의 適応意識을 強化하고 있다.

公과 私의 区別이 不確実하고 賄物과 賂物과의 区別이 모호하고 公権力을 利用하는 所謂「不正腐敗」도 이 강한 適応意識때문에 더욱 助長된다고 볼 수 있다.

M. Weber가 말한 基督教人은 世界를 合理的으로 征服하고 儒教人은 世界에 合理的으로 適応한다고 한것을 오늘날 우리가 再吟味해 봄직한 일이다.

(2) 우리가 追求하는 社会의 理想像은 人間이 서로 「人間待遇」를 하고 받으며, 物質的으로도 豊饒한 生活을 누릴 수 있는 社会이다.

이러한 理想을 実現하려면 民主主義도 잘 되고 経済成長도 잘 되고, 바람직한 韓国的 社会発展도 뒤따라야 한다.

M. Weber가 資本主義 発達의 要因의 하나가 〈프로테스탄티즘〉의 한內容인 遵法精神이라고 説破한것을 볼때 合理的으로 制定된 法을 잘 지키는 것이 民主主義의 발달과 経済成長에 先行되어야함은 明白하다. 그러나 이 先行条件은 우리의 自我의 不健全한 発達때문에 쉽사리 充足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深刻하게 問題되는것은 自由와 経済成長과의 両立 可能性이나 自由는 확실히 経済成長에 危険負担을 준다. 왜냐하면 自由는 遵法이란 큰 負担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負担을 極少化하기 위해서 自由보다도 政治的安定과 国力의 組織化가

優先되어야 했고, 結果的으로 놀라운 經濟成長도 했고, 또 繼続하고 있다.

그러나 人間의 本質的屬性인 自由에의 渴求는 한편으로 經濟成長의 恵沢을 받으면서도 그恵沢을 可能케한 政治的安定과 国力의 組織化를 덜 重視하게 한다. 이리하여 国力의 組織化가 一部国民에게 納得되지 않는 現象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問題되는 것은 經濟成長과 自由와의 最大公約数를 確保하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는 道義에 바탕하는 遵法精神의 昂揚과 社会의 醇化로 밝고 信義로운 社会의 建設임은 말할것도 없다.

自由가 最大化될 때 그것이 안고 있는 危險負担때문에 經濟成長이 희생될 위험성이 있고, 經濟成長이 제일로 優先되었을때 国力의 「과도한」組織化에 반발하는 自由에의 渴求가 도리어 国力의 組織化를 희생시킬 위험성도 있다. 여기에 우리社会의 가장 큰 問題가 놓여 있다. 이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하는 열쇠는 道義教育과 道義에 바탕하는 遵法精神의 昂揚, 그리고 秩序있는 生活의 態度化이다.

그리고 M. Weber가 資本主義 発達의 또 하나의 要因으로 본 〈프로테스탄티즘〉의 內容인 「現世的 禁欲主義」와 道義와의 関係로서 우리가 追求하는 社会는 自由經濟体制인데 資本主義가 発達初期에 있으므로 어떠한 成就動機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社会発展에 어떠한 函数関係를 가지고 있는가를 考案해볼 필요가 있다.

(3) 우리는 儒教的 合理主義 文化에서 살아왔고, 또 살고있기 때문에 成就動機는 거의 目的 合理思想에 基礎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일을 그結果가 世俗的目的에 妥当한가의 与否를 打診하여 그 妥当性이 確認된 後에야 成就한다.

例를들면 社会関係에서 社会的인 일을 하는데 그일의 結果에서 얻는 目的意識을 초월하려 하는일 자체에 滿足感을 가지며, 「盲目的」으로 하지 못하고 그目的意識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目的 達成의 程度에 따라 滿足感이 左右된다. 「目的은 手段을 正当化한다」는 생각이 바로 여기에 緣由하며 目的価値에만 너무 執着되어 手段価値를 소홀히 여기는 所以도 여기에 있다.

우리가 社会関係에서 이目的合理主義에서 若干 해방된다면 社会生活에서의 「不信」의 問題가 多少 解決될 것이다. 내가 남과 交涉할때 利益追求라는 目的意識이 강할수록 남도 그와 같은 目的意識이 강할 것이라고 믿으며, 따라서 手段価値를 疎忽히 여기며 서로 不信感을 품게 된다.

不信感은 서로 無意識的으로 相対方에게 投射되므로 그것은 投射를 통해서 더욱 強化된다. 例를들면 파는 商人은 되도록이면 高価로 팔겠다는 目的意識을 가지고 있고, 사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廉価로 살려하는 目的意識이 無意識的으로 相対方에게 投射되어 先入観的으로 不信感을 가지고 対하게 되므로 조그마한 事由에도 不信感은 커진다.

흔히 우리社会를 「不信社会」라고 하는데 실은 이런 表現을 쓸만한 事由를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스스로의 마음의 投射作用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社会的으로 適応한다는 말은 첫째 남에게 쉽사리 속아서 利用당하지 않고, 둘째 남에게 自己의 潔白性을 偽装的으로 外表할 수 있다는 뜻을 内包한다.

우리社会에 흔히 보는 例로 家族外의 사람을 不信하기 때문에 企業体는 「家族会社」를 면치 못하고, 資本과 経営이 分離되기가 어렵고, 株式公開도 그만큼 어려운 형편이라 資本主義의 발달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各種書類에는 証明書, 確認書등 도장 투성이가 되어 時間과 〈에너지〉와 돈이 많이 드는것도 相互 不信感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相互不信하기 때문에 社会生活에서 正面的인 「言語通信」보다 裏面的인 「눈치通信」을 더 重視하는 傾向이 생긴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의 뜻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 그 말을 하게된 裏面動機를 分析하고, 그말의 숨은 뜻을 「눈치」로 알아서 그것에 맞추어 反応해야 하는것이 社会的 適応에 필요하다. 職場에서 맡은 일을 忠実히 하는것 만으로는 不足하여 「눈치通信」으로 上司를 잘 받들고, 「処世」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心的 〈에너지〉를 消耗할 수 밖에 없어서 結果的으로는 맡은 일에 하는데 쓰이는 〈에너지〉는 그만큼 減少되어 成就動機가 그만큼 弱化되는 셈이다. 이것은 「現在的 禁欲主義」에서 우러나오는 勤勉性에 相反되는 現象이다.

(4) 우리는 儒教的인 上.下 倫理, 差別倫理에 「適応」하고 있기 때문에 社会的支配慾이 強하다. 벼슬을 할때 社会的으로 奉仕하는데 보다 立身揚名을 통해서 社会的 支配慾을 滿足시키는데 더한 기쁨을 얻는것 같다.

우리는 말로 「不正腐敗」가 一掃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公職者의 奉仕精神은 向上되지 않아도 「不正腐敗」가 一掃될 수 있을것 처럼 믿는다. 만일 그렇게 되더라도 奉仕精神의 向上없이는 그成就動機가 弱化되어 業務能率이 低下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不正腐敗」도 奉仕心의 不足에 基因한다는 事実을 상기할때 道義教育을 통한 奉仕心의 向上과 職場의 安定, 職務의 興味, 昇進昇級의 機会의 均等 같은 内的인 勤務条件의 改善없이 「報酬引上」등 外的인 勤務条件의 向上만으로는 「不正腐敗」의 一掃가 不可能함을 알아야 한다.

또 社会的支配慾 滿足의 客体가 되지않고 主体가 되기 위해서 될 수 있는대로 自己의 価値를 誇張해서 外表하기 위한 虛勢的인 奢侈는 바로 여기에 縁由한다.

自己의 価値를 돋 보이게 하는 奢侈는 일종의 「社会的 投資」로 보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가 「盲目的」으로 倹素한 것과는 相反되며 社会発展을 阻害한다.

公共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集団의 智慧를 잘 創造하여 実行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또한 어렵다. 이集団智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의 智慧를 모아야 보다 나은 集団智가 形成된다는 信念이 必要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많은 사람과의 「対話」를 前提하는데도 不拘하고

우리는 「相互不信」과 「人間的인 上·下意識」때문에 이 「対話」가 아주 어렵다. 따라서 集団智의 実行에 필요한 協同도 또한 어렵다.

우리는 어느모임에서나 対話를 하기전에 먼저 情意的合致를 이루기 위한 措置를 취하지 않으면 不信感때문에 正面的인 「言語通信」은 하지 않고 「눈치通信」을 하게 된다.

이와같이 意思疎通이 硬塞해지는 것은 公共의 일을 向上시키기 위한 個々人의 創意性의 発揮가 어렵고, 集団智의 創出이 어렵고, 나아가서는 集団思考의 閉鎖化에 의한 判断의 独·寡占을 가져온다.

이상에서 指摘한 우리社会의 発展에 阻害되는 要素들은 우리의 道義가 向上되면 克服될 수 있기 때문에 道義의 社会発展에의 重要性은 밝혀진 셈이다.

教育을 百年大計라고 하면서 이와같이 社会発展에 影響力이 深遠한 道義発達의 問題가 심지어는 教育者에게도 別로 問題意識化하지 않는것 같다.

이것은 教育이 아직 個人의 立身出世的인 意義外에 社会発展的인 意義의 意識이 不足한 때문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것은 이렇게 間接的으로 社会発展을 阻害하기 때문에 이런 現象이 教育者에게는 별로 問題意識化되지 않는다는 点이다.

教育政策立案者가 社会発展에 直接的으로 寄与하지 않는 教育問題에는 거의 外面하고 教育者는 知識教育이나 芸能教育같은 그効果가 당장에 잘 드러나는 教育外엔 別 関心이 없는것이 큰 問題이다. 即 問題가

되는것을 問題意識化하지 않는것이 바로 큰 問題이다.

(5) 社会的 適応을 위해서 高貴한 心的〈에너지〉가 非生産的으로 消耗되고 相互不信感때문에 集団智의 創造와 実行이 잘 안되어 많은 사람들이 公共의 일에 袖手傍観하거나, 冷笑하거나, 否定해 버리거나 하는 것을 별로 問題意識化하지 않는것이 또한 큰問題이다.

社会発展은 一時的인 作業이나 運動을 展開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니고 全国民의 日常生活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全国民의 〈에너지〉가 高度로 開発되고 能率的으로 組織되어야만 잘 이룩됨은 明白하다.

우리는 지난 60年代에 刮目할만한 発展을 이룩했다. 그러나 物量生産에 置重하여 所謂 「実績主義」에 偏重된 社会発展戦略은 이道義面이 疎忽히 다루어져 結果的으로 不信風潮, 頽廃, 享楽, 利己主義등 沮害要因을 解消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国民 〈에너지〉의 浪費와 創意性의 死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社会不安定까지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다.

国民 〈에너지〉 開発이 組織에 先行되거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組織만 強調될때 그것은 貧困한 것이 되고 나아가 相対的 貧困意識을 誘発시켜 社会発展의 速度를 遅滞시킬 뿐이다. 말할나위없이 国民 〈에너지〉의 「開発」과 「組織」이 併行되어야만 社会発展이 長期的으로 加速化될 수 있다.

2) 韓国文化의 特性과 道義

近来에 民族의 主体性을 確立하기 위해 伝統文化를 発掘하여 民族의 自己正体를 再認識하고 새로운 文化와의 調和를 통하여 韓国的인 文化를 暢達하려는 努力이 한창이다.

特히 国史教育의 強化로써 民族主体性教育을 図謀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나 과연 国史에 나타난 우리民族의 文化的 特徵이 무엇이며 그特徵이 現在의 社会発展에 어떠한 示唆를 주고, 어떻게 活用될 것인가를 探索하는 努力이 不足한듯 하다.

어떤이는 우리民族의 文化的 特徵을 「感覚文化」라 하고 우리의 言語生活에서 「口愛期的 表現」이 많음을 例로든다.

그러나 우리 文化가 단순히 「感覚文化」라기 보다 더 深奥한데에 起源한 보다 次元높은 文化임을 重視해야 한다. 即 얄팍한 「맛」의 文化가 아니고 두텁고 深奥한 「멋」의 文化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文化를 「멋의 文化」로 規定하고 이 「멋」의 代表的인 例를 몇가지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固有宗教에서 그起源을 찾아 新羅의 花郎徒, 李朝의 「화랭이」와 「선비」에서 人本主義的인 「弘益人間」에서 人乃天의 思想을 確認할 수 있다.

「멋」의 宗教性이 밝혀지고 「멋쟁이」의 典型을 花郎에서 본 花郎徒의 宗教를 밝히면 「멋」의 뜻도 한결 자세히 밝혀질 것이므로 우리文化의 特徵인 「멋의 文化」도 自明해질 것이다. 다른 機会에 花郎과 「선비」에 대해서는 詳論하기로 한다.

그런데 新羅의 花郎徒는 国家的인 組織体가 되어 三国統一이란 国家的인 目標의 追求라는 向外的인 使命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世俗五戒 같은 倫理的行動綱領을 가졌다. 李朝의 両班에게는 厳格한 儒教倫理가 있었고, 人乃天을 믿는 東学人에게는 天地開闢思想뿐만 아니라 除暴救民

이라는 〈켓취프레이스〉와 教祖의 伸寃感情이 있었다.

이러한 一連의 事実들을 神人合一의 経驗에서 놀라운 霊気를 얻는 人間이 神의 容器로만 그치지 말고 向外的인 倫理的 行動으로 規制될 때. 即 神의 道具로서 「行動」할때 그의 勇猛을 発揮함을 알 수 있다.

金庾信将軍이 三国統一이란 聖業完遂를 위해 戦場에 나가기전에 山神祭를 지냈듯이 李舜臣장군도 倭敵을 물리치기 위해 天神에 勝戦을 비는 祈禱를 했다고 한다.

「선비」가 官員으로서 社会的 支配慾의 満足이란 〈쎄디즘〉的 快楽에 빠지지 않고 오직 国泰民安에만 熱中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런 快楽을 모르고 山中居士로서 혹은 鄕里의 處士로서 儒教倫理에 厳格하면서 높은 気慨와 강인한 抵抗精神을 가졌었다.

基督教에서 「福音」은 「律法」을 完成시킨다고 하는데 「律法」은 「福音」의 存在根拠라고 하겠다. 心理学的으로 보면 「律法」은 自我및 社会的 自我의 발달을 의미하며, 「福音」은 大我를 의미한다.

그런데 韓国의 基督教가 「福音」의 存在根拠로서의 「律法」은 다소 等閑視하고, 「律法」의 認識根拠로서의 「福音」에 偏重하는 現象은 個人化의 前半過程이 不実하여 結果的으로 「새벽기도」나 「入神」등은 잘 하면서도 「이웃사랑」은 잘못하는데, 이것은 個人化過程에서 「中庸」을 잘 못하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発達된 自我가 発達된 社会的 自我와 大我가 충돌될때 그 사이에서 自己十字架 受難을 당하는 即 「中」하는 与件이 갖추어지기 어렵다.

이 「中」하는 經驗이 없기 때문에 罪感이 없이 未発達된 自我가 大我에 의해서 팽창되는 傾向이 있다. 그리하여 道義는 儒教倫理의 덕택으로 겨우 羞恥道義가 되었을뿐 罪道義의 수준에 이르기는 아주 어렵다.

神靈의 「Pneuma」-(精神=성령)이든 「멋진 사람」(Pneumatic man)은 進取的인 気象으로써 雄莊한 文化를 創造하며, 자질구레한 感性的 誘惑을 물리칠 수 있는 道義를 가졌는데 이 神靈한 바람을 器心의 『바람』과 感覚的 快楽慾이 대신하여 「멋진사람」이 『바람둥이』나 俗된 『멋쟁이』로 墜落하여 道義的 感覚을 鈍化시켰다.

오늘날 『멋쟁이』行勢를 하는 사람의 生活을 보면 奢侈性, 食道楽, 淫乱性이 그特徵이지 道義生活에서는 劣等함을 免치 못하는데 이것은 「멋」의 変質을 立証 한다.

아. 経済와 道徳

(1) 人間 또는 人間的価値가 実現될 수 있기 위해서는 物質生活의 뒷받침이 絶対로 必要하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銘心해야할 것은 金銭내지 物質은 人間을 위해서 重要한 手段的価値이며 目的으로서의 価値는 어디까지나 人間에게 있다는 事実이다.

낡은 価値観의 잘못은 物質내지 経済를 重要視한 事実이 아니라 物質이 도리어 人間을 圧倒하게 된 主客의 顚倒에 있었으므로 새로운 価値体系가 力点을 두고 志向할바는 物質 또는 経済의 重要性을 否認하자는 것이 아니라 人間과 物質의 関係를 올바로 回復하자는것이다.

(2) 物質生活의 安定과 權力의 올바른 驅使를 위해서 切実하게 要請되는 것은 合理的 精神이다.

첫째로 経済生活의 合理的運営이 절실하게 要請되고 있다. 経済生活의 合理的運営은 生産과 分配 그리고 消費등 모든 側面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生産의 여러過程은 企業精神과 科学的経営의 原則에 따라 遂行되어야 할 것이며, 家族主義的 思考方式, 特恵措処, 私々로운 結托등 不合理한 要因들이 介入해서는 안될 것이다. 分配는 公正의 原則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消費生活에 있어서도 奢侈와 浪費 그리고 虚礼등의 不合理한 習性을 脱皮해야할 것이다.

合理性에 関聯하여 또 한가지 力点을 두어야할 것은 公正 또는 社会正義의 側面이다. 「合理性」및 「公正」은 모두 다소의 多義性을 가진 概念이기는 하나 모든 不公正은 合理性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即 모든 不公正한 것은 동시에 不合理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前者는 後者를 包摂하는 概念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政治와 経済, 宗教와 芸術, 그리고 教育등 여러 分野의 現実的 問題들을 合理的으로 処理하는것은 公正한 社会 또는 社会正義의 樹立을 위해서 必須不可欠한 条件이다.

우리의 社会的 不均衡이 甚하다는 事実을 克服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伝統的 価値観내지 思考方式에 있어서 微弱했던 合理的 精神이 앞으로는 크게 育成될 必要는 너무나 自明하다.

(3) 그리고 公正의 問題를 物質의 分配에만 局限된 問題로 생각해서도 안된다. 人間은 物質生活의 安定과 平準만으로 삶의 보람을 느낄

수는 없다. 社会 또는 国家의 한 成員으로서 能力과 分数에 맞는 자리를 얻어, 自己의 素質을 発揮해가며, 共同의 事業에 積極的으로 参与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孤独과 疎外感을 벗어나 사는 보람을 느낀다. 그러므로 物質의 分配에 있어서 不公平이 없는 것 만으로 한 社会가 充分히 公正하다고 評価될 수는 없으며, 모든 成員들에게 일할 수 있는 機会와 자리를 公平하게 나누어 주는 것도 公正한 社会를 위해서 重要한 必須條件이 아닐 수 없다.

2) 経済와 人生

(1) 経済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古来로부터 여러가지의 見解가 있지만 経済라는 말의 常識的인 使用으로서는 人間의 여러가지의 生活局面가운데 貨幣로 評価되는 局面을 経済生活이라고 보는 見解이다. 例를들면 한家庭의 経済라고 하면 그家庭의 金銭出納을 의미하고, 国家의 経済라고 하면 그 国家의 歲入歲出에 관한 局面을 의미하며, 国民経済라고 하면 国民社会를 形成하는 여러가지의 社会関係에서 生産, 所得, 消費, 貯蓄, 投資라고 할 수 있는 貨幣로 評価되는 局面을 뜻한다.

(2) 現在, 貨幣로 評価되는 生活局面이 우리들 人生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것이 되어 있는것은 누구나 自己의 生活을 反省해 보면 너무나 分明하다. 우리들 人生의 喜怒哀楽 아니 生死의 問題까지도 例를들면 貧困이나 事業의 成敗같은것도 貨幣로 評価될 수 있는 事情에 由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貨幣로 評価될 수 있는 生活局面 即 経済的인 生活局面에서는 우리들은 可能한 限 合理的으로 行動하려고 努力한다.

例를들면 家計運営에 있어서는 주어진 所得을 使用하여 家族의 欲望을 最大限으로 滿足시키고저 研究하고, 勤務処에서 일할 때는 可能한限 짧은 時間에 많은 資金과 俸給을 獲得하려고 努力할 것이다.
또 企業経営에 있어서는 可能한限 最少의 費用으로 最大限의 収益을 얻으려고 努力할 것이다.
即 各人은 経済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各自의 立場에서 計算的인 知性을 活用하여 所期의 目的에 대하여 가장 適切한 手段을 選擇하고 利用하려 한다. 経済行爲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合理性을 「経済的 合理性」이라고 한다.

우리들이 이와같은 経済的 合理性에 따라서 行動한다는 것은 道德的으로 어떠한 意味를 갖느냐에 대해서도 옛날부터 여러가지의 見解가 伝해지고 있는데 대체로 古代·中世에서는 그러한 行爲는 人間이 生存해가기 위한 「必要惡」으로서, 그行爲自体는 아무런 道德的 価値가 없다고 보았었다. 〈프라톤〉과 〈아리스토테레스〉에 의하면 貨幣를 늘리고저 打算하는 것은 非難받아야할 低劣한 行動이라고 했으며 中世의 基督教神学者들에게 있어서는 貨幣에 마음을 빼앗긴다는것 現世에 執着하여 眞実한 信仰을 잃어버린 誘惑에 빠지는 것을 意味하였던 것이며 東洋에 있어서도 「돈을 알면 사람이 안된다」고 하면서 매우 敬遠했던 것도 事実이다.

3) 近代資本主義의 精神과 自由放任의 経済道德

(1) 経済的 合理性에 따라 行動 그자체에 道德的価値가 認定되게 된 것은 近世 欧羅巴에 있어서의 〈프로테스탄티즘〉(新教)의 職業道德観念

에 基因한바가 크다.

〈프로테스탄티즘〉 더우기 西欧羅巴에서 影響이 컸던〈칼버니즘〉의 가르침에 따르면 各人이 自己의 生活을 合理化시켜 節約하고 職務에 精誠을 다하여 能率을 올려 일하고 그結果로서 貨幣를 점점 많이 손에 넣는것은 中世의 神学者들이 가르친 바와 같이 信仰을 妨害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自己의 行爲가 神의 意思와 合致된것을 証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即 克己, 勤勉, 節約, 創意의 結果로서 얻어지는 貨幣의 多寡가 自己에 대한 神의 恩寵의 証拠라고 보았으므로 그러한 経済的 合理性에 따른 行爲는 道德的으로 보아 善行이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経済的合理性에의 自覚이 가장 確実하게 나타나는것은 무엇인가 営利企業을 運営하는 경우이다.

거기에서 사람은 그企業의 存続期間을 통하여 貨幣価値의 純増加分(利潤)을 最大限으로 하기위해 될수 있는대로 精密한 計算을 통하여 合理的으로 行動하려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利潤의 多寡가 神의 恩寵의 大小를 나타내는 指標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利潤追求行爲도 道德的인 善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合法的利潤을 어디까지나 計算的 合理的으로 追求하는 近代資本主義的인 経済行爲도 또 神의 意思에 따른 行爲라고 생각하게 되어 Max Weber가 말하는 「近代資本主義의 精神」이 생겨났다.

◦ 各自가 오로지 経済的 合理性에 따라 貨幣的으로 評価되는 自己의 利益을 追求해갈때 各者의 個々人間에 利害의 衝突이 일어나 社会는 混乱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問題에 대하여 〃아담.스미스〃는 그

러한 憂慮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各者에 있어 經濟的利益을 図謀하는것은 「自然스러운」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그러한 「利己心」에 基礎하여 行動한다면 神의 意思가 「보이지 않는 손」처럼 作用하여 各者의 利己的行動은 相互 調整되어 마치 自然界가 調和를 保全하는것 처럼 經濟社会에도 스스로 調和있는 秩序를 実現시켜 준다. 그렇기 때문에 政府는 各者가 利己心에 基礎하여 自由로히 行動하는것을 統制하거나 干涉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自由放任의 經濟道德観念이 거기에 생겨났다.

이 自由放任의 道德観念에 의하면 各者가 서로 서로 競爭하여 克己, 勤勉, 節約, 創意의 여러가지 德을 実行하여 自己의 行爲를 經濟的 合理性에 合致시켜 간다면 自己도 社会도 繁栄시키는 結果가 된다.

貧困과 失業과 人間的隷属状態에 있는者는 競爭에서의 落伍者이며, 그것은 그들이 德이 欠如돼 있었기 때문에 그本人 스스로의 責任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4) 社会主義와 人間性의 要求

各者의 利害打算에 基礎한 經濟行爲가 無数하게 関係結合되어 形成되는 近代經濟社会는 마치 自然界와 類似한 모습으로 各者의 意思나 努力만으로는 어떻게할 수 없는 固有한 法則에 따라 움직여 가게 된다. 勿論 거기에서도 어느程度의 資産을 所有하고 있거나 事業을 経営하고 있거나 하는 사람은 반드시 自己가 克己, 勤勉, 節約, 創意의 德을 実行하지 않고도 자연히 所得과 財産이 増殖되어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自己의 肉体 하나만으로 労動하며 먹고 살아 가야만 하는 無産者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諸德을 아무리 実行해 보아도 貧困과 失業의 状態에 빠지거나, 거기에 머무르거나, 또 他人으로 부터 使用되는 경우에서 浮上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事実이 알려지면서 이 無産者들에게 있어 自由放任의 経済道德과 여기에 基礎하는 経済秩序 全体의 組織이 견대기 어렵다는 생각은 마침내 一致 団結하여 이에 反抗하려는 생각이 싹트는것은 当然하다고 하겠다.

事実 歷史的으로 보아 自由放任의 近代資本主義経済社会의 속에서 貧困과 失業으로 危脅받으면서 하루의 태반을 苦痛스러운 労動에 従事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無産者들은 차차 賃金引上과 労動時間의 短縮 作業環境의 改善을 雇傭主에게 要求하거나 그러한 要求의 実現을 政府가 支援해줄것을 要求하기에 이르렀다.

近代 社会主義의 思想과 運動은 그러한 無産者들의 抑圧된 人間性에 基因하는 反抗을 道德的으로 正当하다고 是認하는것으로 부터 비롯 되었다.

5) 맑스主義에 있어서의 経済와 道德

이와같은 近代社会主義의 道德観念의 影響을 받은 <칼·맑스>는 主로 19世紀의 <유럽>의 無産者의 生活状態를 観察하여, 그들은 왜 貧困한가? 왜 失業하는가? 왜 苦痛스러운 労動에 従事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그原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담·스미스>以来의 古典派 経済学의 理論的 道具를 活用하여 研究하고, 그것은 結局 資本家階級이 無産労動者階級의 労動과 그成果를 「搾取」하여 이것을 自己들

의 「利潤」으로서 自己의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結論에 達하였다.

따라서 自由放任의 經済道德의 內容으로서 說明되는 克己, 勤勉, 節約 創意등의 德目도 結局은 資本家 階級에 의한 労動者階級의 搾取를 가장 合理的으로 能率的으로 進展시켜 가는것을 도와주는 結果를 招来할 뿐이다. 即 自由放任의 近代資本主義経済社会의 道德觀念이라는 것은 元来 이 社会의 支配階級인 資本家階級의 利益에 適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近代資本主義社会에만 限定된것은 아니다. 歷史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古代奴隸制와 中世의 封建制의 社会에서도 대개 한社会의 道德觀念이라는 것은 그社会의 経済的 実権을 掌握하고 있는 支配階級의 利益에 適合하도록 形成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無産労動者階級이 「搾取」로 부터 脫皮하기 위해서는 資本家階級에 適合하게 돼 있는 道德觀念을 超越해서 階級的団結力으로 社会革命을 遂行하여 社会의 経済的 実権을 自己들의 手中에 넣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맑스〉에 의하면 近代資本主義의 経済社会에서는 無産労動者에게 있어서 資本家階級의 経済的 合理性에 따르는 行爲는 自己들을 「搾取」하는 惡行으로 意識되어 이것에 대하여 階級的으로 団結하고 闘爭하는것이 必要하고 또 当然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即 階級的 団結과 階級的 闘爭에의 献身은 無産労動者들의 美德으로 看做된다.

。 20世紀에 이르러서 蘇聯, 東欧諸国, 中共에서는 이 〈맑스〉의 思想에 基因하는 社会革命이 現実的으로 일어났다. 그結果 이들 国家들에서는 資本家 其他의 搾取階級은 原則的으로 社会로부터 排除되어

모든 国民은 労動者라는 方針이 취해지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 労動者인 全国民의 利益을 代表하는것을 標榜하는 共産党은 実質的으로 国家権力을 独占하고 그国家는 事実上 国民 모두의 生活局面을 計劃的으로 統制 管理하게 되었다. 거기에서는 労動者들은 国家가 定하는 作業量基準을 될수 있는대로 合理的 能率的으로 遂行하고, 아니면 超過遂行하는것을 義務로 지워 이것을 게을리하거나 <스트라익>이나 <데모>로서 이것에 反抗하는것은 容納될 수 없다. 거기에서는 克己, 勤勉, 節約, 創意가 強制的으로 労動者들에게 要請되고 있는 것은 資本主義的 企業속에서 労動하는 勤労者들의 경우와는 달리 強要 당하고 있다고 한다.

6) 福祉社会에 있어서의 経済道徳

◦ 美国, 西欧諸国, 日本등의 소위 資本主義諸国의 経済社会도 近来 2~30年末에 크게 変모해 왔다.

自由放任의 経済道徳観念은 漸次 사람들로 부터 잊혀져 国民의 貧困과 失業과 人間的 隷属状態에 対해서는 政府가 責任을 져야 한다는 「福祉社会」 또는 「福祉国家」의 理念은 점々 많은 사람들의 支持를 얻고 있다.

◦ 特히 1936年에 이르러 <J. M. 케인즈>가 社会의 有効需要의 不足에 의하여 失業, 其他의 経済的弊害가 惹起된다는 理論을 提唱한 뒤 부터는 사람들의 「貨幣에의 愛着」에 基因하는 節約과 貯蓄은 반드시 美徳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 有効需要의 構成要因이 되는 「投資」와 「消費」가 社会全体의 福祉라는 立場에서 새로이 고쳐서

評価되게 되었다.

오늘날의 美国, 西欧諸国, 日本등에서는 政府의 公共投資와 技術革新을 위한 企業의 새投資, 그리고 労動者의 所得과 購買力을 높이기 위한 労動組合의 活動같은 것이 道德的으로도 是認되어 要請되게 되었다. 그 結果, 政府의 経済行政機構는 점々 広範하고 多岐하게 되며, 企業은 大規模化하며, 労動組合도 巨大化해 가는 傾向에 있다. 이리하여 이제는 各者의 経済的 運命은 各者의 個人的인 克己, 勤勉, 節約, 創意뿐 아니라, 政府, 企業 労動組合등 여러가지의 組織体의 経済活動에 漸次 크게 依存하기에 이르렀다.

◦ 이와같은 社会的状況속에서 各者의 経済行爲에 대해서도 단순히 個人的인 経済的合理性뿐 아니라, 제가끔의 組織体의 経済的合理性을 위한 連帶意識과 協同性, 그리고 社会的責任感같은것이 美德으로서 要請되기에 이르렀다.

組織을 위한 作用, 組織에의 帰属, 精神的으로 肉体的으로도 組織의 生活에 忠誠을 盟誓하는 「組織人」으로서의 道德이 経済社会에서도 要請돼 오는 것이다. 例를 들면 企業経営者에 대해서는 企業의 規模가 拡大됨에 따라 他人의 생각에는 相関하지 않고, 다만 自己의 計算과 危險만에 基因하여 最大限의 利潤이라든가, 経済的支配力의 拡大 強化를 専心으로 追求한다는 態度는 오히려 道德的으로 보아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고 看做되어, 그것보다는 株主로 부터의 信頼, 従業員과의 関係의 매력적인 外観, 顧客과 地域社会로 부터의 評判같은 것에 끊임없이 関心을 가지고 企業을 経営해 가는것이 道德的으로도 礼讃받는다.

企業経営者들은 점々 많은 関心을 「人間関係」에 쏟게되어 〈매스콤〉, 広告, 面接計劃, 〈그룹〉活動, 意思疎通方法등을 活潑하게 利用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오늘날의 大規模企業 가운데는 組織의 触手가 個人혹은 小集団의 心理에 깊숙히 파고들어, 組織에의 忠誠感을 심어놓고 組織体에의 個人의 全人間的 埋没을 計劃的으로 促進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現代의 経済社会를 形成하는 여러가지 組織体가 아무리 個人을 全人間的으로 帰属시키려해도, 혹은 그렇게하면 할수록 各個人의 心底에는 人間으로서의 疎外感이 생겨날 것이다. 더우기 「人間関係」의 管理의 客体로서의 人間的으로 「操縦」돼 가고 있는 勤労者에게 있어서 職場에 있어서의 自己疎外感은 深刻해질 것이다. 그러나 組織体의 속에서 人間疎外的인 労動過程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勤労者들 相互間에는 自己疎外感에 苦悶하는 者로서의 連帯性이 自覚과 그것에 의한 友情이 싹터서 그것을 動機로 하여 職務上 同僚間에는 마음이 통하는 実存的 交驩이 열려질 것이다.

勤労者들 한사람 한사람이 自己의 人生을 포기하지 않고 自己의 自由로운 人間的 存在를 악착같이 主張하는限 그들은 아무래도 自己에게 도사리고 있는 人間疎外的 労動過程에 反抗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自由의 反抗의 具体的 様式은 그때 그때의 状況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같은 労動過程속에서 함께 苦悶하는 同志的 実存的 交驩이 열려 있는 곳에는 그들의 한사람 한사람의 自由의 反抗은 社会的으로 結集되어 民主的인 労動運動이라는 形態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民主的 労動運動에의 連繫를 통하여, 現代의 経済社会에 사는 勤労者들의 새로운 道徳이 実践돼 가는 것이다.

第 4 章

社會気風醇化를 위한 하나의 提案

第4章 社會気風醇化를 위한 하나의 提案

1. 醇化運動의 主役

◦ 한 国家를 主体로 삼고 価値体系를 革新하여 그 社会의 気風을 醇化하는 일은 단순한 理論의 問題가 아니며 決意와 説得만으로 成就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精神姿勢를 새롭게하는 観念的 事業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社会現実 그 自体를 改革하는 実践의 事業이기도 하다.

그것은 富強한 나라를 建設하여 国民각자에게 安寧과 幸福의 터전을 마련해 주게 되고, 国民각자는 타고난 素質과 能力을 充分히 発揮하여 빛나는 民族文化를 樹立하는 段階에 까지 이르렀을때 비로소 完成을 보는 거창한 運動이다.

◦ 그토록 거창한 国家的事業이 自然의 変化 또는 남의 힘에 의해서 到達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僥倖이 아님은 勿論이요, 少数의 憂国志士의 努力만으로도 큰 成果를 거두기 어려운 전체의 課業이다.

그리고 이 課業은 그本質에 있어서 精神的인 運動인 까닭에 모든 国民의 自発的 参与가 아니면 成就되기 어렵다. 그러나 비록 自発的 参与를 要請하는 共同의 課題이기는 하나 그것이 本来 무수한 사람들의 힘을 効果的으로 합쳐야 할 일인 까닭에 치밀한 組織力과 科学的인 計劃性이 뒤따라야 한다.

◦ 치밀한 組織力과 科学的 計劃性의 뒷받침이 있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指導勢力이 필요하다. 現代民主主義 国家에 있어서는, 그리고 여러 分野에 걸친 專門家의 知識과 技術을 要하는 綜合的事業을 위해서는 少数의 指導者 만으로는 不足하므로 相当数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指導層의 形成이 必要하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그指導層의 有力한 成員이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部類의 사람들이냐 하면 첫째 사람들의 職業내지 社会的 地位를 中心으로 形成하는 길이요 또하나는 사람이 가진 能力과 人品을 中心으로 삼고 形成하는 길이 있다.

◦ 価値体系의 革新을 위한 指導者로서 갖추어야 할 条件으로서는 ① 改造에 대한 強한 意志와 使命感이 透徹해야 하고 ② 私心을 克服하고 率先垂範을 할 줄 알아야 하고 ③ 事態를 높은 観点에서 바라봄으로써 항상 넓은 視野를 잃지 않는 동시에 問題를 客観的이며, 巨視的인 見地에서 解決하고자 하는 合理的이며 公正한 態度 ④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雅量, 스스로의 잘못을 率直하게 인정하는 正直性, 어려움 앞에 萎縮되지 않는 信念과 勇気, 奸邪와 阿諂에 현혹되지 않는 明察등이라고 하겠다.

◦ 우리나라의 通念에 의하면 学者 또는 教育者 및 言論人등 이른바 知性人은 価値風土 내지 精神的 姿勢의 問題에 관해서 指導者的 責任을 져야할 것으로 看做되고, 다음은 政治界와 経済界에 있어서 有力한 地位를 차지한 사람들에게 指導層의 任務를 担当할 責任이 있다고 본다.

◦ 現代社会에 있어서 教育, 学問, 芸術, 言論등 모든 分野의 活動이 行政府와 経済力에 依存하는바 크다는 事実과 우리나라 社会問題의 大部分이 金銭과 密接한 関係를 가졌다는 事実을 考慮할때 政界와 財界의 〈엘리트〉層이 갖는 価値観 如何에 따라 우리 国家와 民族의 運命이 걸려 있다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 나라 전체의 問題를 다루는 中央의 指導層도 중요하지만 一線의 여러 地域社会및 団体의 中心人物이 되고 있는 일꾼들의 力量과 責任도 過少評価해서는 안된다. 各級 学校의 教師, 地方에 散在해 있는 各級公務員, 여러 企業体의 幹部社員들, 그리고 特히 農漁村의 中心人物들이 어떻게 行動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属해 있는 集団의 精神風土가 달라지며 나아가서는 그들集団의 発展相이 決定된다.

2. 醇化 運動의 方法

◦ 온 겨레의 生活態度와 社会現実을 短時日안에 革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比하면 한 部落과 같은 작은 集団이 卓越한 指導者를 中心으로 손 쉬운일부터 하나 하나 고쳐 나가는 일은 눈에 보이는 成果를 거두기가 어느정도 容易하다. 눈에 보이는 成果를 거두면, 그 이웃의 部落들이 그것을 본받아 그같은 気風과 生活態度가 점々 널리 普及될 것을 期待할 수 있다. 이러한 観点에서 볼 때 小規模의 集団을 中心으로한 革新運動의 意義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지금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새마을 운동」의 成果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를 실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社会気風醇化対策要綱에 따라서 全体의 方向을 잡아 주고, 全体의 뒤를 밀어 주는)- 中央으로 부터의 革新運動과 -(여러 작은 集団들이 各々 그 特殊性에 따라서 具体的인 細部実践事項들을 차근 차근 고쳐나가는)- 地方으로 부터의 運動이 有機的連結을 가지고 위와 아래에서 서로 接近하는 길일 것이다.

◦ 特히 発展途上에 있는 나라의 경우 権力層과 知識層이 높은 次元의 協同이 切実히 要請되는바 「指導層을 構成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期待를 国民으로 부터 받고 있는 階層 자체 内部의 団結과 協同이 되지 않는다면 나라 전체의 人的資源을 組織化하여 国力의 総和를 成就할 수 없을 것이다.

指導層이 協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로 私心을 떠나서 公益優先의 見地에 서야 하며, 둘째로 偏見을 버리고 易地思之하는 雅量으로 서로 対해야 하며, 세째로는 安易하고 無責任한 妥協을 協同으로 誤認함이 없어야 한다.

◦ 사람들의 行爲는 우리가 흔히 「現実」이라는 말로서 社会的与件의 制約을 받게 마련이며, 그与件들의 防害가 심한 경우에는 自己가 옳다고 믿으며, 또 스스로 주장하는 행위 일지라도 実際에 있어서는 그 주장대로 行動하기가 매우 어렵다. 例를들면 上司에 阿諛 또는 展示 効果를 쓰지 않고는 昇進은 고사하고 現職을 維持하기도 어려운 風土속에서는 그러한 行動을 不当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職場을 포기할 수 없는 事情에 놓여 있을때는 自己의 所信대로 行動하기는 대체로 어렵다.

◦ 따라서 우리가 옳은말이 指示하는대로 行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옳은말을 따라서 実践할 수 있는 社会的 与件의 調整내지 改造가 先行해야 할 것이며, 그보다 앞서서 現在의 社会的与件 가운데 우리들의 行爲로 하여금 本意아닌 過誤의 길로 모는(誘導)要因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正確한 認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現在의 不合理한 与件을 是正할 수 있는 方案이 政治, 経済, 社会등 여러分野에 걸쳐 여러 角度에서 研究되어야할 것이다. 여기에 価値体系의 改造라는 課題가 社会科学者들의 広範囲한 参与를 必須条件으로서 요청되는 事由이다.

◦ 社会現実의 改造와 価値観의 革新은 巨大한 規模와 複雑한 構造를 가진 現代 国家에 있어서 주먹구구식 計劃과 断片的努力으로는 到底히 成果를 거둘 수 없는 어려운 課題들이다.

따라서 우선 必要한 것은 未来像에 대한 綜合的青写真을 科学的 根拠와 슬기로운 洞察에 依拠하여 作成하는 일이며, 그것을 作成하기 위해서는 여러分野의 専門家들이 参与한 綜合的인 共同 研究가 앞서야 했기 때문에 当部의 社会保障審議会에서는 지난 68年 부터 調査 研究를 継続해 왔다.

그러나 보다 더 알찬 共同研究를 本格的으로 遂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常設研究機関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研究에는 社会科学, 人文科学및 自然科学의 有能한 学者들을 고루 参加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 醇化対策要綱에 따라 実践함에 있어 가장 重要한 것은 指導層의 率先垂範이다. 이運動을 先導하는 사람들이 우선 行動으로써 模範을

보여 넓은 意味의 人間教育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른 종류의 教育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人間教育에 있어서도 우리는 忠告, 説得, 訓話등 言語를 使用하는 方法에 依存할 경우가 많다. 그런데 人間教育에 있어서 言語를 使用하는 方法의 効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부터 尊敬과 信頼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道徳的 発言이 남을 움직이는 힘을 갖는것은 그 말자체의 内容보다도 그말을 한 사람에 대하여 그것을 들은 사람이 平素에 느껴오던 尊敬과 信頼를 받는 指導者로서의 〈이미지〉를 깊이 심어주는 유일한 方法은 言行이 一致하도록 率先垂範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속에 뜨겁게 느끼는바 있게 하는 実践이다.

◦ 道徳的인 革新運動은 되도록 民間運動으로 展開하되, 行政府의 積極的支援이 있어야 하겠는데 特히 그運動은 끝까지 나라와 겨레 전체를 위한 純粋한 精神運動으로 始終 一貫해야 하며, 다음은 行政府의 支援이 그것을 받는 民間団体의 能力과 業績에 따라서 適切하고 公正하게 베풀어져야 한다는 点에 留意해야 한다.

◦ 道義的社会의 建設을 志向하는 이 革新運動이 展開될 경우에 있어서 新聞및 放送등 言論機関의 使命과 力量은 매우 크다. 言論機関은 그 自体가 革新運動의 主体내지 中心이 될수도 있고, 다른機関이 展開하는 運動을 側面에서 支援할 수도 있다.

남이 主動이 된 運動은 真実을 報道하고 善, 美를 勧奨하는 참된 〈저널리즘〉의 精神으로 充分할 것이나, 直接 運動의 主体가 되고자

할 때는 〈저널리즘〉이 갖는 限界를 克服할 수 있도록 研究와 実践에 專念할 機関이 따로 附設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새로운 人間教育을 위해서 既存의 教育機関 特히 各級学校를 적절하게 活用되도록 最善을 다해야 할 것이다. 至今까지의 우리나라 学校教育이 試験準備와 知識習得에 置重한 弊端이 是正되어야 할 것이며 全人的 人間을 길러내겠다던 本来의 教育目標에로 다시 接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위해서 教科課程을 改編하는 한편, 被教育者에 대한 教育者의 映像을 높이는 일이 가장 優先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率先垂範하여 尊敬과 信頼를 받을 수 있는 教師像을 세우는 師道의 確立이다.

教育을 넓은 意味로 解釈할 때 전체로서의 既成世代와 새世代 사이에는 教育者와 被教育者의 関係가 存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既成世代의 道徳的評価가 젊은 世代의 人間教育의 成敗를 거의 左右하며, 社会 現実 전체가 어느정도 正義로우며, 満足스로우냐에 따라서 거의 決定된다.

◦ 現在 우리나라에도 社会醇化를 念願하는 여러団体들의 社会운동이 곳곳에서 展開되고 있어 꾸준한 研究와 誠実한 努力으로 오래 持続하게 되면, 장차 큰 成果를 얻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몇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첫째 어디까지나 民間이 주동하는 精神運動으로서의 純粋性을 지켜야 하고 둘째는 外観과 形式을 물리치고 内面과 実質에 置重해야 하고, 세째는 모든 功名心과 展示効果를 초월한 사람들의 손에 그主導権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類似한 뜻을 바탕으로 革新運動에 臨하고 있는 여러 団体들이 横的 連絡을 가지고 相互 協助한다면 전체의 成果는 더욱 클 것이다.

3. 醇化運動의 推進計劃

① 社会気風醇化運動의 展開方向을 첫째 「새마을 운동」으로 부터 시작하여 指導者의 率先垂範을 強調하고 汎国民的인 社会運動으로 発展시키되 一時的이 아닌 継続的인 運動으로 推進해야 할 것이다.

두째는 社会的안 諸条件의 整備 調整과 必要에 따른 새로운 制度의 마련을 비롯하여 物質的인 環境의 造成등 社会改造를 통하여 모든 公私生活을 営爲하는데 法과 条理대로 行動하지 않으면 배겨내지 못하게 하는등 人間再開発을 誘導해야 할 것이다.

세째는 各級学校의 人間教育의 強化와 緊密하게 提携하여 啓蒙指導를 強化하는 한편, 特히 新聞 放送등 <매스 콤>의 能動的인 参与와 協同을 誘発하여 社会倫理내지 社会道義의 昂揚에 積極的으로 協調하고 寄与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② 앞에서 累々히 指摘한바와 같이 醇化対策内容이 広範囲하고 多様하기 때문에 一時에 혹은 당장 是正한다는 것은 到底히 想像할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이므로 이를 段階的으로 推進해 나가야만 여러가지 副作用을 防止할 수 있을 것이다.

第1段階에는 손쉬운 実践事項을 통하여 醇化運動에 불을 부치는 点火의 段階로 하고 第2段階는 各部門의 拡充段階로 하여 部門別 細部実践計劃을 拡充하여 強力히 実践하도록 하고, 第3段階는 各部門別計劃

의 発展的인 基盤을 確立하는 동시에 成熟의 段階로 하여 推進하는 것이 効果的이라고 하겠다.

③ 우선 第1段階에서는 〈새마을 운동 中央協議会〉의 外廓機構로서 民間団体가 参与하는 「社会気風醇化対策会議」(可能하면 国務総理 直属機構로)와 같은 協議体를 마련하여 関係部処에서 作成한 細部 実践計劃을 調整하는 한편 有機的이고 効率的인 協助를 摸索하며 많은 豫算이 수반하지 않고 行動化하기 쉬운 事項의 実践을 서둘러 共同의 目標達成에 集中的인 努力을 傾注해야 될것이며, 第2段階 以後의 計劃을 첫段階의 推進状況과 그成果分析을 基礎로 하여 効果的인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結　　論

1) 여러가지 制約으로 充分한 資料의 蒐集과 検討 統合과 調整이 이루어지지 못한채 本稿를 収録해 놓고보니 앞으로 더욱 더 奮発하여 보다 豊富한 資料整備에 많은 人力과 時間이 必要하다는 事実이 自明해 졌다.

2) 現代社会의 複雜한 生活을 営爲하는 가운데 正直과 誠実등의 伝統的 〈모랄〉로서는 堪当하기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으며, 오히려 時勢에 臨機応変하면서 잘 適応하는 融通性이나 柔軟性등이 더 必要한 듯한 錯覚을 일으키게 한다. 이러한 精神風土는 자연히 実利主義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이제 하느님은 西欧文化에 있어 하나의 装飾品이 되었다」고, 〈바하니안〉(Gabriel Vahanian)이 말한것 처럼 온 世界가 하나의 精神的 空白時代를 体験하는 듯 하다. 世俗主義는 無神論을 또 無神論은 倫理的 無政府状態를 비져 냈다고 하겠다.

伝統的 有神論의 崩壊는 〈르네쌍스〉以後, 近代文明이 崇尚해 온 人間의 尊厳性이나 個人의 自由와 같은것을 腐蝕시켰으며, 동시에 사람이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졌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또 〈다윈〉의 進化論을 믿게 될 때 사람의 尊厳性에는 금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칼·맑스〉가 본 経済的 人間論, 〈니이체〉의 権力的 人間論,

〈프로이드〉의 性的 人間論등도 모두 一面의 真理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価値를 떨어뜨린것은 事実이다. 萬一 経済, 権力, 性과 같은 것들이 人間의 本質이라면 사람을 自己의 経済的, 権力的, 性的 満足을 얻기위한 手段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成立된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自己利益이상의 道徳이나 価値가 存在할 수 없을 것이다. 그結果 오늘날 一部의 사람은 伝統的인 神에 대한 信仰뿐 아니라 사람이 지닌 理性도, 生命에의 敬畏心도 잃게되는 現実을 낳았다. 各者가 実利를 至上의 価値로 삼을때 사람数만큼의 価値位階가 늘어날 것이며, 또한 競争은 더욱 過熱해지는 混乱을 가져올 것이다.

3) 倫理的〈아나키〉状態는 現代文明의 特徴이며 〈매스 콤〉의 商業主義的 発達은 이런 状態를 더욱 深化시키고 있으며, 特히 現代의 映像文化는 人間의 理性보다도 感覚을 無限定하게 刺戟함으로써 他人志向的 感覚人間을 急増시키고 있으며, 最近에 世上을 놀라게 하는 猟奇的 殺人, 어린이 誘拐등등 事件의 発端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動機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現実은 무엇을 우리에게 要求하고 있는지 그解答은 自明할 것이다. 特히 友愛와 連帯意識을 잃어가는 都市生活의 『孤独한 群像』에게는 이런 추세가 나날이 深化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4) 或者는 「아무런 倫理의 基準도 価値도 없는 即 때와 場所 그리고 必要에 따라서 좋고 나쁜것이 恒常 변하는 『状況倫理』가 사람들의 마음을 支配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勿論 人間世界에 있어서 永遠토록 不変하고 完全無欠한 것이 있을 수 없으며 때와 장소에

따라 사람의 마음도 狀況도 欲求도 변할 수 있겠지만 모든것이 変하드라도 사람이 사람을 尊重하는 根本的 価値야 달라져서는 안된다. 萬若 이것을 忘却하고 各者가 自己의 実利와 享楽, 利己와 安逸등을 追求한다면 人間社会가 動物社会보다 더 낫다고 할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価値가 떨어지고 人間의 이름대신 登録番号가 〈컴퓨터〉에 의해 操縦되고, 倫理나 道義라는 말조차 陳腐하게 들린다면 사람의 人格과 自由, 人権과 〈프라이버시〉와 같은것이 모두 剝奪될 것이니 우리의 앞날은 果然 어떤 世上이 될 것인지 想像조차 하기 싫어진다.

5) 그렇기 때문에 「社会倫理研究院」같은 것이 마련되어 오늘의 現実을 直視하고, 分析 評価하여 바람직한 未来像을 設計하며, 우리모두의 進路를 밝혀 共同運命体의 하나 하나의 成員들이 共同目標達成에 集中的인 努力이 傾注되도록 새로운 社会의 倫理的価値와 行動的德目을 찾는데 보다 더 積極的인 活動을 展開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早晩間 죽음을 免치 못할 有限者라는 厳粛한 事実을 想起하여 옹졸한 小我를 超越하고 보다 큰 自我로의 눈을 크게 뜨고 世界와 人生을 새로운 角度에서 바라보는 心機一転의 契機가 成熟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特히 이 試論을 作成함에 있어 많은 資料와 高見을 提供해주신 여러분에게 感謝하오며 앞날에 더욱 많은 指導와 鞭撻을 期待합니다.

參 考 資 料 와 文 献

韓國文化史大系（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朝鮮家族制度研究（金斗憲著）

朝鮮民族文化의 研究（孫晋泰著）

現代와 家族（金斗憲著）

道義와 道義教育（李玟泰著－培英社刊 教育新書）

새로운 価値観의 志向（金泰吉著）

理想과 現実（柳承國，李奎浩，車仁錫，金炯孝，共著）

韓國의 再発見（崔 仁著）

韓國人의 社会的性格（崔在錫著）

國民倫理（金斗憲著）

価値観과 教育（鄭範謨著）

基礎主義（韓基彦著）

未来意識的教育（吳天錫著）

孝 経 （李民樹訳）

擊蒙要訣（李珥著，李民樹訳）

國民倫理研究 創刊号，2号（國民倫理教育研究会編）

韓國教育의 問題와 展望（延大教育大学院編）

새 韓國의 価値観（高麗新書第10輯）

原本備旨大学（金赫済校閲）

原本備旨 中庸集註

新訳　論語（南晩星訳）

孝　（尹聖範著）

退溪学報 1 ～ 6 輯（退溪学研究院編）

退溪의生涯와　学問（李相殷著）

栗谷의　生涯와　思想（李丙燾著）

人間의　社会化와　社会의　人間化（李奎浩著）

人間社会秩序論（B.럿셀著，金泰吉訳）

近代化와　人間化（크리스챤　아카데미編）

両極化時代와　中間集団（　〃　）

韓國人의　思想構造（　〃　）

危機時代를　사는　争点（　〃　）

韓國文化의　状況分析（　〃　）

社会発展과　教育理念（　〃　）

女性文化의　挑戦（　〃　）

救援의哲学과　現代宗教（　〃　）

韓國社会의　診断과　展望（　〃　）

対話의　歷史（　〃　）

意識構造上으로　본　韓國人（尹泰林著）

韓國人의　精神的故郷（李御寧著）

青年文化論（李重漢責任編輯）

現代社会와　青年文化（韓完相著）

新訳四書三経（玄岩社発行）

価値観의 革命(崔光烈著)

道徳的人間과 非道徳的社会(라인홀드, 니이버著, 李炳燮訳)

理性과革命(H.마르쿠제著, 金淙鎬訳)

現代의 大罪(K.로렌츠著, 金淙鎬訳)

近代化の社会経済理論(高島善哉著)

福祉國家における教育(中鳩博外共著)

経済犯罪論(李鍾元著)

ヘフナー社会 経済理論(坂本康実訳)

経済発展과 社会変化(大韓商工会議所編)

経済社会의 均衡発展(〃)

父母恩重経(李民樹訳)

青年心理学(鄭寅錫著)

新しい倫理(現代倫理事典ー金子武蔵編)

価値意識の理論(見田宗介著)